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2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355 호



법석 조대 **묵산 스님** 보림사 회주



"말 한마디, 생각 한 마디가 공부거리입니다.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8정도를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공부하고 포교해야 해요. 깊 바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교하다 죽으면 후회가 없어요."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외국인 스님 자격 대폭 강화

종단기본교육 이수케

조계종, 기초선원운영위 열어 곧 확정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기본교육기관(기초선원)이 지정되고, 외국인 스님들도 앞으로는 내국인 스님과 마찬가지로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스님들을 의한 종단 차원의 교육도 체계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1월29일 외국인 승려 교육관계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기초선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원은 현재 화계사와 국제선원, 연등국제불교회관 국제선원, 무상사 등 3곳을 외국인 기초선원 겸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화계사와 연등국제불교회관 국제선원은 지난해 기초선원운영위원회에서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지정했으나, 종회를 통과한 종단 차원의 기본교육기관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들 선원이 종회에서 기초선원(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계종에 등록된 외국인 스님(사미 · 사미니)들은 이곳에서 8번의 정규안거에 6번의 교과안거(산림교육)를 이수하면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 스님과 마찬가지로 강원 등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해야만 구족계 수지 자격이 주어졌었다.

기초선원 지정과 함께 외국인 스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본격화한다. 교육원은 우선 오는 3월4일부터 9일까지 화계사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전통 예식 및 염불 수행법, 예절법 등의 전통불전의식 집전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외국인 스님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국대학교 언어연구원에서 1년 과정의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8월까지 교육원 및 외국인 스님과 국제포교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초발심자경문, 치문, 서장, 조사선어록 등의 교재를 영어로 번역, 외국인 스님의 자체 학습교재 및 기초선원 교과안거 교재로 활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2 ·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원사에 등장한 축구공燈

"화이팅! 월드컵 성공과 한국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월드컵을 맞아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템플스테이와 영산재 시연 등을 준비하고 있는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가 경내에 축구공 등(燈)을 달았다. 공을 차고 있는 동자승 캐릭터가 돋보이는 축구공燈은 봉축위원회와 용호산업이 공동 제작했다. 사진= 고명배 기자

"일산병원 완공후 용퇴"

동국학원 녹원 이사장, 감사 문책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이 올해 안으로 이사장직을 내놓는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1월 29일 열린 181회 이사회에서 공금횡령사건과 재단 관리부실에 대한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12월 31일까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이사장 용퇴'를 결의했다. 이와 관련 녹원 스님은 "그만둘 때가 됐다. 잘 헤아려 마지막 봉사기회를 줘 고맙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불사(일산병원 개원)를 마무리 하겠다"며 이사회의 퇴임 결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이사장의 즉각 퇴임을 결의하려고 했으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산병원을 원만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몇몇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올해 안 퇴임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또 △동국학원 감사 3인 해임, 경리담당직원과 총무팀장 중징계파면, 전 재단사무처장 징계 △LA 동국 로얄대학에 대한 정관기재 사항 개정 및 법인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특별규정 제정 △적절한 예산 통제를 위한 체도적 장치 마련과 병원예산을 교비회계와 구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9개항을 결의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공금횡령사고는 일단락됐다.

김중근 기자 gsmjs@buddhapia.com



미황사 동백 "활짝"

빠알간 동백꽃이 해남 미황사에 곱게 피어 봄을 재촉한다.

때마침 내린 눈이 푸른 잎에 소복쌓여 동백꽃의 단심(丹心)을 더욱 더 여하게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총무원장 선거인단 줄이자"

과열막게 교구본사당 1명으로

조계종 공청회 열어

"각 교구본사당 10명으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1명으로 줄여 선거 과열로 인한 종단의 위상 추락과 반목을 막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개정 특별위원회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정병조(동국대 윤리문화학과)교수는 "중앙종회의원과 본사주지는 이미 해당교구 선거권자들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됐음에도 다시 10인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며 "총무원장 선출 때마다 제기되는 문중간의 대립, 서로 다른 지지자들 간의 반목 불신이 다음 선거 때까지 연장되는 만큼 가장 필요한 것은 선거인단 규모의 축소"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 ·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 지사모집

봄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사업을 함께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1. 모집 지역(8개 지역)
   - 강원북부 :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일원
   - 강원남부 : 원주, 정선, 영월, 평창 일원
   - 경기북부 :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 경기남부 :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충북 : 충주, 청주, 제천, 음성, 진천, 괴산 일원
   - 충남 : 대전 및 서산, 아산, 당진, 예산, 청양 일원
   - 경북 : 영주, 문경, 상주 일원 / 경남 :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일원
   - 전남 : 순천, 여수 일원 / 제주 전역
2. 포교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3.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스님, 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 2002년 2월 23일(수)
   - 제출방법 : 우편(2일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 제출처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직통전화 : 02)737-0090 대표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뉴스속 뉴스 news in news

108곳 사찰 자연생태조사

그동안 우리민족은 자연환경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 1천년 전 불국사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겼지만 주변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분량에 놀라면서도 당시 자연생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자연환경에 대한 그동안의 의식을 보여준다.



최근 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이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 108곳의 전통사찰 기초 생태조사, 분한 자료조사, 관련자 인터뷰, 사계절 모습 등을 담아내는 '한국의 108사찰 자연생태보고서' 간행불사에 나섰다고 한다.

두레생태기행이 2월중으로 사찰자연생태연구소를 설립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전통사찰 108곳 자연생태 기록은 최소한 10여년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시대 자연생태의 지표가 되는 전통사찰 108곳 주변의 자연환경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1-2세기, 또는 그보다 먼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줄 획기적인 불사라 여겨진다.

두레생태기행이 108곳의 전통사찰을 선택한 것은 산사가 우리시대 대표적 환경지표라는 판단에서다. 전통사찰 주변이 어느 곳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사찰이 '산지기'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결과이다.

두레생태기행은 이 같은 역사성도 간과하지 않고 생물학적 측면의 '고발적 생태조사'가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자연생태기록을 담아내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수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은 "사찰과 사찰주변의 자연환경을 조사 연구하는 것은 우리시대 불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찰자연생태연구소 설립을 통해 앞으로 불교의 생명문화연구, 생명법당 설립, 생명강좌 개설, 사찰환경지킴이, 생태사찰만들기 프로그램 연구, 생태토론회 세미나등의 지속적인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102) 712-5813.

김원우(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가정 불단**

1. 집안에 불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①반드시 해야 한다 ②가급적 해야 한다 ③할 필요 없다 ④안 된다
2. 가정 불단의 설치를 꺼리는 경우 그 이유는?
   ①잘 모실 자신이 없어서 ②친척이나 손님들이 불편해 할까봐 ③사찰 나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므로 ④기타
3. 가정에 불단을 설치했거나 개인적으로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설문 참여: 2월 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6호 9면에 싣습니다.



사 설

'인간4사운동' 확산시키자

온 국민이 무기력해지는 듯한 요즘 진각종이 올해 새 사업으로 벌이기로 한 '인간4사 운동'은 자못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4사'란 인사, 감사, 봉사, 희사를 말한다. 서로 존중하고 고마워하며 도와주고 베풀기를 많이 하여 이 사회를 윤택하게 가꾸자는 것이다.

진각종은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누구에게나 내가 먼저 인사하기 △은혜의 자리마다 성심으로 보은하기 △어렵고 궂은 일에 내가 먼저 솔선하기 △모든 수입의 1%를 성금으로 내기 등을 벌인다고 한다. 한 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의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볼 때 불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동참하여 이 병든 사회를 다시금 밝고 건강하게 재건하고 불교의 이상사회인 정토세상을 구축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듯이 근래 들어 우리 사회는 더욱 황폐화돼 가는 느낌이다. 사회의 어느 부문을 봐도 구심력은커녕 온전하게 운행하고 있는 구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럴 때는 종교계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나 사회지도자들의 권위가 최악의 상황으로 실추되고 지도력은 물론 '말의 힘' 마저 상실한 시대엔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 따라 난세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힘을 뭉쳐 타개해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각종의 인간4사 운동은 시의적절한 일종의 시민계몽운동이라고 평가 받을만하다 하겠다. 진각종 내부부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불교계 전체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확산 파급돼 암울하고 답답함을 말끔히 씻어내고 밝고 건전한 사회로 변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외국인스님은 한국불교 포교사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부터 외국인 스님들에게도 종단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일정한 시설을 지정, 지원육성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종단의 새로운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외국인 스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수행기관인 화계사 국제선원, 연등국제불교회관 국제선원, 무상사 등에서 정진하는 스님이 100여명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불교문화의 체험과 수행을 익힌다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통한 해외 포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송광사 국제선원을 거쳐간 외국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활동하면서 한국불교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있지만 한국불교의 승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감의 결여로 인한 책임있는 성과가 미약하였다.

이제 외국인 승려도 국적을 초월하여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재적 승려로 수행정진하고 포교 전법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제자로서의 자부심뿐 아니라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스님이라는 자긍심으로 국내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원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국대학교 언어연구원에서 1년 과정의 한국어 연수를 준비하고 있고, 초발심자경문, 치문, 서장, 조사어록 등의 영어교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종단의 교육불사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인사·감사·봉사·희사 생활화

올해 '인간 4사 운동' 실천

진각종, 통리원·복지재단·신도회 망라

진각종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올 한 해 동안 대대적인 시민계몽 운동을 펼친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화해와 보은, 선행과 보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의미의 '인간 4사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1월28일 밝혔다.

'4사'는 △인사-서로 존중하기 △감사-서로 고마움을 느끼기 △봉사-서로 도와주기 △희사-서로 베풀기를 일컫는 말로, '인간 4사 운동'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과 함께 불교정신을 통한 건전한 사회 가꾸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4사 운동'에는 통리원, 복지재단, 신도회 등 진각종의 모든 교도가 함께 참여한다. 우선 진각복지재단은 '후원업서'를 제작, 공공기관과 일반인들에게 배포해 봉사와 자비 정신을 고양시킬 방침이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해오던 '진각복지 119'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진각복지 119'는 도움이 긴급한 빈곤층에게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스리랑카에 '한국문화홍보관'을 개관하고, 네팔에서는 저소득 가정 중고생 및 자녀들을 위한 무료학습 및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인간 4사 운동'을 보급한다.

통리원은 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각 심인당과 복지재단 산하 시설 및 종립학교 등지에 캠페인 현수막을 내걸고 '인간 4사 운동'의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 또한 장묘문화개선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 청정국토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며, (가칭)심인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를 초청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계몽강연회도 실시한다.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는 지난해부터 벌여오고 있는 '좋은 인(因)을 지읍시다' 캠페인 대상을 일반시민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총금강회는 스티커를 제작, 가정 및 자동차에 부착토록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에는 대구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제'를 개최, 청소년들에게 화해·봉사·보시 정신을 일깨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북한에 외투 2만벌

흑한지역 어린이 지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자강도 량강도 등 혹한지역 어린이 들을 위한 방한외투 2만벌을 2월 8일 조선불교도연맹에 위탁 전달한다.

북한에 전달되는 총 3억원 상당의 방한외투 2만벌은 천태종 진각종 등 25개 종단의 모금액 1억8천여만원과 1억2천여만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됐다.

종단협의회 조용준 기획과장은 "이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봄철에는 인민학교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종단협은 월동물품 선적식을 8일 오후 2시 인천항에서 갖는다. 김원우 기자

'화엄경 현토과목' 강원 대교과 교재채택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위원장 무관)는 1월29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16차 교재편찬위원회를 열고 무비스님(교육원장)의 〈화엄경 현토과목〉(전4권)을 강원 대교과 화엄경 교재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또 원명스님(서울 홍원사 주지)의 〈승가의범〉은 기초교육교재로 사용키로 했다.

무비스님의 〈화엄경 현토과목〉은 우리말 토와 띄어쓰기 등이 돼 있어,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봉은사판 화엄경소초〉의 이두토와 문장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명스님의 〈승가의범〉은 10년간 행자교육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주 및 해설을 달아 예경의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우 기자

포교사단 정기총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월 2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전국 6개 지역 사단과 LA포교사단에서 179명의 포교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의 입재식에서는 제2대 포교사단 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7억3천백만원의 올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포교사의 역량 강화와 포교회관 건립 불사, 각 분야에서의 활발한 포교활동 전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정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올 40대 사업과제 선정

조계종, 불교역사기념관 최우선

조계종은 1월29일 2002년 40대 사업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조계종은 사업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1순위 10개, 2순위 10개, 3순위 20개를 선정하고 예산집행도 우선순위 순으로 집행키로 했다.

최우선 10대 사업과제로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월드컵문화사업 △불교문화체험사업 △통합종단 40주년 기념사업 △국립공원제도 개선 및 사찰환경 보존활동 △국가법령 개폐 추진 △달마넷 활성화 △고시 및 법계정착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 △신도기본교육 확대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또 우선사업과제는 △신도교육체계 및 교재개발 △종무관리시스템 구축 △교육이념 정립프로그램 개발 △승려 연수교육내용 개발 △교구본사 종무체계화 △종무행정강화 개설 △교계 인물·정보·단체 DB화 △온라인종무행정서비스 강화 등이다. 김원우 기자

선원 90곳, 정진대중 2101명

수좌회, 동안거 선사방함록 발간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는 1월 30일 〈동안거 선사방함록〉을 발간하고, 신사년 동안거에 결제 중인 전국 선원은 총 90개 선원, 정진대중은 총 210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 경진년 동안거 정진대중보다 8개 선원, 160명의 정진대중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동안거를 기하여 진주 두방사 남명선원과 고흥 금탑사 금탑선원, 대전 복전암 복전선원이 개원됐다.

선원수좌회는 동안거에 참가하는 결제대중이 매년 늘어나 5년전인 1996년도 동안거의 큰방대중 1244명보다 550여명이 증가했으며, 10년 전인 1991년 동안거의 큰방대중 1077명보다는 700여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김원우 기자

본사사령

박봉영
命 취재1부 기자
2002년 2월 1일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음반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중앙승가대학교 200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계 열	학 과	모집인원	
		일반전형	특별전형
인 문	불교학과	3	8
	역경학과	18	12
사 회	포교사회학과	14	7
	사회복지학과	10	0
합 계		45	27

※ 복수전공이 가능하며 타학과를 같이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선발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종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40% (400점)	20% (200점)	100% (1,000점)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김포학사)
◇ 교부기간 : 2002. 2. 8(금) ~ 2002. 2. 16(토) ◇ 접수기간 : 2002. 2. 8(금) ~ 2002. 2. 16(토)

※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중 토요일(9일,16일)은 오후 3시까지 원서 접수 ※ 우편으로 원서교부 및 접수 가능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출석및 성적기록 및 작성교직원 서명 또는 날인후 테이프 부착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4) 승적증명서 1부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종무원에서 발급
5) 주민등록 등본
6) 종무원장 추천서 (타 종단 승려에 한함)
7) 사진(가사수한 반명함판 3×4㎝) 5매제출(3매 원서부착, 2매 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형료 : 60,000원

◆ 전형일정 ◇ 예 비 소 집 : 2002. 2. 18(월) 09:00 ~ 09:40
◇ 필기(교리)고사 : 2002. 2. 18(월) 10:00 ~ 11:1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2. 2. 18(월) 13:0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031) 980-7777 (내선 7716)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교구 선거인단 축소 '쟁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공청회

개정측 **사전조정 · 거부권 원로회의 부여**

고수측 **부분보완 선거공영제 도입토록**

"종도 참여확대를 통한 대표성 민주성 보장이냐" 아니면 "선거인단을 줄여 선거 과열을 막느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새해 벽두 종단의 화두로 떠올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종하)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쟁점사안은 교구본사 선거인단 축소 여부.

정병조(동국대 윤리문화학과)교수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전형적인 대의제 선거인데 24교구에서 선출한 총 240명의 선거인단과 중앙 종회의원 81명이 선거인단이 되어 전체 321명에 이르고 있어 직접 선거에 준하는 방대한 인원이 참여한다"며 "240명에 이르는 교구본사 선거인단을 없애고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장, 교육원장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사전 조정이나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원로회의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교수는 "94년 종단개혁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가 종도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총무원장에 대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개선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은 과거 총무원장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묘한 선거제도이며, 표면상 교구별로 단합이 되었다 해도 소신 투표가 용인되는 제도인 만큼 총무원장 간선제는 운영하기에 따라서 불교공동체의 이상 구현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반론을 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 제 · 개정특위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총무원장선거제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321명에 이르는 선거인단 수를 108명으로 줄이자는 것.

줄이자는 주장은 선거인단이 321명에 이르다 보니 총무원장 선출 때마다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구별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묵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회의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각 교구별로 1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종회의원 81명, 본사 주지 24명, 포교원장 교육원장 호계원장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헌행선거제도를 고수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1994년 종단개혁의 대표적인 성과는 선거인단 수를 늘려 종도들의 뜻이 반영되게 한 것이었던 만큼 2번의 선거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94년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94년 이전처럼 종회의원등 소수에 의해 총무원장을 선출할 경우 종도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참정권을 막는 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종도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 만큼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놓아두고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대안이 뒤따랐다.

결국 현행제도 고수와 개정해야 한다는 양측의 주장은 어떻게 하면 교단의 이상인 '합의에 의한 종단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데 교감을 이뤘지만 더이상 뾰족한 정답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교구본사 선거인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한표를 얻기 위하여 손상좌 뻘 되는 선거권자에게 허리를 굽혀 승가위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과 비구니스님들의 선거권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번 공청회는 종단선거가 정당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변화 이전에 종도들이 스스로 승가화합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평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외국인 스님 자질향상 기대

기초선원 개설추진 배경

'교육 이수해야 구족계' 제도적장치 마련

외국인 스님들 환영…적극 참여가 과제

조계종 교육원이 '외국인 기초선원'을 개설해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삼겠다는 것은 외국인 스님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자질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지금까지 화계사, 연등국제불교회관 등 몇몇 개별 사찰에 의존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 스님들도 내국인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종단이 정한 일정교육을 이수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스님들을 배려하는 측면이 더 짙다. 현행 조계종법상 강원 등 종단기본교육기관을 나오지 않고는 구족계 수계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외국인 스님들로서는, '외국인 기초선원'이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만큼 구족계 수지 자격을 쉽게 얻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 외국인 스님이 강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36명의 외국인 스님 중 구족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외국인 스님들이 구족계 수지 자격을 얻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원이 의도하고 있는 또 한가지는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스님들을 조계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스님이 상당수에 달하고, 이들이 조계종에 들어올 경우 '해외포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 지원이나 초발심자경문, 서장 등의 전통교재 번역사업 등 외국인 스님들 위해 마련한 네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선원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한국불교와 한국어 대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외국인 스님들은 교육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잘 알려진 현각스님(영주 현정사 주지)은 "외국인 스님들끼리 모여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외국인 스님의 자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제로 남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스님들은 동국대에서 실시하는 1년 과정의 한국어 교육 강좌나 안거 후 시행하는 산철교육의 경우 많은 스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등의 배려와 함께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원도 외국인 기초선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정착이 참여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전통교재 번역사업에 외국인 스님들을 참여시키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냉전시기 평화통일 씨앗"

창립 10주년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평불협은 10년전, 한반도 냉전의 시기에 평화통일의 씨앗을 뿌린 '선구자적' 단체입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대북지원, 남북한 불교교류를 추진해왔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0년이라는 경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 10년에는 불자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남북 불교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겠습니다."

12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은해사 회주)은 불교운동의 이념정립과 대북지원을 통한 경험을 국민들과 공유, 통일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통일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선구적인 통일운동단체로서 평불협은 92년 2월 12일 창립 이래 여러차례의 정치 ·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97년 황해도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한 평불협은 98년 4월부터 매달 60톤의 밀가루를 지원, 하루 7천여 명분의 식량을 북한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설탕, 식용류 등 생필품도 지원해, 10년 동안의 북한지원 규모는 총 1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남북한 해빙무드를 타고 사상최대인 3억4천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법타 스님은 〈북한불교 답사기〉, 〈북한불교연구〉 등 북한불교를 알리는 책을 내었으며, 북한에서 잘못 쓰이는 불교용어를 바로잡는 한편 남북한 불교교류를 위해 '북한불교사진전'과 '북한미술품전', '통일서예전' 등을 꾸준히 개최해 왔다. 이외에도 통일운동가의 명예 회복 운동과 윤이상 음악제의 개최를 지원해 남북한의 문화교류에도 기여했다.

"불교계 처음으로 통일운동을 벌이다 보니, 교계나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94년 김영삼 정권에 의해 저를 비롯 스님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타 스님은 민족문제, 남북관계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아쉬워하며 다양한 민간단체가 성

밀가루 등 10년간 13억 대북 지원

북한불교 용어정리 · 알리기 앞장

'60개 북한사찰과 종단 결연' 계획

장해 통일과업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되기를 소망했다.

통일운동은 1회용 생색내기가 아니라 무주상 보시의 하나라고 강조한 법타 스님은 타종교에 비해 사부대중의 참여와 관심부족, 경제적 여건 미비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래서 스님은 종단과 통일단체와 연대해 통일교육기금과 교육자료를 마련하는 등 통일교육 불사와 북한불교 중흥지원 사업을 평불협의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남북한 문화의 공통분모인 불교가 통일의 공통분모가 되야 한다"는 법타 스님은 "남북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통일음악제를 3월 개최, 신계사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불교의 진흥을 위한 조불련 활동 지원과 60개 북한사찰과 종단의 결연사업도 병행하겠다"고 올 사업을 밝혔다.

평불협은 22일 오후 6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02)735-5558. 강유신 기자

해외전시기획(KOBA)
KOBA (Korean Organization of Buddhist Artists)는 현대불교신문사 산하 예술기획사로 해외 전시, 번역, 출판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고경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KOBA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중에 있으며 현재 6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포교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예술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조원희 실장 (전화 02-737-8881, E-mail: whcho@buddhapia.com)
Korean Organization of Buddhist Artists

해 인 사 승 가 대 학 입 방 공 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2.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3.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4.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5. 주민등록초본 2부
6. 호적등본 2부
7. 건강진단서 2부
8.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준 비 물

1. 사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2. 입학금
3.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전형방법

- 1차 입방 ◆서류제출일 불기 2546년 2월 9일(양력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서류심사 및 면접일 불기 2546년 2월 15일(양력 2002년 3월 28일) 목요일
  ◆입방일 불기 2546년 2월 16일(양력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 2차 입방 ◆제 22기 행자교육원 수료 후 1주일 內 예정

문 의 처

- 전 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6년 월 일

해 인 사 승 가 대 학 주지 수봉 세민 · 학장 정혜 지오

일주문



태고종 일본교구 신년법회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은 1월 30일 일본 나가노현 금강사에서 열린 '태고종 재일본교구 신년하례법회'에서 법문했다.



방송 통일대담 코너 출연

정련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 K-TV '통일대담코너'에 출연해 대담을 나눈다.



불교용품 자료수집 향일

지홍 조계사 주지는 일본 불교용품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1월 21일 일본으로 출국, 25일 귀국했다.



군포교 기여 표창패 받아

자용 서울 수국사 주지는 사회복지와 군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1월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부산 시조문학회장 피선

혜륜 부산 약봄사 주지는 1월 28일 열린 부산 시조문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무애재단 장학금 전달

서돈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은 2일 불교방송국 3층 공개홀에서 제8회 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공불련고문 추대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공무원불자연합회 신년법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됐다.



생불련 법회서 특강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은 1월 20일 제주 해성사에서 열린 생활불교연합 주최 법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현대불교문학상 수상

김성동 소설가는 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주최 제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영교도소 심사위원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올해부터 법무부 민영교도소 심사선정위원으로 위촉됐다.

굶주린 생명보호 불교봉사 시작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김애련 사무차장



1월 25일, 생태계 평화운동 2002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를 막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이하 불자연) 사무차장 김애련 씨(45)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불자연 사무국에서 만났다.

"겨울 혹한기 때는 다람쥐, 너구리, 토끼, 맷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먹이감이 부족해 굶주리다가 결국 죽기까지 합니다. 77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리산 뱀사골에서 먹이를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생명들부터 살리는 일이 불교자원봉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94년 9월 불교계 최초로 결성된 자원봉사단체 불자연에 김 사무차장이 둥지를 튼 것은 97년 1월. 고작 자원봉사라야 75년 여의도에 있었던 국제행사에 4박5일간 참가한 것이 전부였던 김 사무차장이 입버릇처럼 부처님 곁에서 일하고 싶어 하다가 방생선원 성덕 스님과 인연이 닿아, 지금까지 불자연 살림을 도맡고 있다.

"그동안 불자연은 자원봉사자 특화교육의 일환으로 94년부터 1년에 두 번씩 3개월 과정의 자원봉사시민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했지요. 각 시설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파견·배치하고, 결식아동을 위한 '희망의 민들레 도시락 보내기' 사업과 불교호스피스 봉사단인 '비하라' 등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시민대학과 봉사자 파견·배치 사업을 한층 강화하면서, 김 사무차장은 새해를 맞아 중점 사업으로 국내외 구호 및 결연사업과 환경운동 분야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래서 북한 탈북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인 '통일씨앗가족-시장보기프로그램'과 생태계 평화운동 사업의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청넝 우포늪 환경사랑 캠프', '국토 푸르게 가꾸기 사업'으로 은행나무를 심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불자연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후원모금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자원봉사자 교육과 배치사업 중심의 사업들은 다소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어 '몸보시'에만 치우친 경향을 지적한 김 사무차장은 "노력봉사 등의 자원봉사 활동 못지않게, 후원금과 물품을 좀더 세련된 방법으로 모금하는 후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와 선진화된 후원모금프로그램이 만나야 자원봉사 활동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4월 부산에 있을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아·태지역 대회'와 9월 'IAVA 세계자원봉사대회'에도 참가해 자원봉사의 전문적인 시야를 넓힐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탈북자 사회적응·국토가꾸기도 추진

여성경제인협 3대 회장 이영숙 씨



"'봉사·사회 환원' 참보시 실천"

"공약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이 불자로서 부처님전에 부끄럽없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길이 아닐까요?"

1월 29일 서울 힐튼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여성경제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영숙(68·법명 '근관') 부산 코모도호텔 대표는 나직하게 되묻는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불제자의 도리"라고 강조하는 이회장은 "내실있는 투명경영을 협회 운영에도 도입해 맑고 바른 기업인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내 능력이 닿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는 이회장의 사회환원과 봉사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과 불승종 부산신도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회장이 대표로 있는 부산 코모도호텔은 각종 불교계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인 동시에 이회장이 교계 주요행사 장소나 음식을 무상으로 보시하며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올곧게 실천하는 장이기도 하다.

상을 내지 않는 보시로 회자되곤 하는 이영숙 회장은 85년 코모도호텔 대표이사로 취임,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을 거쳐 여경협 부산, 울산지회 고문, 부산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불교의 가장 으뜸 덕목이 화합인 만큼 여경협 모든 회원들의 뜻을 폭넓게 수렴,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는 이회장은 "봉사하고 회향하는 것으로 참된 보시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천미희기자

전통찻집 예다원 운영 이유순 보살



찻집을 불교교리 강의실로

"절에 가보면 신도를 접하는 모양이 가지각색입니다. 처음 입문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사찰예절과 기초교리를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님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불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도 높아 장소제공이 즐겁기만 합니다"

경북 봉화읍에서 '예다원'이라는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순보살(49)은 수요일 저녁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 예다원이 축서사 불교교양대 강의실로 변하기 때문이다. 봉화읍 중심에 있는 찻집을 매주 불자들을 위한 교양대 강의실로 무상 제공하고 있는 이 보살은 전공을 살려 예절과 다도 강의도 직접 하고 있다.

축서사가 마을에서 멀어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 보살의 이같은 장소 제공으로 축서사 불교교양대는 지방에서는 드물게 많은 숫자인 50여명의 불자들을 공부에 몰두하게 하고 있다.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불법을 제대로 아는 불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이유순 보살은 매월 축서사에서 열리는 법회와 철야정진에도 빠지지 않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예절'을 공부하고 있는 '늘 공부하는 불자'이다. 10년전부터 전통찻집을 운영해 오면서 봉화차인회도 만들어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전파하고 있으며 거사들의 모임인 봉화불교법우회에도 모임 장소를 제공해 예다원은 봉화 불자들 누구나 '내집'처럼 친근하고 편안한 장소가 됐다. 예다원 (054)673-8011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봉선사 제23기 교양대학 졸업식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는 1월 29일 청풍루에서 제23기 교양대학 졸업식 및 수계식을 가졌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주지 일면 스님, 졸업생 64명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일면스님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신행 생활이 꼭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아동 친구되기 캠프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1월 25일 장애가정 자녀들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열린마음으로 친구되기' 일일캠프를 대구 우방타워랜드에서 열었다.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지현스님은 "부모의 장애로 가족단위 여행이나 나들이가 어렵다"며 "이번 행사로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 친밀해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대광불교대학 164명 수료식

대광불교대학(학장 심산)은 1월 30일 통도사포교원 법당에서 제1기 정규과정 통신반과 제6기 신행학교 수료식을 봉행했다. 164명의 졸업생들과 가족 등 4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수료식에서 심산 스님은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니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부처님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신년하례법회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1월 28일 서울시 송현클럽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자비의 전화 원장 정덕 스님을 비롯해 여성개발원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여성불자들이 앞장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항상 깨어있고 공부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訃 告

大韓佛教法印宗 宗正 碧潭(金源植)大宗師께서 숙환으로 佛紀 2546年(양) 1월30일 오전 7시30분
법인종 총본산 개운사에서 入寂 玆以訃告

● 永訣日時 : 佛紀 2546年 2月 1日(陰12月20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법인종 총본산 개운사 ● 茶毘場 : 부산시립 영락공원

大韓佛教 法印宗 碧潭大宗師 門徒葬 葬儀 委員會

○ 證　　明 : 하담, 학암, 지산
○ 葬儀委員長 : 만오
○ 副 委 員 長 : 무성, 노암
○ 護　　喪 : 설봉
○ 葬儀 委員 : 운경, 청암, 정혜, 호산, 호암, 보현, 지경, 화성, 대명, 운휴 운강, 사명, 법월, 법인, 월산, 법일, 일건, 법우, 만응, 혜영 혜일, 현도, 법공, 만공, 도현, 청산, 호천, 운백, 운덕, 운오 운강, 운주, 법일, 법정, 법송, 도원, 무공 일본국 오사카 법인종 용화사, 만오, 성오, 요시다세이호 요시무라, 권혁진, 김광식, 윤용홍 개운사 신도회, 미륵대불회 회장 장영선, 부회장 조상자
○ 葬儀 委員 : 총무 김명숙, 관음회 회장 김삼연, 부회장 이옥선, 총무 조현자 지장회 회장 조현자, 전관음회장 허복연, 전미륵회장 하분진 이정순, 임남조, 김필숙, 안정임, 권향순, 하낭자, 박영자, 김옥자, 정순애
○ 執行 委員長 : 하담
○ 都　　監 : 법공, 호산
○ 知　　賓 : 청산, 대명
○ 侍　　者 : 법 송 외 문도 대중
○ 銀　上　左 : 법일, 법우, 법월, 법인
○ 法　上　左 : 설봉
○ 孫　上　左 : 운경, 운산, 운백, 운오, 운휴, 운강, 운주

大韓佛教 法印宗 碧潭大宗師 門徒葬 葬儀 委員會

人事말씀

碧潭 大宗師의 永訣式에 元老 大德스님과 宗團의 큰스님 그리고 四部大衆을 모신 가운데 엄숙히 奉行 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紙面으로 감사의 人事를 드립니다.

大韓佛教 法印宗 碧潭大宗師 門徒葬 葬儀 委員會 合掌
대한불교 법인종 총본산 개운사 신도회 일동 合掌

직장직능단체 공동사무실 마련

직장 직능연합단체들의 공동사무실이 마련됐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포교부장 상운스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직장인 불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0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 중앙신도회 건물 2층에서 직장직능불자 공동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올해 신도회원의 활동과 직장직능 단체의 창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자 직장인들은 화쟁의 정신으로 국민화합을 이루고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사무실의 개소로 다양한 직장 직능 불자회를 하나로 묶어줄 공간이 생김에 따라, 단체간 연대사업, 지방조직 결성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직장 직능단체 창립을 추진할 불교신자들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향후 직장 직능단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불련 서울 경인지역 신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1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울 경인지역 합동신년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손학래 철도청장, 김중양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공불련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보, 손승태 감사원 제1사무차장 등 6명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노옥석 회장은 "올바른 불자가 되면 공무원 본래의 도리를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며 "공무원 불자 모임의 전국적 조직건설이 순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가 끝난후 공불련은 회원들에게 〈불교입문〉 150권을 나눠주었다.



광양시청불자회 1월13일 창립

전남 광양시청에 공무원불자회가 창립됐다.

광양시청불자회(회장 정정모)는 1월 13일 광양 보광사에서 보광사 주지 현관스님을 비롯 32명의 회원과 회원가족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현봉스님(송광사 주지)은 "도선스님 등 역대 큰 스님들이 수행했던 역사적인 지역에 불자회가 창립돼 기쁘다"며 "불법에 따라 항상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모범적인 불자 공무원상을 보여주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청불자회 창립법회에는 전남도청불자회 박재순회장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 시도불자회간 화합을 다졌다.

"한계 극복하자"…산사서 1박2일

창원 지원정비공업사 전직원 동계수련



◇창원 지원정비공업사 전직원 44명이 종교를 초월하여 1월26~27일 밀양 표충사 동계수련대회에 참가하여 발우공양을 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희유(希有)'라는 말이 있다. 흔하지 않고 매우 드문 것, 또는 고맙고도 드물게 있는 것이란 뜻이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일컬어 '희유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1월 26~27일 밀양 표충사(주지 혜오) 설법전에서는 희유한 일이 일어났다.

창원 지원정비공업사(대표 최윤칠 52) 겨울수련회가 열린 이날, 설법전에 모인 지원정비공업사 44명 전 직원들은 일상과 종교를 떠나 산사에서의 1박 2일을 보냈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첫날 일정에는 발우공양, 스님의 법문, 새벽예불, 좌선 등 일부 직원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한사람도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죽비소리에 맞춰 발우공양을 하고,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으며 새벽 산사를 울리는 법고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다.

"발우공양은 스님들이 사용해 왔던 뷔페식 식사법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릇에 담고 물한모금,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최윤칠 사장은 발우공양에 앞서 발우공양의 진정한 의미가 '음식 욕심을 버리는 것'과 '음식의 귀함을 깨닫는 것'에 있다고 참가자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했다.

죽비에 맞춰 발우공양이 시작되자

천주교인도 발우공양 · 예불 · 좌선

91년 창업과 함께 시작…10년 역사

발우를 펴고 음식을 받는 직원들의 표정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발우를 헹군 물을 모아 찌꺼기가 나오면 그 물을 나누어 마셔야 된다"는 최사장의 설명을 들은 후라 밥이나 반찬의 양을 가늠하는 손길이 조심스럽다.

발우공양을 끝낸 장용수(43.창원동읍) 공장장은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사찰 수련회로 동료애를 느낄 수 있고 불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식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좋다"고 말했다. 첫 수련회부터 빠짐없이 참여한 장공장장은 천주교 신자다.

무교인 최윤칠 사장을 비롯, 대부분의 직원이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인이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은 "속세를 떠나 겨울 산사에서 보낸 1박 2일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자 자신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값진 기회"라는 최윤칠 사장의 뜻에 공감, 진행되는 일정마다 온 마음을 기울여 함께 했다.

종교를 초월한 지원정비공업사의 산사 수련회는 91년 창업과 함께 시작되어 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최윤칠 사장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독특한 경영 철학으로 시작된 수련회는 IMF로 어려웠던 3년을 제외하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직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작업 완성도와 친절도를 높이는 정신재무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전국 5위안에 드는 1급 정비공업사로 성장한 것도 모두 사찰 수련회와 극기훈련을 통해 길러진 '마음가짐' 덕분이라는 게 최사장의 설명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의 마음을 계발하자는 취지의 수련회는 새벽예불 후 산행을 시작, 아홉시간 동안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속을 헤치는 지옥같은 산행을 마친 후 회향됐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면을 울리던 법고소리를 기억하며 힘을 낸 창원지원정비공업사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한계를 산에 묻고 새롭게 태어나 일상으로 돌아왔다.

창원=천미희 기자

역 단위불자회 첫 창립

영등포지역 관리역 불자회

1월 30일 보륜사서 법회



처음으로 철도청 관리역 단위 불자회가 창립돼 철도인 포교활성화에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구로역과 인천역간 19개역 불자역무원들로 결성된 영등포지역관리역불자회(회장 이정권(사진), 이하 영등포불자회)는 1월30일 부천 보륜사 큰법당에서 인천 옴누리선원 종연스님과 회원 40여 명이 모여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이정권(송내역 소속 · 사진)회장은 "영등포지역역사단위불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전국연합체가 되도록 전 회원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자"며 "철도라는 일터에서 서로 만나게 된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인연을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창립준비모임을 가져온 영등포지역관리역불자회는 창립을 알리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꾸준히 회원을 확보, 1월 24일 창립법회 준비모임을 갖고 회칙 및 임원을 선출하는 등 불자회 창립에 박차를 가해왔다.



◇영등포지역관리역불자회는 1월30일 부천 보륜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영등포지역관리역불자회가 창립됨에 따라 그동안 승무사무소, 차량정비창, 기관사승무소 중심으로 운영돼온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의장 정동진, 이하 철불협)는 전국 400여 개 철도역을 관리하는 17개 관리역사 단위 지회 창립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철불협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철도인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단위 철도역 불자회 창립을 통한 조직확충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우기자

우리 모임에선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정기총회

대한중석초경 석불회는 5일 회사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석불회는 올해 '노숙자 무료급식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매진키로 했다.

한빛은 서울불자회 천수경공부

한빛은행 서울불자회는 7일 저녁 7시30분 본점 5층 강당에서 법현스님(종단협 사무국장)을 지도법사로 '우리말 천수경' 교리법회를 개최한다. 한빛은행은 올해 5명의 회원을 1개 팀으로 나눠 팀제운영을 통한 유대관계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또 부산불자회는 17일 오전 9시 30분 양산 대성암에서 신년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이에앞서 부산불자회는 3일 양산 애육원에서 정기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전력반야법회 육법공양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봉은사 대웅전에서 육법공양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는 본사뿐 아니라 재경지역 불자들이 참석하여 불자회 발전을 기원한다.

2002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 30년 전통2000여 동문의 교계 최초의 불교 교양 대학 -

◎ 강의시간 3월 4일 개강 주 3일 출석, 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범패전승자)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현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20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입학식 2002년 3월 3일 오전 10시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원불교대학에서 일할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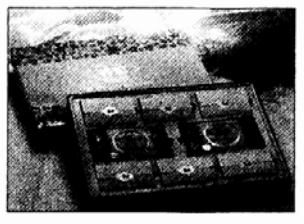
● 대 상 : 여사무원 0명
● 자 격 :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OA 사무가 가능한 자 [불교전공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 제출기한 : 2002년 2월 28일까지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Homepage : www.idaewon.or.kr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고개숙이고 있는 재웅이를 할머니 최씨가 다독거려 주고 있다.

아들없이 손자와 사는 할머니

가난 지긋…대물림 안됐으면

TV시청에만 열중하는 재웅(11세, 번동초등학교 4년)이.

최연순 할머니는 늘 말없이 TV앞에만 우두커니 앉아 있는 손자가 안쓰럽기만 하다. 제대로 입히고 먹이지 못하는 가난에 찌든 생활. 며칠 후일지, 몇 년 후일지 모르지만 혼자 남겨질 손자 녀석이 걱정이다. 최 할머니는 96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과 3년 전 재웅이를 남겨 두고 재혼한 며느리가 괜히 원망스럽다.

30만원으로 한달생활

현재 최 할머니는 남편과 재웅이와 함께 산다. 남편 한기준(70세) 할아버지는 지난해 9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하면 그나마 3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한 상태다.

남편 병 수발을 들던 최 할머니 또한 오랜 지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하다. 재작년 4월에는 폐혈증으로 8일 간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넘나들다 살아났다. 최근에는 루마치스 관절염이 생긴데다가 정신까지 쇠약해져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현재 이들 세 식구는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한기준 할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정부지원금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구청에서 9평짜리 지하 전세방이라고 얻어 주지 않았다면 생활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다. 매월 30만원으로 세 식구가 살다보니 '먹고산다' 기 보다는 '연명한다' 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최 할머니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가난' 이 재웅이에게 대물림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커갈수록 성격이 어두워지는 재웅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루 한 끼, 잘 먹어야 두 끼의 밥. 그래서 늘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는 손자 녀석을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배라도 부르면 잘 웃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재웅이 키워주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고 싶어…내가 죽으면 우리 재웅이 누가 밥이나 먹여 줄꼬."

혼자 남겨질 손자걱정

힘없는 최 할머니 말에 재웅이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만다. 그리고는 내복차림으로 밖으로 나가 버렸다. 어린 소견이지만 할머니의 말에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최 할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부처님, 우리 재웅이…"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주소:서울시 강북구 번2동 148-357 광신주택 지층1호 / 후원방법:전화 (02)945-4622, 계좌 농협 051-02-454915(예금주 한재웅)

김철우 기자

신행캘린더

2월 7일 (목)

■광주불교대학 '무량수경' 강의 =광주불교대학은 오전 10시 30분 본원 강의실에서 정의행 법사의 '무량수경' 강좌를 마련한다.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토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부처님에 대해 알아볼 기회. 이 강좌는 내달 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062)228-9098

■어울시민문화원 '전통문화강좌' =대금, 단소, 장구를 배워보자. 혼자서 배우기 어려운 전통악기들을 하나씩 배워서 옛사람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어울시민문화원은 수원 영화동과 인천시 부평동 본원에서 1달 동안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3만원.(031) 256-6938

2월 8일 (금)

■양정청소년수련관 '무료영화상영' =엘도라도, 아틀란티스, 쥬라기공원 등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영화는 모두 모였다.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본원 7층 소극장에서 청소년을 위해 무료영화를 상영한다.(051)868-0750

■맑고 향기롭게 '불우이웃돕기' =맑고 향기롭게는 매주 금 오전 9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밀반찬을 만든다. 배고픈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시행은 불자의 기본덕목.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02)741-4696

2월 9일 (토)

■우리는 선우 '법화경 공부 모임' =우리는 선우는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선우법당에서 '법화경 공부모임' 을 갖는다. 소설가 남지심 씨가 법화경의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불교초심자도 쉽게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02)2278-8672

2월 10일 (일)

■터사랑 '삼보사찰 성지순례' = 터사랑은 1박 2일 동안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 등을 돌아보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부처님 진신사리 참배 기회와 부처님의 가르침, 이를 전한 고승들의 자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안국역 4번 출구. 참가비는 어른 8만원, 어린이 7만 5천원.

2월 12일 (화)

■한마음선원 '새해맞이 촛불재'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새해를 맞아 자기 마음 속의 불을 밝혀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 보자.

한마음선원은 14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안양 본원과 각 지원에서 '새해맞이 촛불재' 행사를 개최한다. 안양본원 (031)470-3100



◇한마음선원의 지난해 촛불재 모습.

2월 14일 (목)

■봉은사 '신년대법회' =가족들이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고 신심을 다잡으며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서울 봉은사는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초청해 신년대법회를 봉행한다.(02)511-6070

"이런 불자가족 보기 힘들겁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천안 각원사 신도회 부회장 정영 거사



◇신도들과 회의를 하고있는 정영거사(사진 맨오른쪽). 정거사의 항상 웃는 얼굴 때문에 회의분위기는 늘 봄날씨.

충남 천안 각원사 신도들은 각원사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자랑한다. 그 하나는 오늘의 각원사를 있게 한 주지 법인스님과 부주지 대원스님이고, 또 하나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조성된 높이 15m의 청동대불이다. 그리고 신도회 부회장인 정영 거사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각원사 신도치고 정영(59) 거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름이 외자라서도 아니고,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찰이라는 직업 때문도 아니다.정거사는 지난해 천안경찰서 서부파출소장직에서 퇴임했다.

77년 각원사 건립 이래 지금까지 35년간을 각원사와 함께 해 온 고참신도들 중 한 명이라는 점도 그렇고, 사찰 대소사 뒤에는 반드시 정 거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 신도들은 정 거사를 '말없는 좌불' 이라고 부른다. 이 별칭은 각원사를 상징하는 청동대불(좌불)에서 따 온 것으로, 정 거사의 얼굴이 청동대불의 온화한 미소를 닮은 데다, 늘 말이 없기 때문이다.

1월28일 월요일 오후, 정 거사는 다음날부터 시작될 입춘 7일 기도 입재를 앞두고 몇몇 회원들을 종무소로 불러 모았다. 기도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사찰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미리 챙기기 위해서다. 가까운 집안의 행사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 거사는 바쁜 시간을 쪼갰다.

정 거사가 신도회 부회장을 맡아 이렇게 사찰의 대소사를 돌봐 온지 올해로 벌써 10년째. 정기적인 법회나, 사찰 행사는 물론, 김장 담그는 일에서부터 신도들 상담에 이르기까지 정 거사의 활동은 '일당백' 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다. 일 추진은 물론이고, 신도들 간에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이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소위 '카리스마'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 거사에게 그런 것은 없다. 그저 항상 웃는 얼굴에 조용한 말투.

온화한 미소·과묵… '말없는 좌불' 별명
부인등 온가족이 사찰 대소사 돌봐

"복잡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늘 마음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신도들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늘 마음을 말씀하시죠.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 거사가 신도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다름 아닌 정 거사 가족이 모두 신심 깊은 불자라는 점 때문이다. 아내 최병희(55) 보살은 정 거사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사찰 일을 거든다. 두 사람은 각원사 부부모임 신행단체인 '자비회' 회원이고, 최 보살은 여자 신도들로만 구성된 '보현회' 회원이기도 하다. '자비회' 는 사찰의 대소사를 챙기는 모임으로, 최 보살은 남편과 함께 사찰 일을 거들며, 가정법회 모임인 '보현회' 회원으로서 신행생활에도 열심이다.

이뿐만 아니다. 2남2녀 자식들 모두가 각원사 청년회 출신으로,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힘을 보탠다. 큰 아들(32)은 각원사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막내 아들(23)은 초파일 제등행진 때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장엄물을 만든다. 차녀(26)는 불교유치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12년째 각원사 종무를 맡아온 박흥열 부장은 "이런 가족은 보기 힘들 겁니다. 다 정 거사님의 신심이 깊기 때문이죠.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자랑이 끝이 없다.

정 거사는 지난해 30년 넘게 일해 오던 경찰생활을 마감했다. 밤낮이 없다는 경찰시절에도 철야기도, 참선정진, 삼천배 기도법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정 거사는 "이제부터야말로 마음껏 수행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다.

수행 외에 정 거사에게는 또 다른 원이 있다. 양로원과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다. 정 거사는 신도회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환원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은혜만 입고 살았으니, 이젠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안=한명우 기자

추천의 말

대원 스님 천안 각원사 부주지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경찰관인가' 싶을 정도로 순한 인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장한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찰 일은 물론이고 신도들 대소사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각원사가 이만큼 자리잡기까지는 정 거사의 공이 큽니다. 아무리 궂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주었으니까요. 게다가 법회 때마다 두 내외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자녀들과 며느리까지도 신심이 깊으니, 한마디로 정 거사 가족들은 각원사의 자랑이죠.

정 거사는 지난해 정년퇴임을 2년이나 남겨놓고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명예퇴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와 깊은 신심을 가진 신도가 우리 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뿌듯합니다.

200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기다립니다.

① 모집 내용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나. 범 패 과 : 00명
다. 불교미술과 : 00명

② 응시 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신입생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년 편입생
1) 정규대학 졸업자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③ 전형 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④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02년 1월 14일(月) - 2월 22일(金)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⑤ 전형일
※2002년 2월 24일(日) 10:00 - 17:00

⑥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생활기록부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⑦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⑧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대선법계를 품수 함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⑨ 기 타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됨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⑩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6)

동 방 불 교 대 학 교

건강한 정신 올바른 마음가짐 필수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요가 명상

上 스와미 베다 바라티가 말하는 요가
下. 요가 수행법들

식후 3~4시간 후 공복일때 큰효과
최대敵 음행, 氣없는 수행 무의미



◇한국요가협회 회원들의 수련모습.

요가는 입문자들에게 거창한 목표나 종교적인 교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가짐이 올바를 때 요가 수행은 더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고 인격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남을 돕고자하는 마음가짐과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 심신을 수양하겠다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음식조절은 천천히 씹어 먹을 것, 채식을 할 것, 식사시간(오후 3시후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가능한 금식)을 준수할 것 등이다. 수행은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하지 않고, 식후 3~4시간 후가 적합하지만 될 수 있는 한 공복일 때 한다. 신체를 정화하고 정신력을 길러 영성을 계발하기 위해 적절한 단식도 병행한다.

수면 조절은 적당한 운동과 더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되, 수면시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고 눕는 것보다 앉아서 자는 것이 기의 손실을 막아준다고 한다.

모든 요가 수행에 있어서 음행은 최대의 적이다. 기(氣)가 축적된 것이 정력이기 때문에 정력을 삿된 음행으로 낭비한다면 어떤 수행도 무익하다는 것. 정력은 모든 생명력의 원천으로서 골수(骨髓)와 뇌수(腦髓), 즉 뼈와 뇌의 형성및 발달,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정(精)을 낭비하면 쿤달리니(kundalini : 신체내의 우주적 에너지)가 깨어날 수 없으므로 해탈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요가에도 음행, 거짓말, 도둑질, 살생, 탐욕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다.

또한 말은 많이 하지 않는다. 수행 전후에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초보자의 경우 생리중이거나 임신중에는 하지 않는다.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요가수행 방법

■ 체위법(體位法)

요가는 크게 신체의 교정과 호흡, 명상(瞑想)수련으로 대별되는데, 체위(體位) 및 호흡 수련은 명상을 위한 기초수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요가의 체위는 아사나(asana)라고 한다. 아사나는 '앉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ās'에서 나온 말이다.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과 명상을 뒷받침해 주고 올바른 자세가 되게끔 신체를 교정해 주는 것이 체위다. 명상이나 삼매의 과정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체위를 충분하게 연마해야 그 에너지를 잘 수용하고 병이 생기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요가 신인 시바신(Siva)은 약 9천개의 체위를 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는 15개 정도의 체위가 좋고,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몇가지만을 집중적으로 행해도 좋다.

■ 좌법(坐法)

요가를 통한 호흡과 깊은 명상, 나아가 삼매를 체험코자 하는 사람은 바른 좌법을 취하지 않으면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좌법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달인좌, 연화좌, 반가부좌이다. 좌법을 행할 때에는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당겨야 한다. 동시에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붙여야 한다. 혀가 안정되면 심장이 안정되어 명상의 깊이가 더해진다. 또한 혀밑에 있는 침샘에서 많은 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침 속에는 소화액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이 들어있다.

■ 호흡법

요가에서는 호흡을 생명처럼 중요시한다.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기를 받아들이고, 우주의 힘과 요가행자의 정신을 연결할 수 있어서다. 초보자의 경우 호흡을 제어한다는 것은 지루한 일이지만, 꾸준히 행하다 보면 기를 느끼게 된다. 호흡법은 삼매로 들어가기 위한 감관의 기능을 제어하고 생명의 근원인 기를 정화하여, 그 힘으로 요가의 궁극목적을 성취하게 해준다.

△쿰바카(kumbhaka) 호흡=가장 기본적인 호흡법으로서, 호흡을 들이마신 후 몇초간 참고 난 뒤에 다시 내뱉기 때문에 지식(止息) 호흡이라고도 한다. 먼저 가장 편한 좌법을 택한 후 턱을 가슴으로 당기고 배를 내밀면서 숨을 들이 마신다. 숨을 회음부까지 들이마시는 기분으로 깊이 마시고, 숨이 온몸에 가득차면 멈춘다. 숨을 멈춘 다음 배를 당기면서 호흡을 길게 내뿜는다. 이 때 입-지-출 호흡의 비율은 1대 4대 2로 하며, 숨을 최대로 마시지 말고 최대로 멈추지 않으며 최대로 내쉬지 않아야 한다.

△사이타 쿰바카(sahita-kumbhaka) 호흡=인체 내에는 기의 통로인 이다(ida)와 핑갈라(pingala)가 있는데 이다는 여성적인 원리로 차가우며, 핑갈라는 남성적인 원리로 뜨거운 성질이 있다. 이 두가지 기의 통로를 정화해 주고 균형을 되찾아주는 호흡법이다. 코의 어느 한쪽을 손으로 막은 채 다른 쪽만으로 호흡하고 또 그것을 다른 쪽으로 교차해가는 호흡이기 때문에, 교차(交叉)호흡이라고 한다. 익숙해질 경우 10초동안 마시고, 40초동안 멈춘다음 20초 동안 내쉰다.

△브하스트리카(bhastrika-kumbhaka) 호흡=이 호흡법은 많은 산소가 급격하게 들어가고 나감으로써 뇌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정뇌(淨腦)호흡이라고도 한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복식호흡의 속도는 지식호흡에 어느정도 익숙해진 초보자일 경우 2초에 1회, 숙련자는 1초에 1회 정도 한다. 이 호흡을 5분 정도 계속한다. 40번 정도 급격한 호흡을 한 후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서 참는다. 이런 방법으로 4~5회 반복한다.

■ 명상법

명상은 외부 대상으로 향한 마음을 내면의 한 점에 고정시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상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여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마저 떨친 상태여야 한다. 초보자의 경우 몇 분만 지나면 곧 갖은 잡념에 휘말리게 되지만 높은 경지에 들어가면 마침내 집중하고 있는 대상과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마저 사라진 무아(無我)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미간 응시= '미간 응시'는 잠자고 있는 쿤달리니를 강렬하게 각성시킨다. 흔히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안(靈眼), 천안(天眼), '시바의 눈'이라 불리는 지혜의 눈으로 알려져 있다. 편안한 좌법으로 눈을 감고, 두 눈썹 가운데서 약 5cm 위에 해당하는 곳에 의식을 집중한다.

△'아미 응시'=코끝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 미간 응시와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눈의 근육을 강화한다. 점차 아미를 응시하는 시간을 늘려나가 나중에는 10여분 정도까지 하면 좋다.

△'만트라 암송'=옴(om), 옴마니반메훔 등의 진언을 소리를 내어 반복하는 것과 속삭이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방법이 있다. 초보자의 경우 소리를 내도 괜찮지만, 익숙해지면 숨결에 맞춰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다. 만트라를 염송할 때 손가락 마디를 세거나, 염주 등을 사용하여 하나씩 넘기면서 반복해도 좋다.

△'수식관(隨息觀)'=호흡이 들고 나가는데 의식을 집중해 나와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먼저 편안한 좌법을 택해 앉은 다음, 들고 나가는 숨에 의식을 자연스럽게 집중한다.

정태혁교수의 '요가와 열반'

요가는 자아완성, 불교는 중생구제의 길 열어



한국요가학회 회장이자 한국요가지도자협회 도정(道正)인 정태혁 동방불교대학 학장(80)은 "요가의 열반이 '자아 완성'에 그쳤다면, 불교는 자아 완성과 중생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요가 수행을 통해 인간 생명이 우주와 더불어 영원한 것이 되고, 인간 존재가 우주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체험을 범아일여(梵我一如)라고 한다. 특히 요가 수트라는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세계를 떠나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절대적인 가치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정학장은 "이같은 요가의 '독존(獨存)'이 자아완성에 그쳤다면, 불교의 열반은 존재의 실상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지혜와 자비라는 양면을 동시에 구현시키는 실천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학장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끝에 요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최고의 종교적 체험을 얻은 것이 열반"이라며, "이것은 지혜와 자비의 두 문이자, 열반의 '절대 부정'의 불이문(不二門)이며, 정토의 건립과 왕생"이라고 덧붙였다.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2월=수행의 달

- 나를 찾는 수행법
- 재가자 수행현장
- 매일 수행하는 불자들

나를 찾는 수행법

항상 겸손히 자기점검을 하게 하는 수행은 일시적인 고민 해결법이 아니다. 마음의 안정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공부하는 법을 정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부에 분명한 선지식들이 확연하다 할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불교의 수행법은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생활·문화등과 인드라망으로 연결돼 있다. 자신의 생사문제를 깨쳐 세상에 나아가 보살행에 나서도록 하는 수행방법은 참선 절 염불 주력 간경 보시 사경 등 다양하다.

참선·절·염불·간경 등 다양

절할땐 밝은 마음으로

◑화두참선=화두란 간단히 말해 '언어 이전의 소식'이란 뜻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잡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의문 중 한 가지를 택해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참구하면 나머지는 관심만 가져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는 원리이다.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은 "화두를 의심하는 기운은 심지어 깊은 잠 속에서도 성성(惺惺)하게 깨어 있는 화두 삼매가 충분히 성숙된 연후에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비로소 불성을 철견(徹見)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한다.

◑절=절 수행을 일심으로 하면 업을 녹일 수 있고, 많이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절은 밝은 마음과 밝은 표정을 갖고 시작해야 힘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리듬이 좋아진다. 반복되는 절 동작과 호흡이 조화를 이룰 때 심신의 균형은 물론 수행의 효과가 배가 된다.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려 할 때 숨을 들이쉬고, 머리를 바닥에 댈 때부터 다시 합장할 때까지 숨을 계속 내쉰다.

◑염불=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부르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마침내 열반의 도리를 얻게 된다. 대체로 하루에 몇 차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등의 명호를 염하는 염불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주력=재난을 없애고 복을 부른다는 진언 혹은 다라니를 항상 외우고 수행의 요체로 삼는것이다. 밀교의 중요한 수행법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서로 융합하는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으로 인(印)을 맺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생각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임을 관해야 한다.

◑간경=간경은 하나의 경전을 수행삼아 오랫동안 마음으로 읽는 수행법이다. 일반적인 간경방법은 빠르지도 않게 정성껏 소리를 내어 읽는다. 독경은 곧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이다.

◑대표적 참선도량=전국 주요 재가선방은 수선회(02-732-5960) 조계사(02-732-2183) 천축사(02-954-1474) 금모선원(051-746-2256) 혜원정사(051-746-2256) 원당암(055-932-7308) 대자암(041-857-5880) 한마음선원(031-470-3100) 미황사(061-533-3521) 남국선원(064-733-2278)등.

◑대표적 절 수행도량=도선사(02-993-3161) 구룡사(02-575-7766) 홍련암(033-672-2478) 보리암(055-862-6115) 향일암(061-644-4742) 봉정암(011-361-2828) 선본사(053-851-1869) 호암사(031-873-1386)등.

불교는 시대나 국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어 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근본 진리는 변함이 없다. 수행법도 마찬가지다.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탐진치 삼독과 아상으로 형성된 망령된 자기를 버려 참된 자기를 깨치고 진리를 깨달아 생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다. 김원우 기자

2002학년도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제9회 졸업생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2월 1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학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유학생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2월 15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학
전화 : 02-511-2026~8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학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⑬화성유품 ⑦전생의 사연

이 '화성유품'을 산스크리트본에서는 '전생의 인연'이라고 제명(題名)을 달고 있다. 이 품에는 전반부에 〈법화경〉이 아득한 옛날부터 설해져 내려온 것임을 밝히고 후반부에는 화성의 비유(化城喩)가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득한 옛날 대통지승불께서는 원래 전륜성왕의 아들이었고 그에게는 열 여섯의 왕자가 있었다. 대통지승불께서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16왕자들은 그 권속들과 함께 즉시 보리도량에 계시는 부처님께 이르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여러 천신과 백성을 위해 법을 설하소서"하고 부처님께 간청했다. 또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 시방의 5백만억이나 되는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큰 광명이 널리 세계를 비추었다. 이 상서로움에 놀란 브라흐만 왕들이 앞을 다투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날아왔다.

가장 먼저 동방의 브라흐만 왕들이 그 궁전과 함께 서방으로 날아와 그 까닭을 찾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대통지승불께서 보리도량에 앉아 계시고 여러 천신을 비롯해 많은 대중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16왕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본 브라흐만들은 즉시 부처님께 예배하고 자기들의 궁전을 바치며 부처님의 설법을 간청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이를 허락했다.

다음에는 동남방의 브라흐만이 날아와 부처님께 궁전을 바치며 설법을 청하고, 또 다음에는 남방의 브라흐만의 왕들이, 서남방과 하방의 브라흐만 왕들도 똑같았다. 최후에는 상방의 시킨(尸棄)이라는 브라흐만 왕을 우두머리로 해 똑같이 궁전을 바치며 "바라옵나니 이 공덕으로 널리 일체에 미치게 하여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간청했던 것이다. 이 게송은 너무 유명해 불교의 모든 종파들이 회향문에 널리 사용하고 있고 장엄염불의 마지막에 사용되고 있다.

시방의 브라흐만의 권청과 16왕자의 간청을 받고 대통지승불께서는 3전12행상(三轉十二行相)에 의해 네 가지의 진리(四諦)를 설하고, 널리 12인연의 법을 설했다. 이 설법으로 많은 중생은 해탈을 얻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설법에도 역시 많은 중생이 해탈해 무수한 성문 대중이 생겼다.

16왕자는 모두 출가해 사미가 되어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의 법을 설하소서"라고 청했다. 이 간청에 의해 2만 겁이 지난 후에 대통지승불께서는 〈법화경〉을 설하신 것이다. 대통지승불께서는 〈법화경〉을 8만겁 동안 설하시고 나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 8만 4천겁 동안 선정에 드셨다. 그러자 16인의 보살 사미들은 법좌에 올라 많은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해 각각 6백만 나유타 항하사 수만큼의 중생을 교화해 이를 '16왕자의 법화복강(法華覆講)'이라 한다. 대통지승불께서 멸도하신 후에도 계속 설해져 많은 중생을 교화했는데 그 하나 하나의 보살 사미가 교화한 많은 중생들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 태어나 그 보살 사미에게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보살 사미들은 모두 성불해 지금 8방(八方)에 두 분씩 계시고 증앙에 부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곧 현재의 나 석가모니불이다"며 전생부터 계속 〈법화경〉은 설해지고 있고 현재의 여러 분도 그때의 사부대중이었다. 이렇게 부처님과 우리들 전생의 사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무설정사 조실

16왕자에 12인연법 설법

중생들 세세생생 '가르침' 믿고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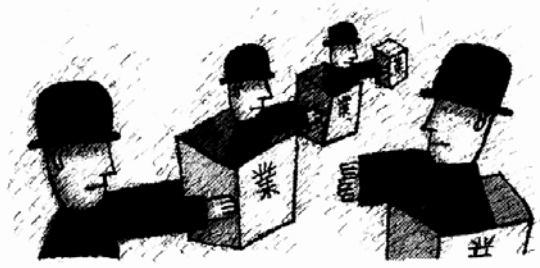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우주서도 상의적 수수관계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⑮

주고 받음과 업

주고받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자아가 실현된다. 이런 과정의 산물이 업(業)이다. 이것은 다시 주고받음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업으로 쌓여 간다. 육체적(물질적), 정신적(개념적) 새로움이 업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다음에 나타날 업에 정보를 축적시키면서 진화된다. 이러한 정보는 유전적 씨앗이나 물리적 구성 요소의 점진적 변화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업의 성질은 항상 동일하지 않고 생성이나 지속, 소멸,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한다.

업은 현재의 그 과보가 나타나는 업, 다음 생에 과보가 나타나는 업, 삼세 후에 과보가 나타나는 업, 정해지지 않은 어떤 때 과보가 나타나는 업 등 4종류로 나눈다. 연속적인 수수과정을 인연의 고리로 볼 때 업은 바로 이 인연의 고리(법계 연기)를 따라가며 과거가 현재에, 현재가 미래에 업의 정보를 전달하며 축적되어 간다. 자연의 만유는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해서 서로 업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석존의 말처럼 '모두가 업일 뿐 작자(作者)는 없다'는 것은 업을 주도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주재자는 존재하지 않고, 주체와 객체는 차별 없는 동등성과 통일성을 이루며 평등성과 보편성을 유지해 간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그렇다면 수수관계에서 얻어지는 업도 궁극에는 자연의 섭리를 따름이 마땅하다. 그런데 특히 인간은 무차별적인 집착심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부응하는 업보다는 오히려 섭리에 역행하는 업을 지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면서 자연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통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별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업이 이뤄지고 있는가?

별이 탄생하면서 내는 강한 빛은 그 주변의 가스를 데워 빛이 나오도록 해 별 주위의 넓은 영역이 찬란하게 빛을 내는 발광 성운을 만든다. 대표적인 예가 겨울철에 잘 보이는 오리온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 성운이다. 질량이 아주 큰 별에서는 강한 빛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물질이 방출되고, 이것이 주위에 있는 성간 물질에 큰 압력을 미쳐 이들을 더욱 밀집하도록 함으로써 별의 탄생을 촉진시킨다. 별이 죽어 가면서 방출하는 많은 물질은 다음 세대의 별이 탄생되는 재료로 쓰인다. 밝은 성운과 연쇄적인 별의 탄생은 우주를 살아있게 하는 등불의 업을 짓고, 별의 세대 순환은 우주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업을 짓는다.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홀로 일생을 살아가고, 이 과정에서 짓는 별들의 업은 오직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 자신을 태워버림으로써 새로운 우주적 활동과 생성을 잇게 할 뿐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기적 욕심이나 집착심이 없다. 그냥 살아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은 조상의 별들이 그러했듯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나타날 뿐이다. 결국 별은 일단 태어나면 죽은 후에까지도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업을 지으면서 우주의 밑거름 역할을 한다.

수 천억 개별로 이루어진 은하는 별들의 생성, 소멸과 운동에 따라 업을 짓지만 두 은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잡아먹어 두 은하의 중심핵이 합쳐지기도 하고 또 큰 은하의 중심부를 큰 속도로 통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은하의 가장자리 별들은 바깥으로 흩어져 둥근 원형을 이루고 또 성간 물질이 모여 별의 생성이 촉진되기도 한다. 두 은하가 비스듬히 스치면서 충돌하는 경우는 두 은하에서 끌려나온 별과 성간 물질이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듯이 늘어서거나 또는 긴 꼬리 모양의 분포를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넓은 우주에서 서로 만날 것 같지 않은 은하들도 조우하고 충돌하면서 인간들처럼 상의적 수수관계를 이어간다. 그러나 은하들이 짓는 업은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은하의 운동 경로나 속력을 바꾸고 또 은하 내 별들의 운동이나 성간 물질의 분포를 변화시켜 가면서 별의 세대 순환을 가속시키고 은하핵을 활동적으로 만들면서 조용한 은하를 활동 은하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은하의 충돌을 통해 우주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를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은하가 짓는 업이란 안정과 평형의 달성 또는 불안정을 통한 활동성의 유발이다. 이것의 과보는 항상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고, 이에 따른 새로운 자연의 섭리를 이룩해 가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자연의 섭리를 창출해낼 수는 없다. 결국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좋은 업을 쌓는 참된 길일 것이다.

별들끼리 서로 조우 · 충돌
은하계 생성 · 소멸운동 반복
새로운 자연섭리 창출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불신 씻겠다' 각오 절실

공직자의 자세

각종 비리 의혹사건이 난무한 가운데 국정을 쇄신한다는 취지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관(급) 9명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을 교체하는 등 15명의 개각을 단행했다. 매번 새로운 정치인들이 기용될 때마다 공무원의 윤리강령과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들이 수없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부패와 실정의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온 국민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루 속히 어려움을 타개하고, 불신을 씻을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기용된 공직자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나라의 중신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고 수많은 경전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강조하셨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러한 마음으론 벼슬에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불반니항경>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백성의 안락과 슬픔을 알고, 공과 죄를 확연히 가려 상과 벌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 현명한 치자는 백성이 곤궁할 때 나누어 주고, 넉넉할 때 거둬들이며,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부과할때는 잘 판단하여 될 수 있는 한 가볍게 한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잘 화합한다. <대아미타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십우도 Ten Oxherding Pictures, 팔상도 Eight Scenes of Buddha's life, 卍자 문양 Swastika, 풍경 Wind bell

On the outer walls of the Main Hall, along with the paintings depicting the life of Buddha and there are often the Ten Oxherding Pictures. And on the outside ends of the Main Hall, up towards the roof, you will see a swastika. The edge of the eaves, a wind bell with a fish clapper is dangling.

대웅전 외벽에는 주로 부처님 일생을 묘사한 그림이나 십우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건물의 바깥의 지붕 위쪽에서는 卍자 문양을 볼 수 있다. 처마 끝에는 물고기 모양 추를 가진 풍경이 매달려 있다.

The progressive whitening of the ox symbols the gradual awakening of the oxherd to his true nature.(수행정도에 따라) 점점 하얘지는 소를 좇는 십우도는, 깨달음을 향한 목동의 수행 과정을 상징한다. 'Pal Sang Do' is a painting of the eight scenes of the life of the Buddha. It can be found in the Eight Pictures Hall.(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 중 중요한 8장면을 그린 것으로 팔상전에서 볼 수 있다). The swastika is a symbol of peace, harmony, and good luck.(卍자 문양은 평화, 조화, 행운을 상징한다).



'서장' 통한 선 공부 ㊽

탕승상에 대한 답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의 생사(生死)를 끊어 버리고 마음의 백백한 수풀을 베어 버리고 마음의 더럽고 탁함을 씻어 버리고 마음의 집착을 풀어 버린다.' 집착하는 곳에서 마음을 움직여 돌리되, 움직여 돌리는 바로 그 때에 또한 움직여 돌리는 도리(道理)도 없다면 저절로 하나 하나 위에서 밝아지고 사물 사물 위에서 드러나, 매일 인연에 응하는 곳이 깨끗하든 더럽든 좋든 싫든 순응하든 거슬리든 마치 진주구슬이 쟁반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억지로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이르면 꼭 집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나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남양 혜충국사가 말했습니다. '법(法)에 얻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들여우의 울음소리이다.' 이 일은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보면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스스로 보았다면 삿된 스승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화영화에 나오는 세상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보자. 이 밀가루는 잘 뭉쳐지기도 하고 다시 쉽게 가루로 돌아가기도 한다. 산도 바다도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나아가 생각이나 느낌 등 내면적인 것들까지도 모두 오직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 산, 바다, 나무, 식물, 동물, 사람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느낌 저런 감정 등을 제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 구별할 것이다.

그러나 밀가루 그 자체는 어떻게 될까? 밀가루로 만들어진 사물들은 제각각 다른 모양에 따라 제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야 구별이 가능하므로 모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지만, 밀가루 그 자체의 경우는 정해진 모양이 없으므로 모양을 가지고 구별하여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더구나 밀가루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류의 가루가 없기 때문에 특히 구별하여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밀가루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밀가루 인간은 밀가루에 관하여 의식(意識)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양을 갖춘 밀가루 반죽인 사물이나 의식들과는 달리 밀가루 그 자체는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의식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의식하여도 모두가 반죽이 되어 모양을 갖추어 버려서 본래 밀가루 그대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밀가루에 관한 의식 역시 이미 반죽이 되어 모양이 갖추어진 채 나타나는 것이다. 밀가루 세계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의식도 밀가루를 통하여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처럼 밀가루는 이 세계의 유일하며 불변하는 근원이면서도 그 자체는 도무지 파악될 길이 없다. 그런데 혹시 밀가루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모양과는 다른 불생불멸의 근원을 알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 밀가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그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밀가루에 관한 생각이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어떤 모양을 만들어 밀가루를 말한다는 것은 모두 가짜일 뿐이다.

이 밀가루 사람이 밀가루를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반죽된 모양에서 완전히 부서져서 밀가루로 돌아가는 것이 방법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미 사람이 없으므로 밀가루를 알거나 모르거나 하는 일도 없다. 반죽된 상태로 사람 노릇을 하면서 밀가루를 반죽된 가짜 모양이 아니라 모양 없는 가루 그 자체로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제는 반죽된 모양이다. 반죽된 모양에 속지 않을 지혜만 있다면, 눈 앞에 나타나는 하나 하나의 반죽이 사실은 전부 다만 밀가루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밀가루 인간은 눈 앞에 나타나는 지금 이대로의 세계가 그대로 밀가루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하여 믿게 될 때, 밀가루를 직접 아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근본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하였던 그것 조차도 바로 근본인 밀가루였던 것이다. 도(道)가 바로 그렇다.

http://www.mindfre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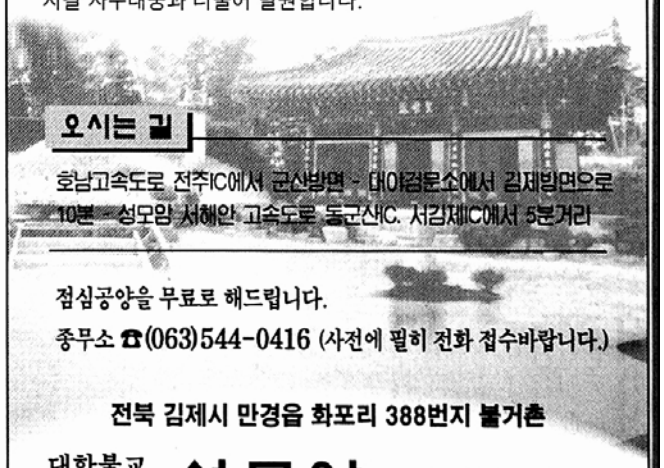
> "마음의 숲을 베어버리고
> 더럽고 탁함 씻어내고
> 집착의 끈을 풀어버린다"

정월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전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의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자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아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번지 불거촌

대한불교 조계종 **성모암** 대중일동

목어 난민들



잘사는 나라 호주가 요즘 편치 못하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흘러 들어온, 이른바 '난민들' 때문이다. 수용난민들은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사람다운 대우를 해 달라면서 단식농성에 자살위협까지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호주를 향한 비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베트남전쟁이후 '보트 피플'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세계적 난민이동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여건의 나라에서 삶이 비교적 잘 보장된 나라로 사람들이 무조건 흘러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현상의 하나다.

난민 문제가 어디 호주에만 있을 것인가. 구미선진국들은 물론, 한국 땅에서도 이런저런 난민문제가 적지 않다.

인구증가, 그리고 정보화가 가져올 미래세계를 아인슈타인은 '물이 염을 받아 수증기가 되고나면, 구성분자는 물과 다름없으나 그 사용방법은 물과 같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던가.

정치적인 부자유나 가난에 쉽게 체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이 발달된 정보 시스템에 힘입어 자신들의 남다른 고통을 알게 되고 분노하며, 그 비참함을 몰아낼 가능성의 나라로 흘러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근대까지 만해도 '물의 성질'이었던 인간 감정이 이제 수증기화 되었다고나 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그 관계를 푸는데 더 이상 근대적인 방법에 기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랑스의 지성인 자크 아탈리는 그의 '21세기 사전'에 '보디사트바(보살)'라는 항목을 두고 이렇게 설명한다.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형.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생을 돕기 위해 자신의 안락을 포기한 사람. 어딘가에 고통 받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결코 휴식할 수 없는 사람. (21세기에는) 각자가 관용과 박애의 정신으로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 21세기 인류가 온전히 살아남으려면 모두 보살이 되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김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인간배아연구 방치할 수 없다



김상득
전북대
윤리학 교수

인간 누구나 건강과 생명 연장의 꿈을 안고 있다. 의학과 생명과학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나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지 않는가? 지난해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기본법(안)'에 이어, 금년 또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이 발표됨에 따라 종교계와 생명윤리학자들이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 역시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수단으로 연구내용을 이 법안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지부 시안은 배아연구를 넘어서 이를 통한 장기 생산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생명공학 회사인 ACT 연구팀은 암소의 귀에서 채취한 세포 핵을 이용해 똥핍복제에 성공하였다. 복지부의 생명윤리법은 곧 잉여배아를 이용한 인간 장기 복제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생명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어차피 폐기될 배아라면 불임연구나 장기 생산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과연 이 논리가 타당한가? 단적인 예로 시체가 썩어 없어진다고 무조건 실험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가? 그렇지 않다. 시체 해부조차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잉여배아에 대해서도 그 정자와 난자 제공자로부터 연구 목적 및 실험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잉여배아 연구는 결국 생명의 근원인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생산 · 보관 투명성 확보

난 · 정자 제공자 동의 등

안전장치 먼저 마련돼야

착취가 될 것이다.

배아가 인간이냐 아니면 세포덩어리인가?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종교의 물음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직 배아만이 여성 자궁에 착상되어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아는 세포덩어리처럼 함부로 취급될 수 없고, 오직 인간 존엄성의 한계 내에서만 연구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자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배아 생산 및 보관에 대한 투명성 확보요, 다른 하나는 생산되는 배아의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일이다. 이 두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임신을 목적으로만 배아 생산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시안은 하나의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임시술 의사들이 임신이란 미명 아래 '무한대의 배아'를 생산한 다음, 수정 후 남은 배아를 연구용으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불임치료 현실이 이 두 조건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직 보건 당국은 현재 불임치료 센터에서 배아를 어떻게 생산하며, 보관중인 배아의 수가 어느 정도이고, 수정 후 남은 잉여배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수정란의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도 역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배아의 생명은 오직 연구자의 자비심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윤리, 인공수정 전반에 대한 법 제도 및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잉여배아 연구는 생명체를 수단화하고, 나아가 생명체를 멋대로 파괴함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낳고 인간 존엄성 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5계 파계 이유



붓다뉴스가 실시한 설문에 참가한 불자 84명 가운데 52명(61%)이 생활습관 때문에 5계를 지키지 못한다고 고백했고, 16명(19%)은 주변의 유혹을 12명(14%)은

"생활습관때문에"61%

직업을 이유로 꼽았다. 5계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율목은 불음주(29명 34%)와 불망어(28명 33%)이고, 불투도가 지키기 어렵다고 답한 불자는 2명(2%)이었다. 역시 삶의 패턴이 지계의 원력을 가로막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지계 노력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8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준 경우는 26명(30%)이었고 60점 이상이 31명(36%) 60점미만이 26명(30%)이었다. 임연태 기자

열린마당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정부가 '북한산 관통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려 하자 불교계를 비롯 환경단체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공사를 반대해야 하는 까닭과 추진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연대' 공동대표 일면스님의 의견과 건설교통부 송도근 광역교통관리국장의 말을 들어본다.



송도근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관리국장

찬성

환경영향평가 최적노선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외곽지역을 순환하는 총 연장 124㎞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그 일부 구간인 일산-판교-퇴계원을 연결하는 92㎞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일산-퇴계원간 32㎞가 건설되지 않아 순환고속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지역(도봉 · 노원 · 의정부지역, 230만명이 거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작년에 착공되어 2006년 5월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고속도로 노선 중 국립공원지역인 사패산 통과구간에 대하여 대안으로 의정부 북측외곽을 통과하는 우회노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노선은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량을 처리 할 수 없어 순환고속도로로서의 주요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도로연장 또한 10㎞나 늘어나게 되고 약 7천억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 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의 이전문제 등 장애요소 때문에 고속도로의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고속도로노선은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조사 · 설계 한 것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선정한 최적의 노선이다.

불른 여건이 허용된다면 국립공원구역을 피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초래된 동북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서는 국립공원구역을 통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이 반영된 것이다. 국립공원내에 도로의 통과가 불가피 할 경우 선진외국에서도 터널을 건설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북한산, 소백산, 계룡산에도 터널이 건설되어 있다.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원구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원의 최북측 사패산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매연 등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터널 안에서 분해 처리하는 고가의 친환경 설비를 설치할 것이다. 또한 약 1천억원을 투입하여 터널양측에 각 300m 정도의 인공터널을 건설하여 식생 및 경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학계전문가 및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환경관리반을 구성하여 터널건설로 인한 환경관리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반대

인간과 자연 공멸의 길



일면스님
북한산 관통도로저지
시민종교연대 공동대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은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자연과 인간 모두가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일이다.

북한산 도봉산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자연보전지역이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여 오염에 찌든 도시 하늘을 정화시켜주는 정화기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런 곳에 관통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곳에 왕복 8차선의 고속화 도로가 건설된다면 하루 14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할 것이다. 이는 필연코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며 생명을 지켜주는 거룩한 숲이 오염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매연공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시민환경 종교계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려는 노선보다는 의정부 외곽으로 대안노선을 채택하여 도로를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산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된다. 한국 특산의 산개나리, 자생란을 비롯한 17종의 법적보호동물과 14종의 법적 보호식물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둘째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30여 곳이 넘는 사찰의 수행환경과 불교문화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셋째 서울에서 공기사정이 가장 안 좋은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북부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다. 넷째 계획된 노선을 따라 도로가 건설되면 의정부 일대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다섯째 수 Km에 달하는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미 터널의 입구지역은 90년대 말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섯째는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문제점이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이익보장을 위해 환경논쟁이 있는 사업을 강행해 기업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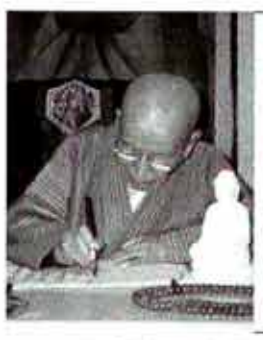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연대는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발달을 감안해 의정부 외곽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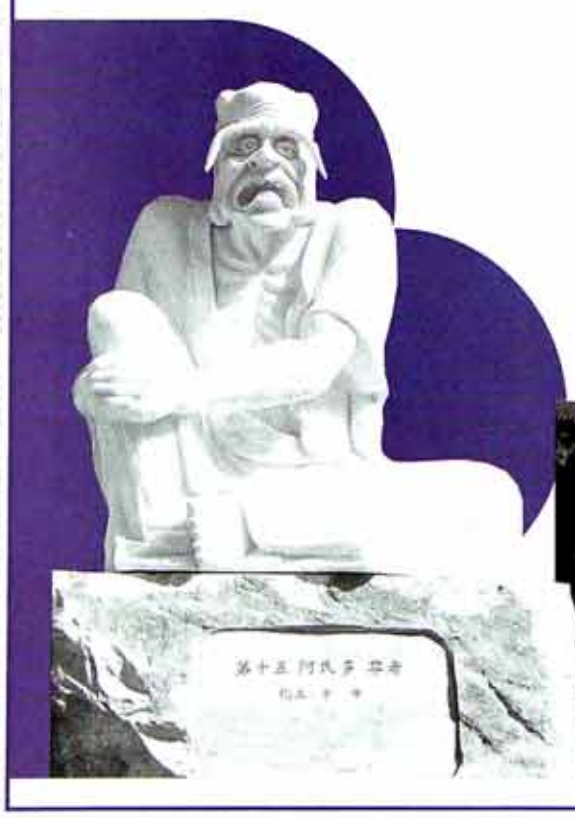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63-6 세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中 국보급 불경 6천권 복원

전문가 15명 동원 작년부터 … 마무리 한창

대개원사 도원 스님

1000여년의 풍상과 관리 부재로 인해 훼손 위기에 직면했던 중국의 진귀한 불경 6천여 권이 한 사찰 스님의 노력에 의해 제 모습을 찾게됐다.

중국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 대개원사(大開元寺) 주지 도원(道元)스님은 복건성 정부에 협조를 요청, 장경의 표구와 표지를 견고하게 하는 등 복원에 나서 불교문화를 고스란히 전래하는 무량공덕의 큰 일을 해냈다고 중국 아호신문(雅虎新聞)이 1월 24일 보도했다.

천주 대개원사는 12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년고찰로서 당나라 초에 건립되었다.

특히 개원사 장경(藏經)은 진귀한 성보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원사 장경은 희소성은 물론 소장 장서도 매우 많아, 〈송적사장경(宋績砂藏經)〉 〈일본홍교(弘敎)장경〉 전질 등 근대에 인쇄된 것 외에도 북송 각본(刻本), 송각(宋刻) 원인(元印), 명판(明版), 청판본(淸版本) 등 2만여 책(冊)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불교문화재를 훼손에서 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도원스님은 자금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수차례 조사 절차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국가 공문서로 보관하기로 결정, 복건성 문서국에 지원을 요청해 복원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서국은 15명의 전문가가 2001년 5월부터 개원사 장경각에 상주하면서 국가 공문서 1급 표준에 맞추기 위해 경서의 표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책 표지를 경지판(硬紙板)에서 장목판(樟木板)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재 복원공정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으며, 표구한 경서는 무려 6075권, 26만 쪽에 달한다.

이번에 복원된 경서는 북송 대(1085년 이후)의 〈마하반야바라밀경〉, 〈대방등대집경〉 및 〈대운륜청우경(大雲輪淸雨經)〉 등 원 · 명대의 국보급 경서가 대부분이다. 이들 귀중한 불경들은 중국의 인쇄역사상 중요한 연구자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교 · 정치갈등 해결모색

세계경제포럼 43개 종교단체 참석

WORLD ECONOMIC FORUM
COMMIT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

◇세계경제포럼 로고.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경제 각료, 재계인사 등이 모여 세계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종교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화제다.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뉴욕 맨해튼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제32차 연례 총회에 참석하는 종교지도자들은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 대사와 남아공의 투투 주교 등 세계 43개 종교단체 대표들. 이들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표출되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적 갈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치유해 보자는 취지로 만나게 됐다. 토론 주제도 '불안정한 시대(fragile times) 의 리더십, 함께 하는 미래를 위한 비전' 으로 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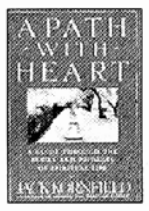
이들 종교지도자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나타난 반(反) 서방 의식과 반세계화 흐름, 최근 중동사태에서 나타난 종교, 인종간 갈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3일 열리는 미래의 패러다임, 종교적 차이의 극복, 이슬람의 목소리 등의 주제를 비롯해 문명간의 대화를 위한 도덕적 수단의 강구, 분열된 사회를 잇기 위한 공통가치의 창출 등 다양한 주제로 인류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지혜를 모은다.

해외 불서

• 아프가니스탄의 美: 유적과 미술품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붕괴가 우려되었던 아프가니스탄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제1장 바미얀 – 참혹한 대불(大佛), 제2장 베구람 – 문화의 보석상자, 제3장 스르후 도타루 – 배화교(拜火敎)의 신전, 제4장 바루흐 – 알렉산더의 수도, 제5장 폰도기스탄 – 아름다운 불상들, 제6장 하따 – 미남형의 불상들, 제7장 그밖의 유적들 등으로 구성. 타이오까(谷岡淸) 저, 일본 소학관(小學館) 펴냄.



• 마음의 길 <A Path with Heart>: 영적 삶의 모험과 희망에 대한 안내서다. 서구 불교에서 존경받는 콘필드(Jack Komfield) 법사가 불교 명상법에 대한 가르침을 25년간의 개인적, 실천적인 지혜를 곁들여 설명했다. 그는 일상의 생활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실험과 평화, 진실로 이끄는 감각의 단순화를 위주로 한 관법(觀法)을 지도한다. 생활속에서 의식의 흐름을 지켜보는 관법은 근본불교 수행법을 위주로 한다. 미국 Bantam Double day Dell 펴냄.



탄압받는 종교인 북한에 20만

美의회 청문회

북한 노동당이 반당 혁명분자로 체포한 종교인이 2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미 의회 산하 연방종교자유위원회(회장 마이클 영)가 1월 24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김상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이 증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철 본부장은 "북한의 종교탄압정책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다"면서 "북한 노동당이 반당 혁명분자로 체포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각종교인수는 20만명에 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각종 종교인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종교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함으로써 종교의 자선기능이 북한정부와 북한인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라이 라마가 1월 27일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뭄바이 릴라와티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달라이 라마 건강 호전

칼라차크라 법회중 복통 입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복통으로 인도 뭄바이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CNN방송이 1월 2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보드가야 칼라차크라(시간의 수레바퀴) 대법회 참석을 위해 인도 동부 비하르주의 보드가야 사찰에 머물러온 달라이 라마가 지난 주말 복통으로 헬기와 전세기편으로 뭄바이의 릴라와티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진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 대변인은 그가 작년 12월15일부터 복통을 호소해 왔으며 의료진이 정밀검진을 권고해 입원이 이뤄진 것으로 설명했다. 병원측은 달라이 라마가 혼자 거동이 가능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등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그의 위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곳에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칼라차크라 대법회의 축제를 이끌 예정이었으나 복통으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인류의 敵은 광신주의자들"

토플러, LA타임스 기고

"우리의 적은 회교나 기독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각종 종교단체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원리주의적 광신자들이다. 종교는 더 이상 광신자들이 기생하는 숙주(宿主)가 되어서는 안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74)는 1월 28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21세기 종교의 위기' 란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앨빈 토플러는 "오늘날 세계적 차원의 종교적 영향력 확대는 도덕적 청량제나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새뮤얼 헌팅턴이 예고한 종교전쟁을 대량살상의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며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날 광신자들의 주된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는 원리주의적인 여러 종교를 내부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플러는 "세계적 패권과 영향력을 다투는 치열한 싸움에서 종교는 정부와 다국적기업, NGO, 그리고 여타 조직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종교가 내부 광신자들의 근거지를 색출, 파괴하며 자율적인 정화절차를 마칠 때까지 종교의 도덕적 정통성은 항상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2. 대불조성의 사상적 배경은?

바미얀 대불이 파괴된 지 1년이 되어 간다. 외신에 의하면 두 대불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바미얀의 대불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인도와 이란을 연결하는 고대 교통의 요충지, 바미얀 협곡에 위치한 높이 55m의 서대불(西大佛)과 35m의 동대불(東大佛)이다. 이 웅대한 바미얀 대불을 조성한 불교도들의 신앙과 지혜는 돈황과 낙양의 용문석굴, 대동의 운강석굴로 이어지는 붓다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전해져 한국의 석굴암 대불, 일본 나라의 동대사 대불 조성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대불 조성의 이념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대불조성과 그 사상적 배경이 된 경전이 한역된 시기, 그 경전에 나타난 대불 조성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승우(445~518) 스님이 편찬한 한역대장경 총목록 〈출삼장기집〉이래 현대까지 작성된 한역경전의 목록은 경전의 제목에 '관(觀)' 자가 들어

관불 등 관상수행

불교 호국사상 연관

간 여섯 가지 경전이 있다. 즉 ①〈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10권 ②〈관무량수경〉」 1권 ③〈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 1권 ④〈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1권 ⑤〈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 1권 ⑥〈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 1권 등이 바로 '관' 자가 들어간 관상 6경(觀想六經)이다.

이 관상 6경의 역경 연대를 살펴보면 모두 동진에서 유송에 이르는 5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역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한역불전의 성립사로 볼 때 이 6경은 역출과 성립시기를 전후로 중역(重譯)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관상 6경은 공통적으로 범본이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관미륵보살상생두솔천경〉만이 티벳대장경 델케판에 편입되어 있을 뿐이다. 또 한 가지 본경의 특수성을 알 수 있는 있는 점은 역출자들이 모두 중앙아시아 출신이라는 점이다. 즉 관불삼매와 정토왕생을 강조하는 사상은 서기 5세기경, 중앙아시아 불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특수한 사상이며 불교적 형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법현과 현장의 여행기에 "여러 종류의 관경을 입수하였다"는 등의 바미얀의 대불과 타력(陀驟)의 미륵상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어 관상경전이 크게 영향을 준 당시 중앙아시아 불교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둘째, '관상' 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문제는 바로 "관상 6경의 특성을 말해주는 '관' 은 무슨 의미인가"는 것이다. 일찍이 일본의 다카구스는 〈관무량수경〉을 영역하면서 '관' 자를 선정을 의미하는 범어 다얀, 즉 'dhyāna' 로 옮기고 그 보다 이전의 난요분유도 〈대명삼장성교목록〉을 영역하면서 'dhyāna(?)' 라고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 '관' 자의 원의에 대해서 가상대사 길장은 그의 〈관무량수경주〉에서 "서역의 말, 아야라를 여기서는 관이라고 한다"고 적고 있으며, 신라 경흥 스님은 〈삼미륵경소〉에서는 "관이란 갖추어 말하면 아야라이다. 이는 반관(反觀)이니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 묘계(妙界)로 향하기 때문에 관이라고 한다"고 적는다. 그러므로 관상 6경의 '관' 은 단순한 dhyāna가 아니라 ārya(聖)라는 합의를 갖고 있으며 관행, 관상, 관불삼매의 수행을 의미하는 '관' 은 "…의 관상에 관한 성스러운 경전"으로 해석되어야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째, 대불조성의 이념적 배경은 바로 관상 6경에서 관상의 대상으로서 설해지는 웅대한 대불이다. 현장삼장은 기록처럼 바미얀의 휘황찬란한 대불은 실제로 "무량수불의 불신은 백천만억야마천염부단금색과 같으며 불신의 높이는 육십만억나유타항사유순"이며 "다시 대세지보살을 관하나니 이 보살은 크기는 관세음과 같다"는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지는 불 · 보살의 관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초월적인 거대함을 갖춘 불상의 관상은 분명히 관상 6경에서 설해는 관불, 관불삼매, 관정토(觀淨土)의 사상처럼 '관' 이라는 시각동사(視覺動詞)를 사용하고 있는 관상수행과도 연관이 있다. 부처님과 정토에 대한 관상에서 시작된 교리사적, 신앙사적 변화는 바로 북방계 대승불교 특유의 호국사상과 매듭을 갖게 되면서 국가적인 규모의 대불조성의 유행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경학회 회주

직장인을 위한 동산불교대학 (2년과정)

1. • 불교학과 모집기간 : 연 2회 (매년 2월 8월)
   • 불교학과 모집인원 : 150명(정규, 주간, 통신)

2. 불교한문학과 개설

과 목	· 한문법(1), 한문법(2) · 명심보감, 장자, 주역, 천자문 · 발심수행장,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교수진	· 심재돈교수(동국대), 한정섭법사 · 송찬우교수(승가대), 무진장스님

3. 불교미술학과

이론편	인도불교미술, 중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 동남아불교미술, 불교사찰, 탑, 불상, 회화, 돈황미술, 고려미술, 조선미술, 티벳미술, 현대불교미술, 법화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4. 우리 춤학과

지도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제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③ 작법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놀림) ④ 북과 장단기본(북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5. 입 학 일 시 : 2002년 3월 6일 7일(한문학과, 불교미술, 우리춤학과)
6. 원서교부처 : 본 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극락장엄경) (화 엄 경)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극락장엄경(아미타경 ·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장엄경 (1)(2) · 법화경(1)(2)(3) · 금강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엄경론(이통현장자)	한정섭 법사	신화엄경론 (1)(2) · 화엄경 약찬게, 법성게 · 화엄십지품(1)(2)
정 토 학 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극락장엄경(아미타경 ·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장엄경 (1)(2) · 정토삼부경 · 왕생론 · 무량수경종요 · 장엄염불
최봉수 교수의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사제법 · 12연기설)	최봉수 교수	아함경 · 반야경 · 법화경 · 화엄십지품
송찬우 교수의 대승경전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천태소지관	송찬우 교수	천태소지관 · 금강경 · 대승기신론 · 조론(B반), 능엄경(A반)
인도-티벳어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최종남 교수	산스크리트문법, 팔리어문법, 티벳어문법, 법화경강독, 잡아함강독, 보리도차제론강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2년 2월 1일~ 2002년 3월 2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2년 3월 4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2년 3월 7일(목) 오후 4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org

인도 · 티벳어학과 개설!!

1. 동산불교전문연구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 새로이 인도 · 티벳어 원전 강독반을 개설합니다.



최종남 교수(승가대)

2. 교과목

1 년 차	산스크리트어 : 산스크리트문법 · 법화경강독
2 년 차	팔리어 : 팔리어문법 · 잡아함경강독
3 년 차	티벳트어 : 티벳트어문법 · 보리도차제론강독

1. 개 강 2002년 3월 8일(금) 오후 2시 (매주 금요일)

불교대중 교육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搏,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앞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고향 가는 길은 언제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해마다 고향을 향해 무심히 지나가는 그 길 어딘가에는 우리의 눈길과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문화재들이 숨어 있다. 지방문화재라고 해서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보다 볼 가치, 느낄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다. 처음 세워진 그 자리를 오랜 세월 비바람 맞으며 지켜온 문화재들이기 때문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설연휴에는 중앙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로 한결 가까워진 답사길을 따라 '숨겨진 불교문화재'를 찾아가보자.

설레는 귀향길…부처님 숨결 느끼세요

전문가가 추천한 불교문화재



서울

관악산 봉천동마애미륵불좌상(시유형문화재 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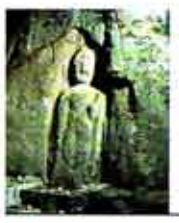
관악산을 오르다 보면 북쪽 중턱의 바위에 새겨진 미륵불을 만날 수 있다. 이 마애불은 1630년이라는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으며, 마애불의 위에는 거북바위가 있다.



경기

하남 태평이년명마애약사불좌상(보물 981호)

약수로 유명한 선법사 약수터 바위 옆에는 약사불좌상이 조각돼 있다. 불상의 왼편 아래 명문에 '태평(太平)'이라는 연호가 있어 더욱 소중한 마애불이다.



충남

홍성 용봉사마애불(도유형문화재 118호)

용봉사(龍鳳寺) 입구 서쪽 바위에 새겨진 불상으로, 다른 돌에 연꽃무늬 대좌를 새기고 두 발을 조각했다. 9세기 불상 양식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요한 불상이다.

전북

온주 화암사 우화루(보물 662호)

호암사 계곡을 따라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오르면 불명산의 원시림을 배경으로 화암사 우화루가 있다. 화암사는 원효 · 의상 대사가 정진했다는 사찰로, 장독대 옆에는 작은 산신각이 '엎혀져' 있다.



전남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947호)

사찰은 앉은 자리의 크기만으로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미황사는 일주문도, 사천왕문도 없지만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달마산의 바위능선과 부도밭으로 가는 오솔길 등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곳이다.



경북

성혈사 나한전 꽃창살(보물 832호)

영풍군 순흥면 성혈사는 나한전과 몇몇 전각으로 이뤄진 평범한 사찰이다. 하지만 석조비로자나불과 16나한이 모셔져 있는 나한전 문살에 조각된 두루미, 개구리, 동자 등이 무척 화려하다.



충북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석탑(보물 94호)

빈신사터에는 사자 네 마리가 탑신을 받치고 있는 고려시대 탑이 있다. 탑 네 모서리에 앉은 사자와 그 안에 봉안된 두건을 쓴 비로자나불상 모두 넉넉한 인상이다.

경남

창녕 관룡사용선대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295호)

관룡사 근처 용선대에 있는 석불좌상으로 산꼭대기 높은 바위 위에 모셔져 있다. 관룡사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자그마한 돌장승도 눈길을 끈다.

제주

건입동 용담동 복신미륵(도민속자료 1호)

'돌하루방'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이 복신미륵 2기는 성을 지키기 위해 제주성 동(건입동) · 서(용담동)쪽에 세웠던 것이라고 한다. 동자복, 서자복이라고도 한다.



도움말 주신분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 김창균(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이강근 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 최성은 교수(덕성여대 미술사학과)

야외소재 국보급불교문화재

서울시	
2호 중구	원각사지 10층 석탑
경기도	
4호 여주군	고달사지 부도
강원도	
5호 보은군	법주사 쌍사자 석등
48호 평창군	월정사 8각 9층 석탑
122호 양양군	진전사지 3층 석탑
충청도	
6호 충주시	중원탑평리 7층 석탑
8호 보령군	성주사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
9호 부여군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41호 청주시	용두사지 철당간
49호 예산군	수덕사 대웅전
55호 보은군	법주사 팔상전
84호 서산시	서산 마애삼존불상
197호 충주시	정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289호 익산시	익산왕궁리 5층석탑
전라도	
10호 남원시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11호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12호 구례군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13호 강진군	무위사 극락전
35호 구례군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44호 장흥군	보림사 3층 석탑 및 석등
50호 영암군	도갑사 해탈문
53호 구례군	연곡사 동부도
54호 구례군	연곡사 북부도
56호 승주군	송광사 국사전
57호 화순군	쌍봉사 철감선사탑
62호 김제시	금산사 미륵전
67호 구례군	화엄사 각황전
144호 영암군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경상도	
14호 영천군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15호 안동시	봉정사 극락전
16호 안동시	안동신세동 7층 전탑
17호 영풍시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18호 영풍시	부석사 무량수전
19호영풍시	부석사 조사당
20호 경주시	불국사 다보탑
21호 경주시	불국사 3층 석탑
22호 경주시	불국사 연화교 칠보교
23호 경주시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24호 경주시	석굴암 석굴
30호 경주시	분황사 석탑
34호 창녕군	창녕 술정리 동 3층 석탑
37호 경주시	경주 구황리 3층 석탑
39호 경주시	월성 나원리 5층 석탑
40호 경주시	정혜사지 13층 석탑
47호 하동군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77호 의성군	의성탑리 5층 석탑
109호 군위군	군위 삼존석굴
112호 경주시	감은사지 3층 석탑
130호 구미시	선산 죽장동 5층 석탑
187호 영양군	봉감보전 5층 석탑
199호 경주군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201호 봉화군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236호 경주시	월성 장항리 절터 서5층 석탑
290호 양산시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精魂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1-8871 792-8867~8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동진선사 '白雲自覺'

선사의 법명은 경보(慶甫), 법자는 광종(光宗), 법호는 동진(洞眞), 속성은 김씨(金氏)이다. 전남 영암군 구림(鳩林) 사람이다. 부친의 이름은 익량(益良), 벼슬은 알찬(閼粲 : 신라의 7등급)이며 모친의 성은 박씨이다. 신라 경문왕 8년(868) 7월에 모친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흰 쥐가 푸른 유리구슬 한 개를 물고와 "이것은 매우 드물고 기이한 보물이며 불가의 최고 보배입니다. 품안에 있으면 부처님의 호념(護念)이 따를 것이고 나오면 틀림없이 광채를 발할 것입니다"고 사라졌다.

그 이듬해 4월 20일 출생한 동진선사는 유년에 부인산사(夫仁山寺)로 가서 낙발하고 교학 공부에 정진하였다. 선산(禪山)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교학에 깊이 심취하여 있던 어느 날 꿈에 황금빛의 부처님이 선사의 머리를 어루만지다가 가사를 건네주며 "이것으로 몸을 보호하며 다녀라. 이곳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주할 곳이 아니에는 가자미가 많이 잡히므로 그렇게 뜻하였다)의 용 새끼인가"하고 선문(禪問)을 하였다. 선사의 선답(禪答)의 담병(談柄 : 끊어지지 않는 말)의 현언기(玄言機 : 오묘한 이치의 깊은 의미가 담긴 뜻)를 들은 광인 선사는 선실에 올라오도록 허락했다. 광인 선사께서 동방사람으로서 눈으로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라 말하고 지혜의 등불을 전해 진리의 도장(心印)을 주었다.

선사는 다시 강서(江西)의 노선 화상을 찾아가 법을 구하였다. 노선 화상 회상에서 수참하기를 2년 만에 가을날 쪽빛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노선화상께서 선사를 보고 물었다.

"흰 구름이 쇠사슬 되어 나그네의 길을 끊었도다(白雲鎖斷行人路)." 이에 선사께서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다.

백운자각(白雲自覺 :흰구름에 깨달은 마음)

自有靑山路(자유청산로)
白雲那得留(백운나득유)

새도 머물 나무 가릴줄 아는데
내 어찌 한곳에만 매달리랴

니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꿈을 깬 선사는 다시 눕지 않고 앉아 있다 날이 밝자 길을 떠나 백계산 도승화상을 찾아가 법을 구하였다. 도승 화상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지혜가 아니면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지킬 수 없고 계율이 아니면 인간의 그릇된 행동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18세에 월유산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품수, 다시 백계산으로 돌와서 도승 화상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자 도승 화상은 "너의 그러한 뜻을 빼앗을 수 없고 행동을 막을 수 없구나. 너는 나를 모르고 동가구(東家丘: 공자를 말함)로 여기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며 허락했다.

선사는 이때부터 수없는 제방을 주유함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보고 들었으며 배움에 있어서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정진하였다.

동진선사는 중국 무주(撫州) 소산(疎山)에 주석하고 계신 광인 선사를 찾아가 법을 구하였다. 광인 선사는 선사를 대하여 "이리 가까이 오라. 그대는 접해(鰈海 : 신라를 지칭하는 말. 신라 근해

나그네 가슴에 푸른 산의 길이 있거늘, 흰 구름이 어떻게 잡을 수 있으리까.

선사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시국은 불안했다. 때마침 견훤(甄萱)이 웅대한 뜻의 실현을 두고 이름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가 놓아 주는 용병술에 치중하고 있을 때에 견훤은 선사를 윗자리로 모시고자 하였다. 견훤은 선사를 완산주(完山州 : 지금의 전주)의 남북사로 모시고자 청했다. 선사는 "새도 머물 나무를 가릴 줄 아는데, 내 어찌 박이나 오이처럼 한곳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단 말이요"라고 대답하고 떠났다.

백계산 옥룡사로 와서 주석하였다. 선사의 자애로운 마음의 바람 만리에 이르고, 선(禪)의 달빛은 구천(九天)밖까지 비추었다. 그러나 조각달도 허공에 흐르듯, 선사의 큰 선리(禪理)는 비상(飛翔)되지 못한 채, 고려 정종 3년(948) 세수 80세 법랍 62세로 백계산 옥룡사 염화실에서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내가 부처요 허공이 나의 몸

가까이서 뵌 큰스님

묵 산 스 님 (보림사 회주)

면목 없는 자가 근본이라(無面目者是本然)/두두 물물이 이리 쫓아 왔다(頭頭物物從此來)/추월, 춘화를 그대는 아는가(秋月春花君知否)/돌여인 젓대 부는데, 목인이 춤추더라(石女吹笛木人舞).

서울 정릉 보림사에 주석하는 묵산스님이 30여년전 읊은 게송으로, 56년여의 수행이력을 드러내는 살림살이다.

1922년 제주 서귀포에서 출생한 묵산스님은 46년 제주도 황룡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의 본격적인 참선공부는 49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법사로 모시면서 시작됐다. 인곡스님은 묵산(默山)이란 법호와 함께 게송을 내려주었는데, 이 게송이 묵산스님으로 하여금 평생 소를 찾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가히 우습구나. 소를 탄 자가 소를 찾는구나(可笑尋牛者 騎牛更覓牛). 그림자 없는 나무를 꺾어와야(折來無影樹) 바닷가 가운데 물거품을 녹여 다하리라(消盡海中漚)."

묵담스님에게 인곡스님은 해인사 장경각에서 정진하던 숨은 도인이었다. 평생 돈을 만지지 않은 인곡스님은 양말도 한 켤레, 깔고 덮는 이불도 한 채 뿐이었다. 심지어 책도 얻어다 볼 정도로 무소유를 생활화한 분이었다. 장삼만 남기고 입적, 그 청빈과 담박함이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분이라는게 묵산스님의 회고다.

인곡스님을 모시고 해인사에서 공부할 당시 가야총림의 선방에는 효봉스님이 조실로 계셨는데, 묵산스님은 47년에 처음 친견하고 문답을 주고 받았다.

묵산스님 : 4대 5온이 어찌 생겼습니까?
효봉스님 : 무(無).
묵산스님 : 꽥!(소리지르고, 물러나오다.)

묵산스님은 그러나 이 문답에서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 얼마후 다시 효봉스님에게 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이때 많은 감명을 받았다.

"니가 어딜 가더라도, 마디 풀(寸草)도 없는 곳을 가거라."

해인사는 6 · 25전쟁후 불바다를 이루었다. 사찰들은 인민군과 피난민으로 법석이었다. 이듬해에 흉년이 들어 저절로 두타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피난시절, 걸망을 지고 가다가 전남 함안 숭림사에서 이삼만 선생이 쓴 주련을 보고 가슴이 툭 터진 때가 있었다. 고난의 시기에 귀중한 글귀는 새로운 발심의 기회가 되었다.

학같은 나무는 적멸을 보이는데(鶴樹潛輝示寂滅) 금강사리는 광명을 놓아(金剛舍利放光明) 팔천 경문이 가슴 속에서 나오니(八千經卷胸中出) 백억의 건곤이 발아래



◇묵산스님은 월드컵을 앞두고 백봉거사의 문집을 영어, 일어로 번역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전할 생각이다.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참선만 해온 스님이지만 수행과 포교는 스님에게 둘이 아니다.

불법이 세상 건지려면
눈푸른 납자 많이 나와야

감추어지다(百億乾坤足下藏).

"글귀 하나하나가 중생을 제도하는 감로법문이었어요. 목탁는 중생의 마음자리를 윤택케 하니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인연이 있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발심이 되어 공부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곡스님과 효봉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묵산스님은 백양사에서 3안거를 보냈다. 만암스님은 '이 뭣고' 화두를 주장하셨다. 23세 때는 고봉스님이 견성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강인근의 비구니 사찰서 문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 수좌 4명이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 묵산스님이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묵산스님 : 본래 둘이 아닌데, 어찌 둘이 됩니까?
고봉스님 : 어찌 분별하느냐?
묵산스님 : 스승과 제자가 들인데, 어찌 분별을 안하겠습니까.
고봉스님 : 악! 나가거라.
묵산스님 : 어디로 나갈까요?
고봉스님 : (묵묵부답)

묵산스님은 이때 고봉스님이 한마디 더 일러주지 않아 내내 아쉬움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묵산스님은 젊은 시절 많은 선지식들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통도사의 경봉스님, 관음사의 향곡스님, 월정사의 탄허스님, 범어사의 동산스님, 용화사의 전강스님 등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을 만나 탁마했다.

"선지식들이 납자를 제접할 때 안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요. 법담(法談)은 문자를 초월한 것입니다. 불교는 말마디 떨어지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광석화와도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의 소리 하는 것은 죽은 법문입니다."

선재동자의 구도행과도 같은 치열한 정진이었다. 특히 65년 스님이 재가자를 스승으로 모신 기이한 인연을 맺은, 근대 거사불교의 불꽃을 지핀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와의 만남은 그에게 화두 참구의 임계점에서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30년전 허공이 부서지는 걸 체험했어요. 천당과 지옥이 부서지고, 불보살이 다 부서졌어요. 생사 거래와 남녀노소, 일체의 차별이 다 무너졌지요. 눈, 귀, 코, 온통 몸뚱이가 다 허공이 되었어요. 내가 화엄경이 되고 법화경, 열반경,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이 되었습니다. 마음 자리하나 잡아놓으면 팔만대장경이 날 떠날 수 없어요. 말쑥하게 빈 청정법신(淸淨法身)의 자리예요. 기가 막힌거예요. 일체 행동이 여래선이요, 조사선인 자리입니다."

묵산스님은 참다운 인생을 살려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생활의 바탕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죽고 사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면 죽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서울 | 만남 | 미래

조계사불교대학

신입생모집(2년과정)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배움의 문이 조계사 불교대학에 열려있습니다

교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 근본불교 · 불교문학 · 계율론
1학년 2학기 – 불교사 · 경전입문 · 정토불교
2학년 1학기 – 대승불교 · 경전강독 · 불교사회복지
2학년 2학기 – 선불교 · 포교와 상담

입학자격
불교기본교육을 이수하신 분
*타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신 내용도 인정됩니다.
*개강 후 불교기본교육 35기 강좌를 함께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부문
주간반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2시– 4시
야간반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9시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6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 대학 소정 양식),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불교기본교육 수료증 사본(타 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

등록안내
등록금(학기당) 36만원
*학생회비 10,000원 포함금액입니다.
가족(부모 · 형제 · 자매) 2인 이상이 불교대학을 동시에 수강할 경우 한 분에 한하여 등록금 50% 할인
국가 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록금 50% 할인

계좌번호
제일은행 100–10–013750 대한불교조계사
농협 053–01–238853 대한불교조계사
신한은행 324–05–019093 대한불교조계사

전형일정
원서 접수 : 1월 15일~
접수 장소 : 조계사 종무소 포교국
*서류심사 후 면접전형(서류심사 및 면접일자 개별통지)

학사일정
입학식 : 3월 2일(토)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개강일 : 3월 4일(월) 오후 2시

불교기본교육수강안내 (3개월 과정)
불교기본교육 강좌는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초심자를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불교에 입문하였으나 궁금한 것이 많으신 분, 불교를 알고 싶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조계사의 스님들께서 올바른 신행활동을 지도해주시고, 불교에 대한 기본이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내용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교리, 수행의 실제
*교과과정 중 해인사 1박2일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모집분야
주간반 | 매주 화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야간반 |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기타
개강일 : 2002년 3월 9일(토요반), 3월 12일(주간, 야간반)
수강료 : 30,000원(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 포교국 720–1390, 6742

남의 살림살이에 속지말라

보림회 회원들과 심우송 영어판등 계획

어도 죽음이 아니요, 삶이 삶이 아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허공인 동시에 묘하게 존재' (眞空妙有)함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 불멸의 세계는 참선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염불과 주력만으론 안돼요. 허공이 내려 앉다니 이런 도리가 어디이 있나요. 허공이 부서져야 '참자기'가 나타나요. 이게 진공의 자리요 본래면목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 미륵불, 달마대사도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한 걸음도 부처님의 세계를 여읠 순 없어요. 옛 스님들은 이 자리를 무위사(無爲舍) 또는 원적산(圓寂山)이라 했고, 28대 조사님들이 함께 거하고 (同居四七) 6조사님들이 동행하는 길이제 많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도 나려놓지 않았다.

묵산스님은 견성이후의 닦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초견성은 성불공부의 입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산 가는 길을 알게 된 것과 직접 걸어가 보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이치를 깨달아 '이무애(理無碍)'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무애(事無碍)'가 되어야 한다. '이사무애 사사무애'가 원융이 될 때라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처음 길을 알게 된 견성체험만으로는 공(空) 도리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보임(保任)의 기간으로 알고 더욱 정진해야 해요. 무아의 도리로 고행과 인욕행을 닦아야 하고 6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청정도리를 놓치지 않고 수시로 점검하는 공부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에 따라서는 초견성이후 사무애까지 직입(直入)하는 이도 있지만, 더욱 발심해서 정진해야 합니다."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묵산스님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으로 바람과 눈, 비가 되어 중생을 듭는 것처럼 남모르게 보살행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스님들에게 오후(悟後) 공부는 더 어려운 과제였다.

"보임기간은 한 발자욱, 한 발자욱이 모두 공부거리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한 마디가 공부거리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8정도를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내 마음에 티끌이라도 붙어선 안됩니다. 마음이 '함이 없는 집(無爲舍)'이기 때문이죠.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고 할 때 '여시'자리가 견성자리입니다. '견성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묵산스님은 요즘 백봉 김기추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 회원들과 함께 백봉 선생의 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월드컵 대회를 네달여 앞둔 시점에서 〈절대성과 상대성〉〈예불송〉〈심우송〉등을 이달중 영어, 일어로 번역해 4월초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보림회 전근홍 총무는 "묵산스님은 월드컵을 맞아 한국의 대승선법을 외국에 소개하려 합니다.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불교작품 하나라도 갖고 가, 인생관을 새롭게 깨닫도록 소련어, 독일어로도 번역하실 뜻이 있습니다"라며, 종단의 무관심을 안타까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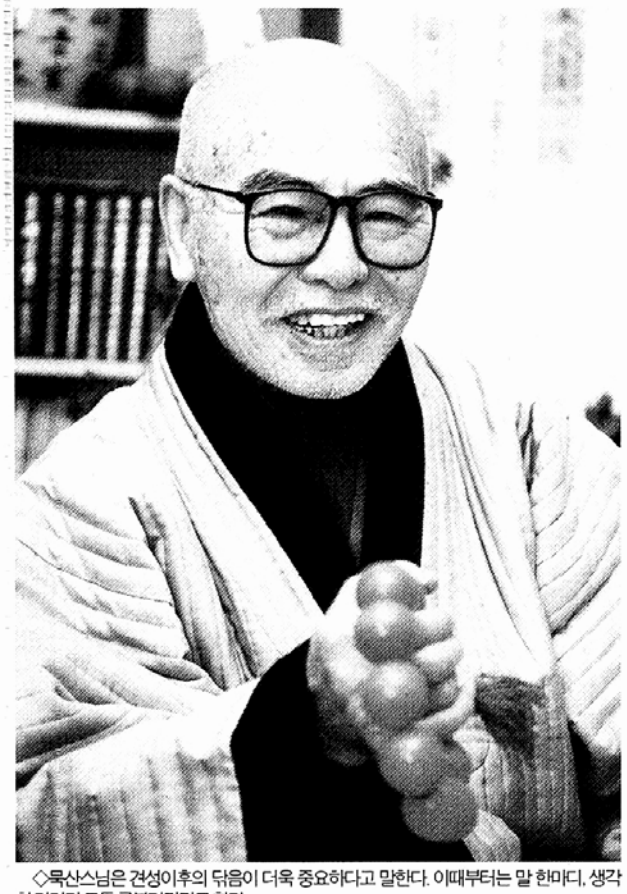
35년전 보림사를 창건, 보림회 회원들을 지도하며 포교에 매진해온 묵산스님. 60세까지도 서울 장안을 공부도량으로 삼아 아리랑고개-돈화문-창경궁-탑골공원-광화문-구파발로 목탁을 치며 전법에 나섰던 스님은 참선공부와 함께 포교의 중요성을 언제나 강조해 왔다.

"길 바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교하다 죽으면 후회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길위의 두 나무 사이에서 열반하시 않았습니까."

묵산스님은 요즘 불교의 주체의식과 수행정신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우려한다. 아집과 무명에 사로잡힌 불자들이 거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이 맑을 때 공부할 것을 당부한다.

"거룩한 인생은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불교는 마음자리를 궁구해요. 마음을 우선 잘 써야해요. 자식간에 불화하면 사회도 어지러우니, 우선 용심(用心)을 잘 하는게 중요합니다. 어찌해서 보고 듣는가, 차를 몰고, 비행기를 모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찾아야지요."

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묵산스님은 견성이후의 닦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때부터는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가 모두 공부거리라고 한다.

묵산스님 : 그걸 몰라!(큰소리로 3번 반복)

수좌 : (두 손을 가슴에 얹은 다음 삼배하다)

3천제불 가운데 크고 작은게 어디 있겠는가. 묵산스님은 남의 살림으론 법문이 안된다고 말한다. 불법이 말세에 이르러 선지식이 없지만, 우리 불법이 세상을 건지려면 눈푸른 납자가 많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묵산스님은?

제주출생, 황룡사서 출가…정릉 보림사 창건

1922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출생했으며 46년 제주 황룡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과 효봉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으며 백양사, 대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65년 백봉 김기추 거사가 보림회라는 거사림을 조직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 정릉 삼봉사로 스님을 찾아와 인연을 맺었다. 그때까지 묵산스님은 불교의 정수를 알지 못하다가 삼봉사에서 일요일마다 백봉거사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선생으로 받들다. 35년전 서울 정릉에 보림사 창건했으며, 토요일마다 백봉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 회원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현담스님

올 겨울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눈 덮힌 겨울산하를 자주 보게 된다. 하얀 산봉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스쳐 지나간 인연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눈녹듯 가슴속을 촉촉히 적셔온다. 벌써 40이 넘은 나이 탓일까. 새삼 지난 일들이 자주 떠오르고 그리워 지는 것은 턱없이 나이만 먹어버린 자신에 대한 착잡함 때문이리라.

흐르는 세월속에 빠르게 굽이치는 이 거대한 물결의 흐름속에 한점 작은 거품으로 스러져 간다 해도 기억만큼은 소중히 되살려서 주변의 따듯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다.

70년대 중반,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원효암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그야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시절을 보낸 적이 있다. 그때 함께 했던 스님들의 모습을 쉽게 지울 수가 없다. 허운(虛韻) 법주(法柱) 현기(玄機) 현담(玄潭) 스님, 그 외에도 왕래가 잦았던 여러 스님들. 막내였던 내게 선배로서 또 출가인으로서 항상 내면의 경책을 아끼지 않았던 현담 스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아직까지도 시린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다.

원효암이란 암자는 다 쓰러져가는 법당 기둥에 누울 곳도 마땅치 않은, 그래서 감히 누구도 살기를 꺼려했던 아주 작은 암자였다.

자명스님등과 활발한 詩作

광주 민주화운동 목격후 절필

돌이켜 보건대 그곳이 중앙승가대학이라는 종립교육기관의 시원지(始源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초라한 암자가 작은 뭍줄기가 됐다는 것은 몇몇 관여했던 스님들을 제외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당시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이 좀더 교학에 뜻을 두고 연구하고 싶어도 마땅한 종단 교육기관이 없었다.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 해서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은 당연히 선원에 가서 안거를 해야 정상적인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당시 절집 정서로 인해 교학을 공부하고픈 스님들에게 당시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중앙승가대학이라는 4년제 정규 대학이 있게된 동기는 몇몇 젊은 스님들의 간절한 뜻이 그 모태가 되었다. 그 젊은 스님들 몇이서 조종현 선생(〈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의 부친으로서 대강백이었다)을 모시고 경전공부를 하던 곳이 원효암이었다. 원효암을 시발로 해서 마곡사를 거쳐 돈암동 보현사에서 정식으로 중앙승가학원이 개원을 하게된 것이다.

현담 스님, 그도 당시에 원효암에 연을 두고 있었다. 좋은 시(詩) 한편만 쓰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던 가슴 뜨거운 젊은 시인이었다. 시인이기 이전에 혈기왕성한 젊은 스님이었다. 77년도인지 78년도인지 정확히 기억할 순 없지만 소설가 양귀자씨와 함께 〈문학사상〉을 통해서 문단에 데뷔한, 장래가 촉망되는 서정시인이었다. 시집도 냈고 황청원, 자명, 진관 스님과 함께 동인시집에 동참하여 간간히 여러 지면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현담스님을 추천했던 이어령 김윤식 교수 두분으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20대 중반에 쓰여진 그의 짧은 시들은 아직도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나는 그의 열렬한 독자였다. 그는 늘 혼잣말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싶다고 했다. 속뜻이야 알길 없지만 그래야 한줄이라도 제대로 된 시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푸념이라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지금까지도 외롭고 힘든 길을 고집하고 있다.

현담 스님의 독서량은 대단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한 자루 촛불아래서 콧구멍에 그을음이 시커멓게 묻어나올 때까지 그렇게 독서로 긴 겨울밤을 지새우곤 했다. 횃배 앓는 사람처럼 노오란 그의 얼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움켜쥐고 혼자서 감내하고 있는 듯 탄식의 신음소리를 자주 내게 들키곤 했다. 그때 암자의 살림



살이가 너무도 가난하여 윗절 갓바위에서 쌀과 초를 얻어다가 쓰곤 했다. 그러니 겨울밥상은 늘 시래기국과 김치가 전부였다. 그래도 당시는 너무 행복했다.

그러던 현담스님이 어느날 외유를 몇 개월 하고 오더니 시를 버렸다고 했다. 도반 스님들과 광주에 들렀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목격하고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듯 했다. 먹물옷 입고 한가하게 방구석에서 시나 쓰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유유자적하며 보낼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었는데 그 거칠고 직선적인 어투에는 어떤 비장함까지 엿보였다.

간간히 시내에 내려가 역사철학류와 사회과학 서적을 무겁게 들고와서 몇날 며칠이고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몰두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그의 손에서는 시집과 경전을 볼 수가 없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그후로 정말 스님은 시를 쓰지 않았다. (계속)

▩ 함창 자광사



◎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不立文子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乾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昻明人中師一点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2002년 임오년 입춘절
근하신년 태일대사 합장

2002년 월드컵 성공 기원 대법회 및 대도 진인 웅조 달마 경신 도통 입문하여 세계평화 종교통일 - 용맹정진 대법회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진인 정진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모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달마종의 근본 법도와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워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바른길의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종단 달마종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반과 인연있는 후원자 및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권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心

퇴직자 명퇴자 고인력자 초보자 및 철학에 종사하는 지도자 및 청소년 담당 및 초중고 진학담당 할 지도자 자녀들 및 일반인들이 시회전반의 각대학 직장학과 진로 방향의 마무리 카운셀러비법. 각자의 개성을 살리어 중차대한 앞날의 진로과정을 화학적반응, 물리학적반응, 심리학적 반응으로 미래의 기둥을 만들 수 있는 특별 강의를 매주 금, 토, 일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직강. 초보자 환영 [전화 02)821-6622, 016-239-31110]

달마의 진법을 수강받으실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21-7767] 대한 역학 풍수지리 학술회장 백

● 입제 : 양력 2월 20일 수요일 ● 해제 : 양력 2월 21일 목요일
● 동참금 : 1박 2일 5만원, 점식제공 농 협 029-01-167866
하나은행 157-015402-00108 곽태일(한영) FAX 02)821-7768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 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입구

웅조미륵달마 진인 경신 도통회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사단법인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교육원 달마선원장

(출강 · 통신)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법사 수행의 길로 초대합니다

본 대학은 10년간 오로지 법사 양성에만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법사학인 교학도량입니다.

●

본 대학에서는 대승불교의 보살학법에 의해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의 법위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전법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❶출강반 ❷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6. 교육 장소 : ❶서울 본 대학 ❷부산 학습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권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부처님 가르침을 동요와 선법가로 접목시킨 음악극 '나의 작은별 이야기' 공연 모습.

"어려운 친구들 돕자" 음성공양

음악극 '나의 작은별 …' 등 큰 호응

'소년소녀가장돕기 제4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불교합창제'가 1월 27일 □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 어린이합창단의 '선법가' 합창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날 무대에서, 어린이합창단들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자며 고사리손 꼭 잡고 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 불교합창제 성황

이날 공연에는 광주지원 어린이합창단 외에도 안양 본원 어린이합창단이 특별출연해 합동공연을 선보였으며, 광주지원 청년합창단과 광주불교사암련합창단 등도 출연하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공생 공용 공심의 법을 아름다운 노래선율에 담아 선보였다. 특히 이날 합창제에서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선보인 음악극 '나의 작은별 이야기'와 '이빠들에게 보내는 노래' 등은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합창제에는 광주사암련회장 벽상스님, 무각사 광인스님, 신광사 경주스님, 법륜사 월인스님, 고재유 광주시장, 오주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일 광주시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불교영화 '동승' 사찰순회 상영

3~8월까지, 일반극장선 9월부터

폭력을 전면에 내세워 말초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던 영화계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줄 불교영화 '동승'이 1월 27일 남산감독협회에서 시사회를 갖고, 첫선을 보였다.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조명하는 이 영화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뚫어 먼 길을 떠나는 동자승 '도념'(김태진 分)과 삶의 과도기에서 갈등하는 젊은 스님 '정심'(김민교 分)의 이야기가 중심 틀을 이룬다. 이 틀안에는 기쁨과 슬픔, 이별의 아픔 등 오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성을 향한 동자승의 가슴 저민 그리움이 화두처럼 영화의 밑바닥에 깔리어, 새로운 인연의 고리를 엮어나간다.



◇영화 '동승'은 인간 고뇌의 해결과정을 수려한 영상과 함께 그려낸다.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되는 온갖 번뇌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는게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다. 동승역의 김태진 군의 그리움에 몸서리치는 자연스런 연기가 안동 봉정사와 순천 선암사, 진부 월정사 등 산사의 수려한 풍광과 더불어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삭발한 108명의 어린이들이 불가에 입문하는 장경과 1백명 스님들의 바라춤 장면은 불교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하지만 포경수술을 하겠다고 주지 스님께 서너 차례 조르는 장면, 상상 속에 잠시 나오는 정사 장면 등 몇몇 장면은 인위적으로 삽입한 듯한 느낌이 커,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 '동승'은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대규모 사찰을 순회하며 선보인 뒤, 9월 경 일반 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풍성하고 설 여유롭게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마당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가까운 문화현장을 찾아 평소 접하지 못했던 우리 전통문화와 전통놀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모처럼 풍성하고 여유로운 설 연휴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경복궁 덕수궁을 비롯한 서울 시내 4대 궁과 종묘, 14개 능·원 등 사적지 23곳과 국립박물관(10개 지방박물관 포함)은 설 연휴기간(10~13일)동안 한복 착용자 및 말띠 해 출생자에 대해 무료 관람의 특혜도 준다. 또한 지방의 경우도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 주관 아래 항토색 짙은 민속행사들을 마련한다.

곳곳서 문화마당… 말띠·한복입은 사람 고궁 무료입장

●국립국악원 설 특별공연 '휴(休)' = 국립국악원은 12일 오후 5시 예악당에서 설맞이 특별공연 '우리 소리 안에서 쉬다-휴(休)'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산조의 형식인 만(慢)·중(中)·삭(數)의 흐름에 맞춰 현대인형극회의 즐인형 놀이 '사물과 엿장수',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정악단의 '화·연회대·처용무 합설', '설북춤'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02)580-3042.

●인사아트센터 '농산품-예술품 만남전' = 벤처 농산품과 예술품이 한데 어울리는 이색 전시회 '벤처농업과 문화벤처의 만남전'은 13일까지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정情'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석류와 밤이 분청 그릇에 놓이고, 전통주가 도예 작품에 담기는 등 예술품과 농산품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과 공간을 연출한다.(02)736-1020

●정동극장 '설날맞이 전통예술무대' = 정동극장의 '설날맞이 전통예술무대' 공연은 9~13일(월요일 공연없음) 오후 4시 열린다. 정동극장 예술단이 출연, 우리 전통예술의 신명나는 가락과 춤사위를 펼쳐보일 이번 공연은 부채춤, 산조합주, 관굿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02)773-8960.

●국립중앙박물관 '설 문화행사' = 국립중앙박물관은 '괄소재 문화재 찾기' '문화재 퍼즐놀이' '12지신상 스탬프찍기 및 탁본뜨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지방박물관도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의 전통민속놀이 마당을 연다.(02)398-5077

●국립민속박물관 '설문화 풍속전' = 국립민속박물관은 '설문화 풍속전' '새 천년의 역군, 힘과 희망을 주는 말 전시회' '한국의 술과 떡의 미학전' 등 전시회와 '떡국 먹고 설쇠기' '새 희망을 담은 입춘첩 써주기' 등을 마련한다.(02)720-3138

●한옥마을 '설날 큰 잔치' =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은 '임오년 운수대통 남산골 설날 큰잔치'라는 주제로 연날리기 대축제, 차례상 차리기 강좌, 가래떡 만들기 행사,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재수굿 한마당, 가훈 써주기를 개최한다.(02)2266-6937

●한국민속촌 '설날 문화행사' = 한국민속촌에서는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큰굿 한마당'과 '장승제' '정초고사' '소원성취 소지올리기' 등을 비롯 널뛰기, 줄타기, 지신밟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031)286-2111

●삼청각 '설 특별 행사' =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는 설 당일날 북청사자놀음과 널뛰기 시연을 갖는다. 또 9~17일에는 월드컵 마스코트와 축구공, 숭례문 등 문화재를 얼음으로 조각해 앞마당에 전시하고, 이순신 장군의 '전쟁 신호연' 등 방패연 33점은 9~26일까지 선보인다. 무료입장.(02)3676-6789

●운현궁 '무료 복조리 나누기 행사' = 서울 운현궁에서는 연휴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손으로 만든 복조리를 나눠준다.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걸어놓는다는 '야광귀체' 등 세시풍속 놀이도 경험할 수 있다.(02)766-9090

문화 담당= 이은자 기자 ejee@buddhapa.com

송암 스님 유작음반 출시

상주공권 1~5집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였던 故 송암스님의 유작 음반 〈상주권공(常住勸供, 1집~5집)〉이 나왔다.

이번 음반은 지난해 선보였던 유작 음반 〈영산〉에 이은 것이다. 음반에 수록된 곡은 송암스님이 1968년부터 73년 직접 릴녹음기를 작동하여 녹음한 릴테이프와 동주스님(서울 대방동 홍원사 주지) 소장 릴테이프, 불교음악연구소장 법현스님이 채록한 테이프 등에서 〈상주권공〉 부분만 발췌하여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상주권공'이란 일상적으로 항상 재(齋)를 올린다는 의미이다. 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영산재나 각배재 절차 구성 형식을 1일 권공의식으로 예경하는 것이다.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상단권공·신중퇴공·관음시식 전시식·봉송의식의 8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음반에는 상단 권공 홋소리와 관음시식 절차의 안채비소리, 신중작법의 반짓소리, 시련시 사용되는 짓소리 보례 순으로 담았다.



춤禪 이렇게

동산불교대, 발표회

동산불교대학 우리춤과 학생 20여명이 1월 31일 불교대학 3층 법당에서 '춤선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무대는 지난 1년 동안 이애주 씨(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보유자)의 지도로 갈고 닦아온 춤 솜씨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리춤선' '우리춤기본' 등을 선보였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법써 '2월로 접어들었다. 포근한 바람결에 한 생각이 아련히 묻어날 땐, 고려 말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82) 스님의 게송 '봄바람'이 떠오른다. 보우 스님은 중국 석옥청공(石屋淸珙) 선사의 법을 잇고 동국(東國) 임제종의 초조가 됨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宗祖)로 받들어지는 분이다.

봄바람이 영원을 노래한다 (春風吹太古)
부처와 조사와 산하를 (佛祖與山河)
입도 없이 삼켜버렸다 (無口悉呑却)

봄바람이 구멍도 없는 피리를 통해 부는 소리를 듣고 태고의 시간이 살아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인생에서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루하루 좋은 날 중에 한 순간도 헛되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없겠지만, 우리는 세파에 쫓겨 목석처럼 무감각하게 그저 시간을 죽이고 킬링 타임 있을 뿐이다.

꿈속에서처럼 명하게 보내는 일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릿 보이는 세계를 뚫고 나타나는 것. 들리지 않는 소리(音)가 눈에 잡히는(觀) 신비. 가늘게 떠는 가지 끝에서 영원의 노래가 묻어 나오는 기적. 실재계가 현상계를 뚫고 드러나는 이 환희를 어떻게 체험해볼 수 있을까?

태고 보우의 '봄바람'

세파에 쫓겨 무감각하게 시간을 죽인다

발단을 버리고 본질에 대해 천착함으로써 현실의 이면을 접촉하는 기회를 얻으려면, 예를 들어, 책을 읽지만 말고 직접 글을 써보아야 한다. 음악을 들지만 말고, 직접 악기를 다뤄보아야 한다. 그림을 감상하지만 말고, 직접 그려보아야 한다. 예불에 참여하지만 말고, 직접 가부좌를 틀고 앉아보아야 한다. 물을 마셔보지 않고 어떻게 물맛을 알겠으며, 직접 부딪쳐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계를 엿볼 수 있겠는가?

현상 속에 드러난 실재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일반 사회인들에게 관안한 객관적 감상자의 자리를 버리고 험난한 주관적 수련자의 자리에 서보라는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분야를 선택하여 그것을 돌고 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그처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행복과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한가지에 몰두하여 삼매에 드는 시간은 찰라 같이 짧지만, 우리에게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 힘을 준다.

인간이 성장할 때는 쌓아가야(一日一益) 하지만, 성숙해지려면 덜어가야(一日一損) 한다. 삶이 좀 단순해지면, 할 일이 보이는 법이다. 어느 한 가지 예술이든, 참선이나 염불이든 하나를 정해 정진하자. 그러려면 지금까지 거머쥐고 있던 많은 것을 놓아야 할 것이다. 그 한 길(道)을 걷는 것이 바른 인생이 아닐까.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봄바람이 영원을 노래하는 그 인생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에서 그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또 얼마나 긴 역겁을 기다릴 것인가.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만월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등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멸주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 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 등 절계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연꽃집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접착형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아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불교근세 백년'

강석주·박경훈 공저

"일제 불교침탈 대응 졸렬했다"

사찰령·본말사제 수용 신랄 비판
근세한국불교 100년 교단사적 정리

지은이는 말한다. 1600년의 한국불교사에 불교가 국가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적은 없었다. 심지어 조선조 5백 년의 불교정책 속에서도 교단은 자율적 규제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항상 계율을 중요시했고 계율을 어긴 자는 창피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일제의 사찰령 이후 불교 교단은 세간법에 의지하는 습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간을 뛰쳐나와 불법을 닦고 깨달아 세간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승려들이 도리어 세간법에 의해서 자기를 처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은이는 먼저 승려도성출입해금과 관련 한국불교의 졸렬함을 지적한다. 당시의 스님들이 종교침략의 술책인 줄도 모르고 승려도성출입해금을 반겼을 뿐만 아니라 승려도성출입해금을 건의한 일본승려 사노에게 감사장까지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몇몇 스님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앞다퉈 사노에게 감사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성 출입을 풀어준 황은에 보답한다며 한일승려합동무차대법회까지 열었다. 지은이는 이것이 바로 한국불교계 안에 친일의 뿌리가 내리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개탄한다.

이밖에도 지은이는 사찰령, 본말사제도 등 근세불교 100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종교침략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불교는 어떠했는지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한국불교를 개혁하려는 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항일투쟁사, 불교정화운동 등에 대한 평가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눈 밝은 독자가 아니더라도 승단 내의 문제를 타력에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끝 부분에는 실려 있는 '근대불교사의 성격과 전개' '일제하의 친일불교' '근대불교의 승직제도' 등 3편의 논문은 근세불교를 이해의 길라잡이로 삼을 만하다. 값 8천5백원.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일본 승려 사노에게 승려도성출입해금에 대한 상순 스님이 <조선불교월보>에 기고한 글.

法類兄弟의게 願祝홈

越邦頭陀 崔 奭 璇

楚山에 埋玉을 和氏가 先發케 ᄒᆞ얏스며 孤竹에 留骨을 伯樂이 超羅케 ᄒᆞ야 於世界上에 第一 重寶物이되는 줄노 於子 感歎에 써 奚疑ᄒᆞ 遺傳ᄒᆞ얏거든 況 玉理 重道가 世界를 公益ᄒᆞ며 人民을 普利ᄒᆞ는 者ㅣ 됨에 未伸ᄒᆞ며 默而 未思ᄒᆞ 理가 有ᄒᆞ리오 大抵 佛敎의 大旨 願은 普欲令衆生으로 同得此道케 ᄒᆞ려 ᄒᆞ는 本於 無窮世界에 其無窮ᄒᆞ 人民으로 ᄒᆞ야곰 無窮ᄒᆞ 普利樂을 受케 ᄒᆞ려 ᄒᆞ심이라 故로 其無窮ᄒᆞ 色身을 現出ᄒᆞ시ᄃᆡ 王候將相과 大富長者와 士農工賈와 乃至 外道邪人과 出家沙門에 種種形色으로 其國土 人民을 示敎利喜ᄒᆞ시ᄂᆞ니 大哉라 天皇陛下之聖德이시여 當今 國土를 維新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해 온 루이스 랭카스터(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 명예교수가 1월 27~29일 한국을 찾았다.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세계전자문화지도협의회(ECAI)의 서울대회(6월 22~24일) 준비를 위해 방한한 랭카스터 교수는 1월 2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서구에서 동북아시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같은 동북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국 불교는 중국이나 일본 불교에 비해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ECAI 서울 대회가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96년 랭카스터 교수의 주도로 설립된 ECAI는 문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단체로 전 세계 21개국 80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전자지도 위에 역사나 문화, 문화재 등의 인문 자료를 구현해 내는 전자문화지도는 각 나라별로 37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정도로 세계적 추세다.

"한국불교 알리는데 의의 불상 등 표준화 큰기대"

ECAI서울대회 준비차 내한 랭카스터 교수

랭카스터 교수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은 이제 일상화된 일이지만, 이를 자료들에 접근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며 "ECAI는 각종 문화 자료들을 표준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서울 대회에 대해 랭카스터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가진 한국이 표준화 작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한국 불교를 알린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한국불교는 중국이나 일본 불교와는 다른, 나름의 종교적 전통을 지켜왔다"며 "특히 불상이나 불탑 등 미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온 만큼 전자문화지도 사업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 목록을 발행해 고려대장경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랭카스터 교수는 〈불교의 한국 전래〉 〈통일기의 불교〉 〈한국 불교 경전〉 〈고려불교-국가종교〉 〈조선불교-억압과 변혁〉 등을 펴내는 등 미국내 한국 불교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지견 박사 1주기

'화엄사상과 선' 발간



◇1997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유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슈미트 하우젠 교수와 담소를 나누는 생전의 김지견 박사 모습.

금강선원서 추모법회

한국 화엄학의 독자성을 밝히는 데 평생을 바친 故 장봉 김지견(1931~2001) 박사의 1주기를 맞아 그를 기리는 그의 논문집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민족사(사장 윤창화)는 김지견 박사 추모 1주기를 맞아 대표적 논문 16편을 모은 〈장봉산고(莊峰散稿) 화엄사상과 선(禪)〉을 최근 출간했다. 1997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정년퇴임할 때 기념 논총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논문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집은 생전에 발표된 논문을 모두 모은 것은 아니다. 제목에서 보듯 화엄사상에 관련된 대표적 논문을, 연구 대상이 된 인물 중심으로 엄선했다.

이는 김 박사가 '해동 화엄의 선구자'로 불릴 정도로 생전의 연구 활동이 문헌학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한국 화엄의 독자성을 밝히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신라시대 의상 스님에서부터 고려시대 균여·지눌 스님을 거쳐 조선시대 도봉·유문 스님과 김시습에 이르는 의상 스님 계통 화엄 연구의 선구자였다.

김 박사는 특히 지난 77년,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펴낸 〈균여대사화엄학전서〉에서 일본의 화엄종이 종래 일본학계의 주장처럼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신라에서 전해졌음을 밝혀내 일본학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논문집 첫머리에 실린 '신라 화엄학의 계보와 사상'은 바로 신라 화엄학에 대한 통설을 뒤집은 논문이다. 원효계가 주류로 인식돼 오던 당시 학계에 의상계가 신라 화엄학의 주류임을 밝히면서, 의상계 인물인 심상이 일본에 화엄을 전해준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의상의 법휘고(法諱考)'에서는 의상 스님의 한자 표기가 일반에 널리 쓰이는 것처럼 '義湘'이 아니라 '相'자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증명해 냈다.

선과 화엄의 관계는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적대 관계 혹은 우열관계가 아니라 상의상자(相依相資) 관계임을 보조국사 지눌을 통해 밝힌 '지눌에서의 선과 화엄의 상의', 의상계 해동 화엄의 사상이 조선시대 생육신의 한 사람인 설잠 김시습에게 이어졌음을 밝힌 '설잠의 화엄과 선의 세계' 등 의상계 화엄의 전통과 특색을 밝힌 논문들이다.

이밖에도 '해동사문 원효상 소묘' '조소묘찬 신라국 원효대사전 병서' '의상전 재고' '신라 의상 〈백화도장발원문〉 체원 약해의 보주현토' '사문 도선상 소묘' '균여전 재고' '〈법계도원통기〉의 텍스트 재고' '보조국사의 화엄관 소묘' '경허당 산고' '정주사산비명 발견기' '선 문헌연구' '경황단경 수상 노트' 등의 논문을 실었다.

한편 김 박사가 타계한 지 1년이 되는 7일(음력 12월 26일),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선원장 혜거 스님)에서 1주기 추모 법회가 열린다.

김 박사가 77년 설립한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을 계승한 한국전통불교원장 혜거 스님은 논문집 간행사에서 "박사께서는 일본 유학시절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문학학술상을 받을 정도의 석학이면서도 후학을 위해서라면 아낌이 없었다"고 김 박사를 회상했다. ☎445-8484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일본 화엄종 신라통해 전래" 밝혀

종래 "중국서 전해졌다"설 뒤집어

"바둑전파 불교가 결정적 역할" 김성래 교수 논문



"바둑은 불교와 함께 들어왔다." 바둑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결정적인 매개체로 작용했음을 밝혀낸 논문이 발표됐다.

프로 바둑기사인 김성래 2단(명지대 바둑학과 겸임교수·사진)은 최근 통과된 명지대 교육대학원(역사교육) 석사 학위논문 '한국 고대 바둑 보급에 대한 연구'에서 "바둑은 불교를 매개체로 승려들을 통해 중국에서 삼국(한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보급되어 갔다"고 주장했다.

김 2단은 〈삼국사기〉나 〈양 고승전〉 등 바둑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 사료들을 검토한 결과 주로 귀족과 승려 계층에서 바둑이 두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 2단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삼국시대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해당하는데, 당시 중국은 노장 사상의 영향으로 승려 사회에서 바둑이 성행했다. 김 2단은 "고구려를 왕래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스님들 중에는 당연히 바둑을 아는 스님들이 있었을 것이며 이런 경로를 통해 바둑이 고구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2단은 나아가 "백제도 동진과 불교 교류가 있었음을 볼 때 바둑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고, 신라 역시 고구려 승려나 양나라의 승려 등을 통해 바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함으로써 발전해 갔는데,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바둑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김 2단의 결론이다.

김 2단은 "일본 동대사 정각원에 전해 오는 바둑통 위에 보이는 코끼리와 연꽃 문양 또한 이 시대 바둑이 불교와 밀접한 관계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학술단신

불교학 연구회 겨울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스님)는 6~7일 전남대 수련원에서 겨울 워크숍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교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중관학의 현황과 과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불교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과 기무라 키요타까 전 동경대 교수가 발표하고, 김성철(동국대), 이중표(전남대) 이태승(위덕대) 교수 등 7명이 '중관학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2260-3128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23일 오후 1시 동국대 만암 세미나실에서 제43차 학술발표회를 연다. 인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이 '신회, 종밀'을, 이덕진 고려대 강사가 '보조, 양명학'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733-5315

高僧 다시보기

무학 대사

무학자초(無學自超, 1327~1405) 스님은 이성계의 조선 창업을 도와 한양을 왕도로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도만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경남 합천이 고향인 무학 스님은 1344년 18세에 송광사에서 출가해 용문산에서 당시 유행하던 임제선풍을 체득했다. 그 후 원나라 북경의 법원사에 머물고 있던 지공 스님과 나옹 스님에게 법을 사사받음으로서 삼화상과 인연을 맺었던 고승이다.

스님은 1356년에 귀국하여 양산 원효암에서 나옹 스님으로부터 불자를 받고 송광사에서 의발을 전수받았다. 나옹 스님이 주관하는 회암사의 불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회암사 불사가 중단되고 나옹 스님이 입적하자 스님도 명산대찰을 유력하며 두 스승의 추모불사를 법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였다. 그러던 중 안변 석왕사 토굴에서 이성계와 조우하여 혁명을 종용하였는데 이는 성리학계를 대표해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혁명을 종용



◇신륵사 무학대사 진영.

"'행함' 중 영아행이 제일" 강조

입적 석달도 안돼 강한 억불책

한 것과 비견된다.

조선 건국 직후 스님은 천태종의 조구 스님과 더불어 마지막 왕사와 국사에 책봉된다. 때문에 스님이 생존해 계실 때만 해도 억불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고, 불교계에 중요한 시책 역시 이 때 이뤄지고 있다. 고려말이래 신진사류들이 억불운동을 펼치는 데 도화선이 되었던 연복사 5층탑의 낙성식을 주관했으며 광명사에서 법회를 주관하면 매일 수 백명이 모여들기도 했다. 스님은 회암사가 삼화상의 터전이 되게 하였으며 조파를 확정하여 〈조파도(祖派圖)〉를 지었다. 삼화상의 부도가 회암사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스님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를 재편하고자 했다. 또한 회암사에 머물 때는 당시 태상왕이던 이성계에게 불교를 보호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스님이 입적하자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한국 역사상 가장 심한 억불시책이 시행된다.

스님은 8만 가지의 행함 가운데에서 젖먹이 행인 영아행(嬰兒行)이 제일이라고 강조했다. 평상시엔 아이 같다가도 안목을 갖춘 이를 만나면 화살과 칼날이 부딪치듯 버티었고, 옷 한 벌과 바릿대 한 개로 지냄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존숭함이 상대가 없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서 선각(禪覺, 나옹)의 적통이요, 태조의 스승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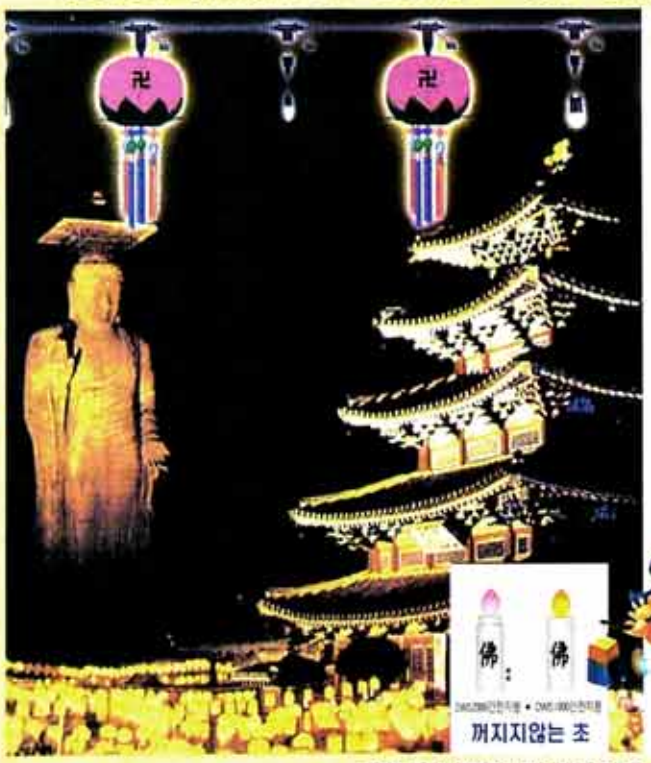
조선 초이래 지금까지도 사찰의식에서는 지공·나옹·무학 세 스님을 가장 존경하여 받들고 있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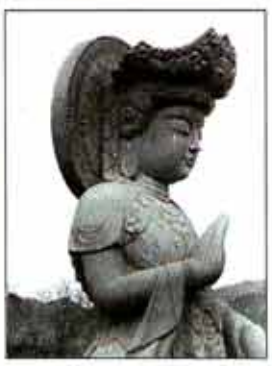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 2266-2634
(02) 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일체 만물만상이 다 나의 스승

공부가 여일하게 되려면…

문 저는 신심을 내서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하는데 공부가 여일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가 여일하게 되어질까요. 가르침 바랍니다.

답 옛날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군요. 결제가 시작되면 스님들이 한 절에 모여서 참선을 하든가 경을 읽든가 하다가 해제가 되면 나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제가 돼서 다들 들어왔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왔느냐?"하니까 전부 무슨 경을 읽었다, 무슨 경을 읽었다 하는데 한 스님만은, "저는 잠자고 밥 먹고 똥 싸고 있었습니다."하거든요. 똥 싸고 밥 먹고 잠잤다고 하는 말에, "이놈! 공부도 안하고 그렇게 잠만 자고 똥만 싸고 했으니 너는 부목이나 해라."하고는 불 때는 데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패서 주지 스님 방에 불을 때느라고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이 스님께서 노래를 했답니다.

벌이 어쩌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건 입산한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가서 유리가 반사되는 거를 보고 그것이 문인 줄 알고 자꾸 입으로 거기를 쪼니까 고만 입이 뭉그러져서, 몸이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더라. 그게 아니라는 말을 떨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떨어지니깐 입도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니깐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사량으로 책을 보고 이론으로만 알고 하다가 이 몸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고 만다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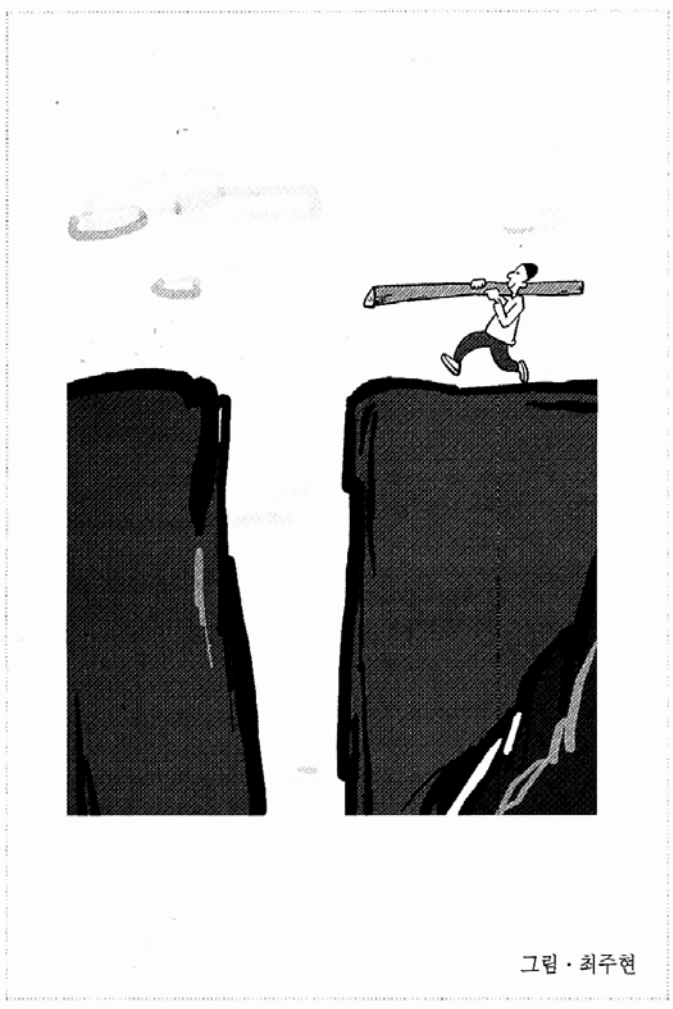
그러나 내면세계의 참나를,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맡겨 놓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내 참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사량적인 마음으로 물질을 보고 글자 풀이를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진짜 금강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을 읽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누가 읽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스승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

문 항상 같이 하시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행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스승님과 마음으로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도 예전과 다르게 그 마음이 더욱 가득하고 벅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만큼 강하게 그 자리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놓고 가고 하였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하게 와서 저절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고 마음이 항상 향하게 되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늘 생소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는 게 부처님 법이자 우리의 진리니까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네 법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자기 자성을 깨우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계실 당시에 아픈 사람이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참 애를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 병자가 보고 싶어하니까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병자 집을 찾아오셨어요. 병자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부처님이 오신다 하니까 일어나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뚱이가 일어나면 뭘 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둘 아니게 생각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만이지, 몸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네가 네 자성을 안다면 내 자성도 너와 둘이 아니니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러니 이 고기 덩어리를 믿지 말아라! 고기 덩어리한테다 절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보고 싶었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대로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림 · 최주현

그렇듯이 우리가 '주인공!' 하고 관할 때는 벌써 공심으로 맡기는 겁니다. 공심에다가. 즉 자기 마음을 더불어 같이 첨부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과 역대 조사님들의 마음, 내 마음과 중생들의 마음까지 다 거기에 한데 합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 하고 하나로 모으면 그 뜻으로 '여기는 모든 스님네들이나 부처님이나 중생들이 다 포함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따로 모습을 구하고 법을 구한다면 언제 마음의 주인이 유무를 둘 아니게 자재하여 이끄는 그 경지를 다 알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착없이 사랑하려면

문 스님,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있지나 않은지 되돌아 보게됩니다. 하지만 집착과 바램의 구분이 무척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에게 하루살이로 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모두 말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자식을 사랑해.' 누구나가 그저 만나서 좋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랑도 참나 사랑이 돼야지 착을 두고 사랑을 한다면 그릇이 비워지지를 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 해요. 마음도 참나로 전하면서 끝없이 연결되는 원인이, 참나참나 만나고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건 무심(無心)의 도리이고, 말과 말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건 유심(有心)의 도리예요. 무심과 유심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둘입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속일 수가 없지만 말로는 속이는 게 많다는 얘기죠. 하지 못할 말이 많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은 진짜로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하고 돌아가는 일과, 내가 말한 거를 전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마음이 바로 우주 천지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만물과도 서로 직결이 돼 있고 일체제불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마음으로 속이려고 해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게 받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나의 사랑, 참나의 행,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묘한지 여러분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 도리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얼른 쉽게 말해서 "내 모습, 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운다면 내 주장자와 네 주장자가 둘이 아니니라. 그래야 만이 내 주장자를 참나에 너를 줄 수도 있고, 참나에 네 주장자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고 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참나에 통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만사가 어지러운 것 같지만 아주 간편합니다. 내일 걱정, 어저께 걱정, 오늘 후회, 어저께 후회, 앞으로 살아나갈 걱정을 하느라고 모두 야단들인데 사실은 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참나 생활로 살라고 하는 건 정말이지 영원한 삶을 갖다 주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자식지간에도 참나 사랑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대해 주고, 서로를 만날 때 둘이 아니게 진정으로 자비로써, 만나도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야죠? 거기다 착을 두면 진짜 사랑을 영원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공 뿌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푸르르게 살려면 다 뿌리에다 맡겨라. 뿌리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가장구나 이파리는 위의 모든 에너지를 또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서로서로 상응하면서 푸르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나무 뿌리의 이름을 찾거나, 다른 나무의 형상을 믿거나 한다면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복으로 한다면 에너지가 다른 뿌리에서 내 뿌리로 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내 나무의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낼 수 있지만, 이름과 형상을 밖으로 찾아 헤매다 보면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달마 대사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나무가 향나무를 찾으면서 "향나무여!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에너지를 좀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향나무에서 자기 소나무로 에너지가 전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 나무의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위해서 올려보낼 수 있죠. 그런데 잎새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뿌리에 매달려서 살면서도 뿌리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무시한다기 보다는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못 믿어서 그렇죠. 뿌리만이 나무 전체를 살리고 있다는 거를 못 믿어서요.

먼저 들어왔고 나중 들어왔고, 먼저 배웠고 나중 배웠고 이걸 떠나서, 진짜 물리가 터져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면,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 둘이 아닌 도리에서 체험을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에는 꼭 다녀야 하나요

문 저는 인터넷으로 스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칭하는 '깨달음을 얻은 자'의 가르침만이 참된 가르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말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바다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듯이 그들의 말에 실수가 있다면, 길을 묻는 많은 사람들이 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가급적 스님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선원에도 나오고 스님들을 만나서 질문도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꼭 선원에 가야만 마음공부가 되는지요?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고 직접 시도해보는 것과 절에 가는 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절에 가면 강한 자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지요?

> "마음 서로 통하면 너와 내가 둘 아니다"

제 나무 뿌리만이 자기 도울 수 있어

답 어린애가 처음에 발걸음을 떼어 놓을 때가 되면 천방지축 걸어가려고 하죠. 그럴 때 그 어린애가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뛰어가지는 않겠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내가 발걸음을 떼어놓는다는 기쁨에만 그냥 뛸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쩌나, 잘못돼서 넘어지면 어쩌나, 구덩이에 빠지면 어쩌나, 잘못되면 식구가 다 죽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의해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마음이라는 건 우선적입니다. 내 마음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바로 경계가 나옵니다. 바깥으로 작용이 나오고, 작용이 나오면 어떠한 경계가 완전히 나타나죠. 망하든지 흥하든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유스럽게 쓰는 그 마음씨가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의 적합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크고 작고가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 내 마음이 스스로 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어린애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모두들 관습이나 습관에 젖어서, 고정관념에 젖어서 영 움츠리고 뛰질 못해요. 여러분이 이론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는 겁니다. 이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한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뿐이고 작용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진실로 한 발짝 떼어놓고 행을 하는 것이 문제지, 아무리 말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를 진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다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걸 보고 좋아하면서 "아하, 저것 참 묘하게 생겼는데"하고 쳐다본다면 그것도 스승인 것입니다. 발부리에 돌이 채여 아파서 "아이구 아퍼" 할 때에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채여서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스승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깨달았느니 깨닫지 못했느니 하면서 무시를 해요? 그렇게 돌로 보는 마음으로는 저승세계를 둘 아니게 넘나들 수가 없어요.

일체 삼세의 부처님의 마음과 또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 돼 준 까닭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행동 하나 실천 한 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므두가 스승이 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것이든지 업신여기고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고 때로는 깔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모두가 생명이 있는 거고, 모두가 마음들이 있는 거고, 모두가 삶이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법이 따로 높게 훌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훌륭하게 해나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한번 나왔으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걷고 있는지, 어디로 가느라고 걷고 가는지 그것쯤은 알아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중생세계의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넓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이런 저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생각을 발전시키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생각을 내지 못해서 마음의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고 보고 행하고 그 뜻을 넓혀서 항상 물리가 터지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 찾으라고, 내 뿌리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절에 안 가도 되지"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한 번 오면 두 번이 느껴지고, 두 번 오면 여섯 번이 느껴집니다. 밝은 마음이 생기고, 또는 지극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 뿌리를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자생중생들이 나라고 생각해 온 그 모습이 진

☞ 18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성 믿고 의지하며 뛰어 넘으세요

☞ 17면에서 계속

짜 나가 아니라, 나를 이끄는 주인이 참 나라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고 밝아진다면 진정으로 남과 나를 다 벗어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문 열심히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법우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가다 보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숙제 검사를 할 때나 무슨 시험을 보고 이럴 때면, 숙제 같은 걸 제대로 못했거나 시험 문제가 아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기에 그런 꿈이 꾸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근본을 진짜로 믿고 싶은데 진짜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지금 법우님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우님 모습이 아닌 참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빼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법우님의 모습이 산다고 생각을 하지 모습 아닌 진짜 내가 산다는 생각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진짜 나라는 걸 빼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놓치거나 모르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시험을 봐도 그걸 빠트리곤 하는 거죠. 자꾸 일러주는데도 왜 믿질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가 달려 있죠? 뿌리가 달려 있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말없이 그냥 붙어 있다구요.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싹은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싹은 이파리가 겨울에 다 떨어져도, 떨면서도 또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뿌리가 옷을 입혀줄 거다,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줄 거다.' 하고 말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거요.

진짜로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까운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로 믿는다는 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러는 거지 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믿는다고 그러고 주인공 부르고 매달리고, 또 좀 편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흐지부지해 버리고 이러는 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한 구멍을 뚫어서 공(空)마당을 만들고 자유스럽게 공을 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근본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내가 곧 불성이니까 그 불성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불성은 나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뛰어넘으세요.

왜 가슴에다 놓으라 하시는지

문 좌선을 할 때 집중적으로 관을 하게 되면 모든 생각들이 머리로 올라오는데 머리에 집중해서 하다보니 상기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단전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가슴을 짚으시면서 가슴에다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가슴에다가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어디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전이다 어디다 한다면, 그래서 호흡을 돌리지 않으면 혈이 돌지를 않아요.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빠지질 못해서 머리로 나오거나 옆구리로 나오거나 등뒤로 나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놓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우주 한 가운데라고 볼 수밖엔 없습니다. 그게 정수입니다. 정수 한 바다 가운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 한 것은, 가슴은 수시로 들어가면 돌아서 나가는 데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가슴을 고정시켜서 놓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뭐가 부착돼서 거기다가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가슴이 기준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기준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기준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기준이 돼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몸뚱이 한 군데도 빼 놓을 게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몸과 더불어 하는 것을, 움죽거리고 하는 것을 전부 종합해서 '공하다' 고 한 겁니다. 그러니깐 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것은 그건 길을 가기 위한 이름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눈이 따로 없고, 코가 따로 없고, 입이 따로 없고, 귀가 따로 없고, 머리가 따로 없고, 가슴이 따로 없고, 심장이 따로 없고, 발이 따로 없고, 손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이 한데 합쳐진 것이 공한 것이니까요. 내가 공한 것을 알면 대천 세계의 공한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공(空) 자리에다가 놓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놔라 이겁니다. 그 모든 게 공이니까. 눈도 공이지, 코도 공이지, 입도 공이지, 귀도 공이지, 머리도 공이지, 몸뚱이도 공이지, 발도 공이지, 손도 공이지 전부 공입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공이 아닌가. 손이라고 해서 만날 한 가지 일만 하나요? 하는 일을 보면 수효가 많아서 말도 못하죠? 너무 여러 가지가 돼서, 그래서 모두 공이에요. 나 하나가 공이기 때문에 전체가 공이고, 전체가 공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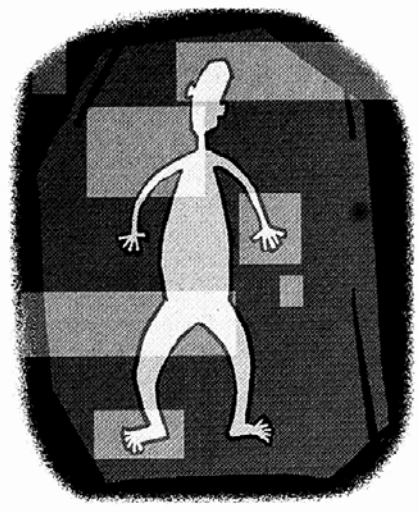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식에 억만금 남겨주는 것보다 근본을 믿고 관할 수 있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는 반면에 한생각을 잘못해서 걸려서 돌아간다면, 자꾸 '내가 한다' '너를 줬다' 한다면, 본래부터 공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그냥 그건데 '줬다 한다면 또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준 사이도 없거든요. 놓고 가는 거니까요. '받았다' 한다면 그것도 걸리는 겁니다. '줬다' '받았다'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하루 24시간 살아나가는데, 내가 했다고 하고 모든 걸 하다 보면 걸리는 수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매듭을 짓기는 쉬워도 매듭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든지 그렇게 짓지 말고 그저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허탈하게, 허무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참 다웁게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저 공자리에 놓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믿어야 놔지지 믿지 않으면 놔지질 않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일임을 해?" 이런다고요. 그런데 놓으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힘이 안 들고 간에 지금 우리는 제일 값비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를 얻으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제일이란 말이죠. 이 공부를 참다웁게 한다면 죽어서 재생이 돼 가지고 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으면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지 않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엄벙덤벙 산다고 해서 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본의를 알기 위해, 또 실천하기 위해, 참 사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모든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도벽이 있어요

문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도벽이 있습니다.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해보지만 좀처럼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친구들로부터 외톨이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와 아빠가 자꾸 마음이 맞지 않아서 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자기를 다스리고 개발해 나가는 마음 공부를 안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나무라고 때리고 이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때리고 나무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마음으로 구슬리고, 그 마음을 섭섭지 않게 똑바로 말해주면서 관해주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이 갈 수 있어야 몸도 가지,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몸이 안 가요. 본래는 애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즉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온 유전의 문제나 인과성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억만 금을 남겨주는 것보다 그 자식이 스스로 자기 근본을 믿고 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는 자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러주세요. "너의 몸이 형성될 때 엄마 아빠로 인해서 몸은 태어났지만, 너의 생명력은 네가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나 그 생명력은 네가 가지고 온 거니까 그것이 지금 너 이전의 과거 부모, 즉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주인공,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걸랑 아예 그렇게 하지 않게끔, 아예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주인공 이끌라고 관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공부도 잘하게 해야 심부름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관하게끔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 친구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당신만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하고 관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도 자꾸 괴롭힌다면 아이에게 아주 소상히 일러줘서 납득을 하고 스스로 관할 수 있게 가르치세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관할 수 있도록요.

즉 말하자면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정신계의 자기를 믿는 거죠. 나무로 치면 뿌리가 되고, 타고 다니는 차로 말하자면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운전수가 자기지·차가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정신차려서, 아이도 정신차리고 그래야 얕으로 잘 살고 남한테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죄 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과상자에는 사과만 넣어요, 배 상자에는 배를 넣고요. 끼리끼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썩는 사람이나 그렇게 속 썩게 하는 사람이나 둘이 똑 같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거를 다 멸하게끔 자꾸 관하시고, 애도 관하고 이러면서 어린이법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스님네들이 보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조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져 버리면 돈도 생긴다 싶으면 없어지고, 쓸 만하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게 열심히 관하세요.

아이 탓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부모들이 이 마음 도리를 지극하게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식들을 이끌어야만 자식들에게도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또 그 자식들 스스로 자기 양식을 꺼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아이에게도 관하는 도리를 반드시 일러주시고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작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I. 기존의 「육임래정비법 개정 증보판」을 구입하신 분 께서 금번 「혁신판」으로 교환해 보기를 원하시면 710,000원을 입금하십시요. 새책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입금 구좌는 도서출판 복문에서 안내하는 본 신문 광고에 있습니다.
이책의 신통함은 이미 검증 되었을 줄 믿고, 더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II. 금번 한국육임학회에서는 본회 총재이신 효사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육임학당 효사숙을 개설하여 육임학의 소수 정예화를 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강습기간 : 2002년 2월 15일부터 3개월간 12주
- 강습시간 : 매주 3시간 (36시간)
- 강습날짜 : 매주 화 금요일 중 택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 강습정원 : 매 기(期) 30명
- 등 록 비 : 매 기(期) 100만원(선납)
  주택은행 542701-01-044676
  이수동 · 육임학당
- 등록기간 : 2002년 2월 5일까지
  지방에서 통학 하실 분은 강습 당일 밤 유숙 가능합니다.

※ 참고로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공부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장소 안내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 강북 구청 왼쪽 옆 건물 일심빌딩 4층(육임학당 효사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 출구
문의 전화 : 효사숙 02-998-8683
사무국 02-826-0179

권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권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행자스님, 처사님 (기도하실 분) 함께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행자 모심
고졸이상 40세 미만
대학원까지 학비 후원 함
02)917-3363

비구, 비구니 스님 신심있는 보살님, 처사님 50세이상 조용한 암자에서 기도하면서 가족처럼 평생 함께 사실 분 모십니다.
▶산세우렁하고 물 최고 좋은 곳
017)708-0635

고급 보이차
廣雲貢餅 · 七子鐵餅
外 각종 보이차 전문
017)406-6682

조계종 미륵당 고불사
• 석조여래 약사대불 본당
• 서울교당 불지촌
• 기체험 기치료 인생상담
041)566-0358
02)3444-4376
역학, 선체조, 기공문도 모집
www.bulljichon.com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봉고기사 모집합니다.
051)542-4630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급 구함
신심있고 기도하면서 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강사
055)932-5706
011)558-5706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무도 같이 보실 분
02)487-8500
02)475-860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해발600m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사실분 환영
054)535-0005

부전스님 구합니다
부산, 영도
011)416-3121
011)9678-2340

절에 계신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께서 초등학생(여자)을 키워주실 분은 연락주십시요
▶경상도 지역
016)811-6787

함께 기도하실 비구니 행자스님을 모십니다 (40세이하)
▶대구 송현동
053)627-2357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문의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 신입생 모집(3월 초) - 제 70기
- 도심속 7층 대법당, 최첨단시설(탁아방 있음)
- 정규반, 통신반, 인터넷반 -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서장 등
- 선착순 3천명(연령, 학력제한없음)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및 큰스님 특강
• 행자(예비스님)모집
- 행자 전문 도량 - 행자원 있음 (전통과 신교육의조화)
- 엘리트 스님양성 목표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 3월초까지 입방해야 수계를 가을에 할 수 있음.(조계종)

사찰 운영 하실 분
함께 기도하며 사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839-4165
055)882-4849

부전스님 모십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60세 미만
031)952-7905

각종의식, 불공 기타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꿈의 디지털 위성방송시대 개막 -
스카이라이프(Sky Life)
환상적인 화면! 140개의 채널 선택
유선방송보다 싼 월 18,000원 시청료
난시청지역 완전해결
가입비무료, 전화로 가입가능
02)424-9427
선착순접수에 따라 국제전화 95%, 시외전화 44% 이동전화 20% 할인 되는 전화기 무상지급 행사. 택배비 본인 부담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함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께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영식 10폭 남개병풍
* 폭 10자 * 높이 5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문답집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신에 쳐눈 희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취모검과 같이 예리한 지혜검의 휘두름, 근기에 응하여 모지람이 없는 자재한 답변에 묵은 갈증이 해소되는 통쾌함을 맛볼 것입니다.
전강, 경봉, 숭산, 묵산 선사님들과의 명쾌한 문답이 실려 있으며 중앙일보의 〈한국불교의 큰스님 선문답〉 열 분의 기사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별답을 함께 실었습니다.
☞ www.zenparadise.com
값 5,000원
☎ 02-522-0122 도서출판 바른불교

공양주, 부전스님, 행자님
원하시는 분은 문의바라며 조계종스님이 되시고 싶은분도 아울러 문의하여 주십시요.
당사는 의정부 근교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02)3491-4848
019)254-4883

사찰구함
신도많은 절 구함
전세도 가능 함
가능한 금액 1억미만
043)832-4785

신심있는 공양주를 구합니다 (부산)
▶사찰내에 거주 하실 수 있는 분
011)661-9119
031)865-4893

범패 모집과 사찰을 신도 중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찰부지 12,500평 중 대지 500평
사찰운영 중 범패 초급반 중등반 고급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가평 **명지산토종꿀**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명지산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100%
천연 토종꿀
※ 사실과 다를 경우 환불
031)582-5416
011)9724-5416
청봉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부지 : 55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강원(화천) • 법당 : 40평 • 요사 : 55평 • 부지 : 3,300평 • 가액 : 5억
• 위치 : 경북 의성 • 법당 : 12평 • 요사 : 4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7천 5백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북구 경보대학 100M 지점
• 평수 : 40평
• 전세 : 5백만원 월25만원
• 특징 : 동불 세불 봉황 칠성 기장보살님 모셔져 있음
051)341-8826
055)353-6209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100여평
• 법당 : 10평
• 요사 : 22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016)635-4569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50평 (3층)
• 시설 : 방 3칸 주방 1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 용안 지장 108불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특징 :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7)550-6581

포교원 급 안내
• 부산시 사하구 낙동로
• 평수 : 40평(4층건물 4층)
• 보증금 : 3천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 700만원(절충가능)
051)293-01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정남향, 목재 기화, 종교시설, 등기, 방 2개, 입식 부엌
• 대지 : 88평
• 특징 : 40년 교통, 주차편리, 인적 부지 매입가능, 중창불사 원력 있으신 분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879-4791
055)852-4130

포교당 안 내
• • 위 치 : 부산시내 (지하철역 300m)
• 대 지 : 74평
• 법 당 : 30평
• 양도가 : 1억 3천
※ 도심속 오래 된 고찰 임
• 위 치 : 서울 강북지역
• 법 당 : 3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조금
※ 역사 오래된 도심 포교당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5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6천
011)9756-4845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 사천 삼천포 10분거리
• 부지 65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 40평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 가액 : 2억
011)9528-1686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 용도 : 사찰 및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관악산 사당역 부근
• 자연녹지 주거지역
• 가액 : 평당 25만원
011)241-0408

지리산, 암자, 양도 또는 교환
• 경남 함양
• 준농림지, 건축허가 가능 지역 450평 (대지 120평, 과수원)
• 단층 스라브 1동 및 차고 창고
• 기타사항 지하암반수, 전기, 전화, 진입로포장, 국도변산속, 외딴곳, 전원주택도 가능, 기름 보일러
• 8천만원선 상호교환도 가합
011)836-1148 혜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7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절터 안내
• 마산시 진전면 700평 - 1억 3천
• 양산시 원동면 900평 - 1억 5천
• 양산시 하북면 650평 - 1억 2천
• 울주군 언양읍 28000평 - 3억 5천
• 울주군 상북면 14000평 - 1억 2천
• 기장군 철마면 400평 - 8천 (외딴집)
풍수적으로 뛰어난 곳만 안내하는
현대풍수부동산써브 018-563-9575
(www.pungsu-serve.com)

사찰터 및 납골당부지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장기면 근교
• 현황 : 1) 대지, 임야, 전 합 10,000여평 2) 대지, 임야, 전 합 4,000여평
• 특징 : <매봉산하 봉황자리> <봉황과 맹호 출림형> <사계절 맑은 계곡과 좋은 경관>
• 교통 : 포항시내에서 30분 거리 경주에서 1시간 거리 울산, 부산에서 1시간 30분 거리
• 가액 : 평당 10만원선 (답사 후 절충가능)
054)283-7551~2
011)854-4675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빌라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서 나만의 공간이되어 결방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300만원(절충가능)
043)832-1580
011)9770-1581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 1동
• 건물 : 4층 건물 중 2층 지장사
• 평수 : 85평
• 법당, 주지실, 종무실, 선방, 주방, 창고 1개(배란다 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 108불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에어콘, 주지실, 법당, 주방용품 일체 보시함
• 스님 급한 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500만원 월 75만원 권리금 4,500만원 절충가능함
017)737-4517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 해변
• 대지 : 64평 방 3 거실 1 창고 1 기름보일러
• 가액 : 답사 후 절충
• 경관수려 해안 인접
방에서 일출을 관망할 수 있는 정동향 조용한 수도처로서 전망이 양호 함. 등기필. 차량진입함
033)576-0959
011)687-6979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불교관련 전문 대출기관 -
● 사찰 매매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053)426-1037
011)527-1037
(서서열 전무)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 5분거리
• 평수 : 20평
• 요사채, 주방, 주차시설완비
• 특징 : 도심지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포교에 적합함(시설완비)
• 가액 : 2,500만원
011)213-5212
017)857-0903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43)832-1580
011)9770-15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근교
• 법당, 삼존불, 지장 108불 교통 및 조건 최적
• 평수 45평
• 큰방 2개, 대형 응접실, 주방
• 부산 포교적지, 사워시설 주차가능
• 전세 4,50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011)563-4454

포교당 안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6-5 팔달산 산책로 입구 삼존불 모셔져있음.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31)248-0435
011)9762-2286

원력이 크신 스님께 포교당 건물을 안내합니다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삼각로타리 부근)
• 3층 건물 중 2,3층 사용(160평)
• 시설비 : 현장 답사 후 상의
(함께 운영하실 분 환영합니다.)
011)507-77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 대지 : 1,000평
• 건평 : 70평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보증금 : 2천 월 150만원
• 임대도 가능,부동산 교환도 가능
02)525-8940

정사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 대지 밭 합 600평 이상
• 신축한옥 30평 큰창고 2동
• 사철 맑은 계곡과 좋은 교통 및 경관
• 가액 : 8500만원
054)337-5156
011)9857-5156
박청산 합장

신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지리산)
• 부지 605평, 황토 한옥 32평, 요사 9평 자연석 탑 둘레 25m, 연못, 남향 뒷산 5200평 매입 가능
• 가액 : 대출 5000만원에 현금 9천만원 공사비용 1억 9천만원
• 토굴터 2583평 중 대지 100평
• 가액 2천만원
055)963-4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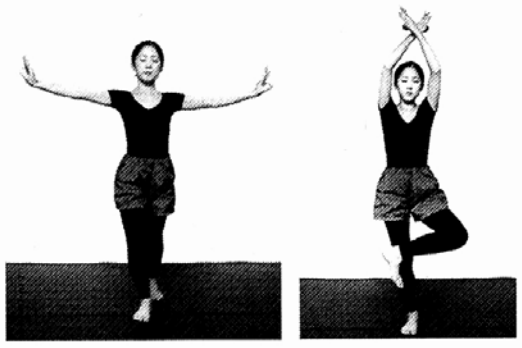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현대백화점 옆 달동상가 3층
• 평수 : 25평
• 특징 : 울산 남구의 최고의 적지 주치시설 완비
• 가액 : 2,500만원 월 25만원
052)227-8425

기도영험도량안내
• 위치 : 김천 톨게이트에서 20분거리
• 2억 2천(주인직접)
• 산세수려, 교통원활
017)513-4898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㉚



• 군다리명왕인 응용 II •

1. 제자리에 서서 군다리명왕인을 취한다.

2. 단전에 집중하면서 '이' 소리를 내며 오른 발을 한 발 앞으로 나딛는다.

'뭐' 소리 내면서 팔을 양옆으로 뻗어

3. '뭐' 소리를 내면서 팔을 어깨 양옆으로 서서히 뻗는다.

4. '꼬' 소리를 내면서 왼다리를 구부려 오른 무릎에 붙이고 손은 가슴 앞으로 가져온다. 이때엉덩이는 오른쪽 뒤로 약간 빼는 자세를 취한다.

5. 다시 손을 위로 천천히 끌어올린다.

6. 왼다리를 내리며 뒤로 딛고 손을 서서히 어깨 양옆으로 내린다.

7. 오른다리를 구부려 왼무릎에 붙이고 손은 가슴 앞으로 가져온다.

8. 오른다리를 내리며 손을 서서히 풀어 단전 앞으로 가져온다.

설날 장거리운전 스트레칭법









12일은 민족 대이동이 있는 설날이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연휴에도 고향에 가기 위해 적게는 2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몸의 여러 부분에 무리가 오기 마련이다. 이때 몇 가지 간단한 스트레칭법을 알아두면 운전으로 굳어진 어깨와 팔, 목 근육이 풀리고 졸음도 쫓을 수 있다. 특히 가장 무리가 많이 오는 어깨는 우리 신체에서 움직이는 각도가 큰 관절이다. 그래서 어깨를 스트레칭 할때는 등이나 가슴, 팔의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사진① 먼저 뒤에서 깍지를 끼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준다. 이어 깍지 낀 손을 위로 가볍게 들어올려 준다. 그렇게 하면 어깨와 가슴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시원해 진다.

사진② 같이 양손으로 양쪽 어깨 뒤쪽을 감싸 안은 다음에 양견갑골 사이를 늘려준다.

사진③ 목을 앞으로 숙인다. 이때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 당겨준다.

사진④ 목을 가볍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힌다.



◇채식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채식주의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사찰음식전문점 '산촌'에는 요즘 점심시간이면 채식을 원하는 이들로 붐빈다. 사진=고영배 기자

"몸 가뿐하고 정신 맑아졌다"

거센 *채식* 열풍

점심때 전문음식점들 크게 붐벼
유기농재배 야채·과일 소비도 급증

채식(菜食) 열풍이 거세다. 건강을 챙기기 마련인 연초인데다 최근 SBS-TV 다큐멘터리 '잘먹고 잘사는 법' 방영 이후 채식 밥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야채와 과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또 채식 전문 식당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며, 인터넷 채식동호회에는 매일 수백명 씩 신규 회원이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채식 동호회 게시판에는 "채식을 한 뒤 부터 몸이 가벼워져 정신이 맑아졌다. 육식을 금하니 성격이 훨씬 부드러워 졌다." 는 등의 생생한 체험기가 넘쳐 난다. 실제로 20년이상 채식만 고집하고 있는 불교TV 이수덕 사장은 "채식을 하면 일단 비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신도 맑아져 참선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며 "부처님께서도 오신채와 고기를 금한 음식들이 중생을 가장 편안케 해주는 식생활이라고 강조하셨다"고 설명한다.

부처님께서는 〈금광명최승왕경〉을 통해 "제철에 나는 음식 즉 산나물과 푸성귀, 야채 등을 섭취할 것"을 권하셨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채식만 한다고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 채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채식 시작은 어떻게 하나

올바른 채식은 흰 쌀밥을 먹던 식단에서 고기만 빼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채식은 자칫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채식 식단에서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것이 단백질이므로 이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콩과 두부, 생선 등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매일 야채와 샐러드를 먹되, 일부는 찌거나 데치는 등 조리방법을 다양화해 질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야채를 먹을때는 항암효과와 비타민 C, E가 풍부한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녹황색 채소를 곁들여야 한다.

⊙채소와 과일 중 어느 것이 좋은가

어느 쪽이든 좋지만 굳이 고른다면 채소가 좋다. 채소는 과일에 비해 살을 찌게 하는 당분이 적은 반면 섬유소와 비타민 등 항(抗)산화제가 많다.

⊙채식만으론 단백질 부족이 오지 않나

육류의 경우 단백질의 주성분인 20가지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지만 채식에선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다. 콩의 경우 메티오닌, 쌀이나 밀의 경우 라이신, 옥수수의 경우 트립토판이 결핍돼 있다. 그래서 특정 아미노산의 부족을 막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곡류를 혼합해 섭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채식하면 좋은가

배가 나온 중년이라면 채식 위주의 식단이 좋다. 복부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잦은 회식으로 육류와 술을 과다 섭취하는 직장인이나 운동부족으로 살이 찐 주부,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사람도 모두 채식이 바람직하다.

⊙채식만 해서는 안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체의 영양소 흡수율은 동물성 음식보다 식물성 음식이 낮다. 같은 양의 영양소라면 식물성 음식은 동물성 음식보다 서너배 이상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임신 여성 및 젖을 먹이는 여성,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많은 양을 먹을 수 없는 노인은 채식만 해서는 곤란하다.

⊙조리상 유의사항

당근이나 상추 등 입 안에서 질겅질겅 씹히는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배추나 파인애플 등 단순히 부피만 차지하면서 위장벽을 할퀼 수 있는 셀룰로오스 등 거친 섬유소가 많은 채소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유기농산물 어디서 살까

62농 닷 컴 (62nong.com), 이 팜 (efarm.co.kr), 풀무원 내추럴홀 푸드 (newfood.co.kr), 무 공 이 네 농 장 (mugonghae.com) 등이 대표적인 유기농 전문 쇼핑몰이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3일이내에 택배로 보내준다.

(도움말: 임홍선 한일한의원장)

건강 담당=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의견

임홍선 원장(한일한의원)은 "채식만으로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채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며 "오히려 술·

"약간의 육식 병행 이상적"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간기능 보호를 위해 살코기 등 고단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성인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면 채식에 비중을 두되 육식을 조금씩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식생활이라고 덧붙였다.

채식관련 사이트

▲다음 카페의 한국채식동호회연합 www.vege.or.kr
▲푸른생명 채식연합 www.vegetus.or.kr
▲하이텔 채식동호회 forum.hitel.net/vega/
▲지구사랑 베가 www.veggie.or.kr
▲고을빛 생식마을 www.vitalfood.com
▲SM 채식뷔페 www.godsdirect contact.co.kr

전국 주요 채식전문식당

지 역	식당명	연락처	내용
서 울	산촌	(02)735-0312	사찰음식
	소심	(02)734-4338	채식정식
	디미방	(02)720-2417	약초정식
	풀향기	(02)2265-1320	산채정식
	솔가실	(02)725-5440	가정식 채식
	베지러브	(02)577-5749	채식전문과자점
	SM채식뷔페	(02)576-9637	채식상품 판매
	뉴스타트 식당	(02)565-4324	무공해 채소 사용
	오대산 식당	(02)571-4565	산채음식
	산글채식건강식당	(02)978-9006	채식재료 판매
	신동향 중화요리점	(02)782-1754	채식 중화요리 식당
	시골생활 채식뷔페	(02)511-5749	맛이 순하다
인 천	태화원	(032)766-7688	채식중화요리
	채식바다	(032)565-8006	채식상품도 취급
경기도	J&J채식뷔페	(031)963-6777	대규모 채식뷔페
	풀잎사랑	(031)906-5177	천연 조미료 사용
대 전	살림채식	(042)486-1288	샐러드, 채식전문 소스 사용
	뉴스타트 건강식당	(042)535-6530	주요리 '콩'
광 주	풀내음 채식뷔페	(062)384-1717	채식 요리 다양
	자연생활건강식당	(062)228-0485	유기농 야채사용
부 산	SM채식한상	(051)581-9993	채식요리 다양
	채식사랑	(051)867-0390	국산 농산물 1백%
	자연생활 채식뷔페	(051)625-9289	채식요리 다양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예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제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곱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몸속의 독을 해독시켜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몸속의 환경호르몬(독소)의 축적은 칼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공포로 다가오며 생명을 단축시킨다. -

간 질 환	간염, 간경변, 지방간 등 간기능 저하 및 급만성 간질환
급만성위장병	급체 위장 장애는 그때마다 복용으로 치유되고, 만성은 1일 3회 정기적 3~12개월이면 신효한 효력 있음.
부 인 병	월경복통, 월경불순 2~5주 이상으로 치유
출 혈	혈치질, 비출혈은 3~5일 내외로 중지되며 1~3개월이면 원인적 치유됨
만성변비	투약을 조절하여 복용하지만(종합병원 임상 99%) 매우 심한 환자는 1회 3~15캡슐
알콜중독	2제 복용으로 특효. 술로 인한 제반 증상이 치료 또는 호전됩니다.
약물중독	급성약물중독자에 1~2주 복용시 제병상의 치료 및 후유증을 해소시켜 준다.
마약중독	경미한 중독자(1~2년) 24시간 OK, 경중한 중독자(2~5년 이내) 48시간 OK, 5년이상 중독자 72~144시간 OK
식 중 독	식중독 발병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99% 치유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80%까지 저하됨.
농약중독	쥐약에 중독된 개가 죽어갈 때 40캡슐 투약하면 15분이면 소생함.
연탄가스중독	중독시 40캡슐을 물에 혼합하여 복용 후 15분이면 회생하고 후유증 없음.



우리 몸의 독소가 만병의 근원
기적의 미라보타 플러스

만병의 근원인 우리 몸의 독소제거는 미라보타 플러스로!

특히, 술로 인한 간질환에 ……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205
미라보타 플러스

불교 이래서 좋다

박경숙 청소년교화연합회 간사

"自他不二정신 나의 좌우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나에게 생긴 큰 변화는 행동하기전에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불교를 믿기전에는 단순히 고등학교 시절 윤리시간에 배웠던 4자 성어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내 좌우명이 돼 버렸다.

선지식들의 법문이나 불서를 통해 수없이 되뇌어진 이 불교의 고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넣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내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항상 타인을 나와 같이 대하라는 이 가르침은 얼핏보면 무조건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살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곱씹어 실천하다보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며 사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일하고 있는 청소년교화연합회에서는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을 초청해 '자원봉사한마당'이란 행사를 열고 있다. 청소년들이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또래의 장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하루동안 수영을 가르치고 친구가 돼주는 아름다운 이벤트다. 정상인도 1~2달은 걸려야 배우는 것이 수영인데 걷는 것도 힘든 장애아들을 부축하며 수영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몸은 조금 고되고 힘들더라도 장애아들에게 하루동안 수영장에서 함께 놀아주고 수영도 가르쳐준 청소년들이 행사가 끝날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한결같은 소리는 '보람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결국 나의 조그만 힘이 타인에게는 큰 의지처로 느껴졌을때 오히려 내 자신은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자타불이'란 남을 위하는 것임과 동시에 내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이 거룩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근본정신이라는 점 때문에 나는 불교를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한다.

인터넷으로 청년불자 키운다

대불청 · 대불련 올 주요사업 발표



◇대불청과 대불련이 인터넷 포교를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불청대회에 참가한 청년 불자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조직 재정비 전략을 짜는 등 청년불심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대불청과 대불련은 인터넷포교와 지회연계 활성화를 강화한 내용의 올해 사업 계획을 1일 발표했다. 특히 이 두 단체는 지난해에 미비했던 지역 조직 재정비에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대한불교청년회는 3월중으로 다양한 불교 컨텐츠를 강화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정보화 사업은 중앙지구와 지회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해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불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정보 및 교계소식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히 회원들에게 전달키 위해 사이버 포교팀을 신설한다.

지역 청년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 충청, 호남, 강원권 등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3~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교청년 지도자 워크숍도 개최한다. 4월에는 조직구성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조직을 세밀하게 재조사한 불청수첩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대불청은 이외에도 △제23회 만해백일장(3월1일) △만해대학 개강(3월7일) △제19차 전국불교청년지도자연수교육(4월13~14일) △제21차 전국불교청년대회(7월13~14일) △통일수련회(8월) △8 · 15 불교청년통일기원법회(8월15일) △청년불교공동 워크숍(3, 5, 8, 11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불련도 현재 게시판 기능만 하고 있는 'KBUF(Korea Buddhist University Federation), 인터넷 방송국'을 이달안으로 업데이트해 포교 도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터넷 방송의 제기능을 살려 '대불련 아카데미' 강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각종 지역 행사들을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동영상으로 제작한다. 또 웹진 시스템을 구축해 불교교리, 법문 등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불련은 △새내기 배움터(4월) △전국지회장단 회의(5월) △여름교양학교(7월) △한국불교 1600년대회, 및 통일 순례단 행사(8월)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박문수 대불련 회장은 "올해에는 교불련과 대불청 등 신행단체들과 연계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포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일단 176지회로 돼 있는 대불련 조직중 없어지거나 가등록된 지회들을 빨리 정리하는 조직 정비부터 해나갈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대불청 사이버팀 신설 · 홈페이지 재구축

대불련 인터넷방송 강화 온라인 강의

설날 제사상 어떻게 차리나

메일매거진 인포메일 13일까지 이벤트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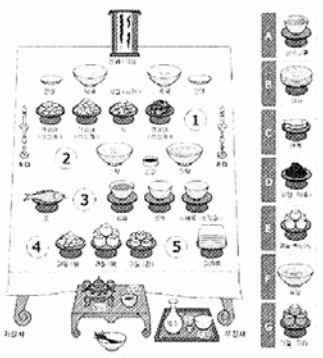
'홍동백서, 어동육서'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는 설날 제사상을 차리는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신세대 청소년들에겐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다. 이에 메일매거진 포털 인포메일(infomail.co.kr)은 12일 설을 맞아 '사이버 차례상 차리기' 이벤트를 열고 있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을 상차림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고른 뒤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선물로 준다. 퀴즈를 통해 상차림법을 배우면 생소한 용어와 배열 순서가 머리에 쉽게 쏙쏙 들어올 것 같다.

관심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설날 이벤트 코너를 클릭하면 인터넷 상에 준비된 차례상이 그림과 함께 나타나는데, 상 위의 빈자리 다섯 곳에 적당한 제수를 넣으면 된다. 이때 보기로 삼색나물과 어적, 대추, 복숭아, 육탕 그리고 기타 과일 등 7가지 제수용품이 주어진다.

퀴즈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례상 차림법을 모르는 청소년과 네티즌들을 위해 상차리는 법을 알려주는 별도의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 페이지를 클릭하면 상차림법이 소개돼 있다. 상 맨 위쪽 가운데에 올린 지방을 기준으로 첫째 줄에는 떡국과 수저를, 둘째 줄에는 서쪽으로부터 국수, 육적, 어적, 시루떡을 놓는다. 또 셋째 줄에는 고기탕, 생선탕, 두부탕 등 3탕을 놓으며, 넷째 줄에는 포와 삼색나물, 식혜 등을 올린다. 차례상 차리기는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나 기본 원칙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메일매거진 포털 인포메일은 퀴즈로 푸는 설날 상차림 이벤트를 벌인다.

담배를 끊읍시다 금연후 시간별 효과

흡연자가 담배를 끊은 후 20분 뒤부터는 혈압, 맥박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 금연 8시간이면 숨찬 것이 없어지고 가래도 덜 끓게 된다. 그리고 금연 기간이 1년이 지나면 호흡곤란 증세가 없어지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 금연한지 10년이 지나면 폐암 사망률이 담배를 피운적이 없는 비흡연자와 거의 같아진다.

20분 후	혈압과 맥박 정상, 손발 체온 정상
8시간 후	혈중 일산화 탄소, 산소 농도가 정상
24시간 후	심장마비의 위험이 감소
48시간 후	신경말단 재생-맛과 냄새 감각이 좋아진다.
2~3주 후	혈액순환 좋아지고 폐활량 30% 이상 증가
1~9개월 후	기침, 코막힘, 피로, 호흡곤란 감소, 폐의 섬모 재생
1년 후	심장병에 걸릴 위험, 비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
5년 후	폐암 사망률 보통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
10년 후	폐암 사망률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
15년 후	심장병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

금연 1년 후면 호흡곤란 개선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사이버 법장사'

법회촬영 홈페이지에 불사 등 8개 코너 운영

컴퓨터, 인터넷 하면 젊은 청소년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40~50대 기성세대들에게는 동떨어진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사이버 법장사(www.bupjangsa.org)를 만들고 관리 · 운영하는 법장사 거사회(회장 김주식) 회원들에겐 기우에 불과하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법장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장사 거사회는 200여 회원중 3분의 1 이상이 '컴도사'로 불리운다. 이들은 매주 법장사에서 열리는 일요법회에 동참, 주지 퇴휴 스님의 설법을 디지털캠코더로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사이버 법장사는 불교의 기본사상인 팔정도를 기초로한 법장사 안내, 불사 및 기도, 신행의 길잡이, 신행단체 등 8개의 코너를 구성, 사이버 불국토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 깔끔한 디자인과 신행상담 등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사이버 일주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더불어 동영상 법문은 해외에 이민 간 불자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어 사이버 신행의 모델이 되고 있다.



◇법장사 거사회는 사이버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1월 20일 열린 거사회 철야법회.

뿐만 아니라 일요법회 집전, 어린이불교학교 개최, 법장사 창립제 및 초파일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종횡무진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매 분기마다 개최되는 철야법회는 1, 2부로 나누어 경전 및 집전 교육과 1080배, 참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나 바쁜 직장 생활로 절에 나오지 못했던 불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법장사 거사회는 사이버 상에 원불 모시기, 기도문 작성, 사이버 머니로 보시하기 코너를 마련해 사이버 법장사를 명실공히 사이버 템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활인(活人) 천역(天役者)자 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한 획을 긋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효 사 -

세태 (世態)는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영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묻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간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으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나 접근이 어려워 덮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 (9:32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는 것입니다.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가부 : 천도 시식 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때품 내쏟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망가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득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수 있게끔 써 놨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아타발동(我他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旣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 · 중간 · 결과로 나눠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가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생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묻고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놔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낙태아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상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방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 · 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응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 · 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길흉성부단정항목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망 · 공명 · 구재 · 구직 · 시험 · 혼사 · 임신 · 가정 · 이사 · 소송 · 질병 · 매매 · 출생 · 도난 · 심인 · 대인 · 상면 · 채용 · 투자 · 승부 · 가격 · 경작 · 묘지 · 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한글판 「육임1년 신수비결」 출시

1년 중 어느 날이든 그 날과 온 시간, 전화해 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 또는 그 사람의 띠만 알면 출생 년월일시가 필요없이 1년 12달의 길흉성부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쉽고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신수책은 영영세세 두고두고 보는 책이며 정확합니다. 이 책을 능가하는 신수 책은 없습니다. 어떤 오행술도 육임의 정확도와 과단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육임은 신시(神示)로서, 스님이 말씀하면 법력(法力)이 되고, 신명제자가 말씀하면 귀신(鬼神)이 되고, 오행가가 말씀하면 도력(道力)이 됩니다. 감히 자신있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 금 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각종 카드로 할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모습 갖추는 '안성노인타운'

무료요양원 5월 준공, 효문화원 곧 착공



◇오는 5월 첫 삽을 뜨게 될 연꽃마을 안성노인종합복지타운 내 '효문화원(연수원)'의 조감도.

1만평 규모의 연꽃마을 '안성노인종합복지타운'의 골격이 갖춰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오는 5월, 복지타운 내 '무료노인전문요양원'을 준공하고, 노인 문화공간과 효 전시실이 들어설 '효문화원(연수원)'을 잇달아 착공한다.

재작년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을 승인 받고,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연꽃마을은 1차로 건평 700여 평 규모에 지상2층인 '무료노인전문요양원'을 올 5월에 준공한다. 치매단기보호소, 물리치료실, 재가복지센터 등이 들어설 이 시설에는 보호소 20명을 포함, 70명을 수용하게 된다. 또한 연꽃마을은 복지타운 내 부지 1천5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노인문화공간과 청소년교육 연수원 '효문화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올 5월 첫 삽을 뜨게 되는 '효문화원'은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시설인 무료노인전문요양원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하여 노인들의 평생교육과 수행의 장으로 활용된다. 특히,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쉼터 제공과 함께 지상 1층에 '효 관련자료 전시장'을 마련해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자료 열람케 해, 다양한 효문화를 체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효문화원' 건립을 위해 연꽃마을은 사업일정을 3개년으로 나눠 추진키로 하고, 2005년에 완공키로 했다. 정부지원금 없이 총 공사비 50여억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로 한 연꽃마을은 공사현장에 특별 기도법당 설치, 후원자를 발굴, 모집하는 등 모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중증장애노인의 의료문제와 가정이탈 노인의 증가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라져가는 효문화를 뒤살리고 직접 체험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노인요양원 수탁기관
울산시, 석남사 확정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수탁기관으로 석남사(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가 선정됐다.

울산시는 1일 석남사(주지 영운)와 올해부터 2004년까지 2년동안 시립노인요양원을 위탁하는 수탁자 협약서를 체결, 2월중 개원할 예정이다.

울산 중구 성안동에 건립된 시립노인요양원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31명 규모로 운영된다. 김재경 기자

서원노인회관 개원
금산사, 전주시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대표이사 도영)가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원노인복지회관이 8일 개관한다.

서원노인복지회관은 건평 93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사회교육실, 음악감상실, 게이트볼장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원우기자



미륵종 부산종무원 현판식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월 28일 부산 금강사(주지 혜경)에서 부산교구 종무원 현판식을 봉행했다.

종단간부 및 신도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송정스님은 "미륵 10선법을 통해 불교의 요람인 부산에 미륵부처님을 널리 알리는 전법활동을 펼쳐 교세 확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해운대 포교원 준비법회

통도사 해운대포교원 구룡선원(주지 효범)은 1월 26일 해운대신도시 시장 상가에 마련된 법당건물에서 개원 준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포교국장 용하스님, 통도사 호법국장 보하스님, 정영석 해운대 부구청장 등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구룡선원은 3월 100평 규모의 법당을 갖추고 불교교양대학 등을 운영한다.

고속철 금정산관통 저지

범어사, 각단체 연대 범시민대책위 추진

'금정산 범어사 경내 고속철도 통과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성오)는 1월 29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고속철 금정산 관통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초정화합시민연대 상임대표 정각스님, 동명볼원 장산스님, 금정산 지킴이단 허탁 회장, 범시민 금정산보존회 이만수 이사, 부산청년환경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고속철 금정산 관통을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연대 결성에 뜻을 모았다.

범어사 대책위원회의 고속철 관통 현장 지도 설명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범어사 총무 도관스님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2월 5일 첫모임을 갖고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을 비롯한 현장조사, 환경평가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범어사는 130여개 말사와 힘을 모아 3백만 서명운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하는 한편, 정부의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강제수용의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보리수선원 이전
압구정서 개원법회

위빠사나 수행처인 보리수선원(주지 붓다락키타)이 서울 압구정동으로 이전, 1월 26일 개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중흥사 주지 도일 스님, 붓다락키타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부산 태종사 조실 도성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인 위빠사나 수행법에 따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02)517-2841 강유신 기자

게시판

▲ '꼬마 명창' 공개 모집=국립창극단은 '꼬마 명창'을 모집한다. 초등학생이면 응모 가능하며, 원서 접수는 18일까지다. (02)2271-1742

▲ '기도의 힘' 출판기념회=영남불교대학은 14일 오전 11시 남구 봉덕동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기도의 힘' 출판기념법회를 연다.(053)474-8228

▲ '나만의 책만들기' 전시회=은평구립도서관은 '나만의 책만들기' 전시회를 9일까지 관내 1층 경독서코너에서 연다. (02)385-1671

▲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 거동불편 및 심신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물리치료, 종이접기,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852-0525

▲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25세 이상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홈패션, 양재, 생활한복, 옷수선 등의 취업훈련 교육을 실시한다. 접수마감은 2월 15일까지. (051)265-9471

▲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양정청소년회관은 2월 상설강좌과 청소년, 어린이 방학 특강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제작반, 일어, 한자교실, 사진교실, 선물포장, 가야금, 장구, 어린이 스포츠댄스 등. (051)868-0750

▲ 신입생 모집=대광불교대학은 제2기 정규과정, 정규과정통신반과 제7기 신행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 (051)816-2245.

목탁소리

'달마야' 남용 말라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에로 비디오계의 영화 제목 패러디 열풍이 불교계까지 불어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영화 '달마야 놀자'의 제목을 패러디한 에로비디오 '달마야 하자'가 불교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개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서울영상기획이 1월 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가 선정적인 장면이 문제가 돼 '등급보류 14일' 판정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계종은 1월 29일 문화부 임해조 주임을 기획사로 보내 엄중 항의했다. 임 주임은 이 자리에서 "성인 에로영화에 전혀 내용과 상관없는 대선사 달마를 제목으로 붙인 것은 불교를 폄하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라며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영상기획측도 "처음에는 제목이 '엽기산장'이었는데 흥행에 성공하기엔 제목이 약하다고 판단해 영화 제목을 패러디 했다"며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번 해프닝이 사전에 미리 정보가 입수돼 원만히 해결됐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내보내졌다면 불교가 큰 비웃음을 살 뻔한 일이었다. 이번일을 지켜보며 에로영화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 돈을 벌수만 있다면 불교계에서 존경받고 있는 대선사까지 등장시킬 수 있다는 저속한 상업주의에 큰 분노를 느낀다.

예술에는 분명 자유가 존재한다. 대중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소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종교라는 거룩한 울타리를 폄하하거나 격하시킨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외설이다.

대중문화인들은 이러한 사명 의식을 철저히 숙지해 작은 작품 하나 하나에도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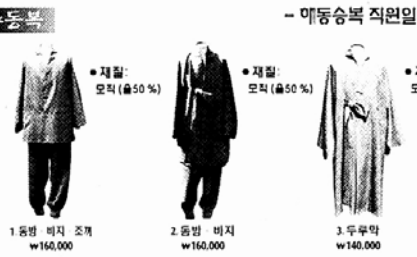
2001년도 '현대불교신문 합본 7집' 판매

현대불교신문 2001년 합본집이 제작되었습니다.
현대불교에는 큰스님 법문, 쉬운 불교교리 해설, 각 종단과 단체의 소식,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내용 : 2001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301호-349호)
□ 크기 : 신문대판 원형(40cm-55cm)
□ 방법 : 전화 신청/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가격 : 60,000원 (발송비: 지역별 3천원-7천원)
□ 입금구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주문 및 문의 전화 : (02)737-0090(직통)/팩스 (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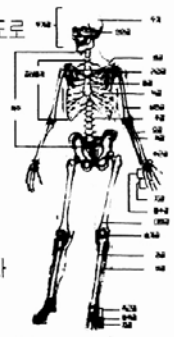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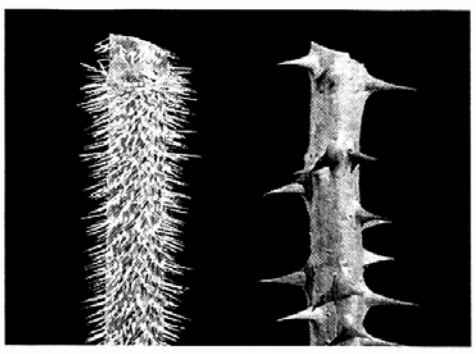
영가천도
여러번 영가천도에 실패하신 불자님,
부처님의 가피로 해결해 드립니다.
정토사에서는 아미타, 관음, 지장,
삼존불을 봉안하고 불사를 위한
아미타 1000일 기도 중입니다.
1000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백병산 정토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031)771-0227
016)999111-61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 동방 바지 조끼 w160,000 · 2. 동방 바지 w160,000 · 3. 두루막 w140,000
누비

4. 동방 · 바지 : w200,000 조끼 : w60,000 · 5. 동방 · 바지 : w220,000 · 6. 두루막 : w160,000
잔누비 · 조끼·몸배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7. 서츠 : w60,000 바지 : w70,000 · 8. 조끼 + 몸배 w60,000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역 대리점 모집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고려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로 만든 제품은 일반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다릅니다.
GOLD
〈가시모양비교〉

• 가시오가피 : 바늘가시 • 일반오가피 : 삼각가시
오가피 전문회사에서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가시오가피 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문의전화 02-517-0809, 5333

"독경으로 전신마비 이겼어요"

김명규씨부부 투병기 '뇌졸중 석달만에…' 출간

병실서 하루 수십번 금강경등 염송
12일만에 휠체어, 90일뒤 팔공산에

독경을 통해 병마를 이겨낸 사례를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 최근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명규(54) · 김영화(50)씨 부부는 금강경, 화엄경 등 독경을 통해 마비된 신경을 되살아나게 하는 등 병마를 극복한 자신들의 경험을 〈뇌졸중, 석달 만에 털고 일어나기〉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아내 김영화씨는 남편 김명규씨가 97년 10월 31일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이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돈독한 불심을 바탕에 둔 독경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1인 병실을 고집했다. 독경으로 병마를 이겨내겠다는 김영화씨의 간절한 불심의 발로였다.

이들 부부는 남편 김명규씨가 의식을 회복하면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금강경, 화엄경, 광명진언을 염송하며 마비된 근육과 신경을 되살려 나갔다. 가정에서 매일 예불과 독경을 실천했던 이들 부부의 신행이 병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일념으로 독경을 했다.

그러자 꼼짝할 수도 없었던 남편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쓰러진지 12일 만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은 회복됐고, 23일 만에 지팡이에 의지해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병원에 입원한 지 61일째 되던 날 김명규 · 김영화 부부는 손을 맞잡고 병원 문을 나섰다. 독경과 약사여래불 염호를 통해 증세가 호전됐다는 확신을 가진 이들 부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팔공산 약사여래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다짐했다.

90일째 되던 날, 팔공산을 찾은 김명규씨는 한계단 한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 앞에서 약사여래불 명호를 염송하며 정상에 올랐다. 아직도 많이 불편한 몸이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게만 느껴졌다.

김명규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다 살아난 것은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아내와 함께 경전을 독경함으로써 가능했다"면서 "전신마비라는 역경 속에서도 독경을 게을리 하지 않은 노력에 대한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구룡사에 다니고 있는 김명규 · 김영화 부부는 예전처럼 똑같이 걷고 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서원하며 매일 아침 예불과 천수경을 독경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김명규(오른쪽) · 김영화 부부는 금강경 등의 독경을 통해 뇌졸중을 이겨냈다.

스님노후생활 제도적 보장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의료 검진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는 1월 24일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스님과 종무원들의 노후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상반기 중점과제로 채택, 관련사업들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가연대는 경북대 의대 불자교수, 불자약사모리회와 함께 상반기부터 나이든 스님들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 가능한 지역부터 벌여나가는 한편, 스님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사찰이나 단체들을 집중 홍보하는 등, 범종단적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선다.

또 교구본사나 문중 단위의 의료 공제회 조직을 지원하고, 이를 재가봉사단체와 연결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은 "여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스님의 노후복지에 관한 교계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통일대화마당은 지금까지 4천여명이 참석,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통일대화마당 100회돌파

좋은벗들, 강좌내용 3권 책으로

2000년 3월 3일 시작된 좋은 벗들(대표 법륜)의 '통일대화마당'이 1월 25일로 100회째를 맞이했다. 통일대화마당에서 펼쳐진 '통일강좌'는 불교시민단체가 나서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북한 사회를 다양하게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통일강좌는 법륜스님, 박노해, 탈북자 출신 의사 최동성 씨 등 다양한 강사들이 강사로 나서 북한의 정치 · 경제 · 문화 · 역사 등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통일대화마당 강좌의 내용은 〈통일 미래를 이야기한다〉, 〈열린 세계 열린민족〉 등 3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강유신 기자

"북한산도로건설 방해 안된다"

서울지법, 대원사 · 환경연합 패소 판결

북한산관통도로건설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 및 환경단체에게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동윤부장판사)는 1월 31일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와 LG건설이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간부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의정부시 호원동 제4공구(사패산터널 구간 7.48㎞)에 대한 신청인들의 건설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피신청인들의 현장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사찰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공사 방해가 이뤄지는 지역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문제와 상관없어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가운데 사패산터널 공사를 대원사, 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을 파괴한다며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자 지난해 이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북한산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연대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변호사와 협의, 상급법원에 상고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9면

강유신 기자

원행스님 새회장 추대 원주사암련 정기총회



원주사암연합회는 1월 31일 치악산 구룡사 심검당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행 스님은 "지난해 개신교 측의 원주경찰서 경승실 불상봉안 반대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원주 불교계가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주불교가 화합불교, 참여불교, 생활불교, 수행불교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묘현사 등 4개사찰 훼손 불가피

도로공, 고창 영취산에 터널건설 추진

전남 고창과 전북 장성 사이에 위치한 영취산에 고창터널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이 일대의 불교유적은 물론, 묘현사 등 사찰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인 고창~장성 구간을 연결하면서 영취산을 관통해 전남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와 전북 장성군 시산면 대덕리를 잇는 고창터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묘현사 주지 묘각 스님은 "영취산 일대의 묘현사 등 4개 사찰의 환경과 취서사, 망월암 등 10개 사지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연계해 이들 사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터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뇌물수수 없었다" 증언

김태복장군 환송심 1차 심리

군법당 건립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중인 김태복 장군의 환송심 1차 심리가 1월 3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주범 대령)에서 진행됐다.

장성급 재판에 영관급 재판장이 배석한다는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로 20여일 늦춰져 열린 이날 심리에서 김태복 장군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건과 관련 "김문규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군검찰의 주장은 증거조작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군은 또 여단장 공관에서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군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1996년 7월 7일 당시 자신은 공관에 있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언했다. 김 장군은 "법회를 마치고 불교TV 촬영팀과 간부들의 격려식사에 참석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당시 촬영팀과 간부들로부터 확인했다"면서 "본인이 96년 7월 7일 공관에서 김문규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은 경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재판장 남재중 중장)는 변호인 측이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김문규, 극락사 주지 성엄스님, 서영오 원사 등 6명의 증인을 전원 채택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차 심리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 공지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선암사 탱화 또 도난당해

전남 순천시 선암사(주지 지허)의 탱화가 또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순천경찰서는 1월 27일 "선암사 지장전 불상 뒤에 걸려있던 지장탱화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4시 20분에서 5시 사이 도난당했다는 내용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비단 바탕에 색을 입힌 지장탱화는 가로 193×217㎝ 크기로 1849년 조성된 것이다.

선암사는 지난 98년과 99년에도 탱화 5점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

여수령 기자

조계사 청년회 절하기 대회

조계사 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9일 오전 7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회 절하기 대회'를 연다.

절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6일 '절 수행법 교육' -청견스님(양평 법왕정사 주지) △12일 108배 7일 정진 △16일 '절 수행의 의미와 공덕' -진락스님(조계사 청년회 기획국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합장, 호계합장, 오체투지 삼배 등 세 종목에 걸쳐 치러질 이번 대회는 개인과 단체로 나눠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템플스테이 사찰 1차 25곳 선정

조계종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사를 통해 1차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5곳을 선정했다.

조계종의 10개 월드컵 경기장 주변 템플스테이 운영 25개 사찰은 △서울=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인천=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대전= 갑사 △전주= 내소사 선운사 금산사 △대구= 동화사 직지사 해인사 △광주= 대흥사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미황사 △울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 내원정사 △서귀포= 약천사 △강원도= 구룡사 월정사 신흥사 등이다.

한편 조계종은 6일 오후 2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아이디어 토론회를 연다. 김원우 기자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堂**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55-7555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卍行"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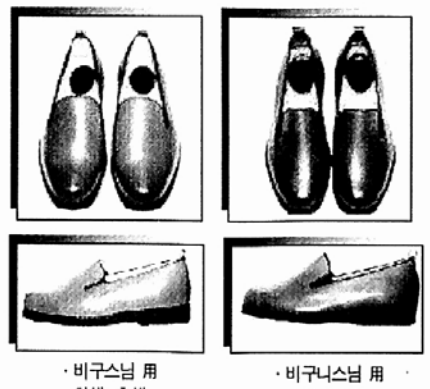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 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卍行 만 행



· 비구스님 用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 회색, 흑색

건강신발 卍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1)742-0296. 742-0297
卍行대표 박동진 합장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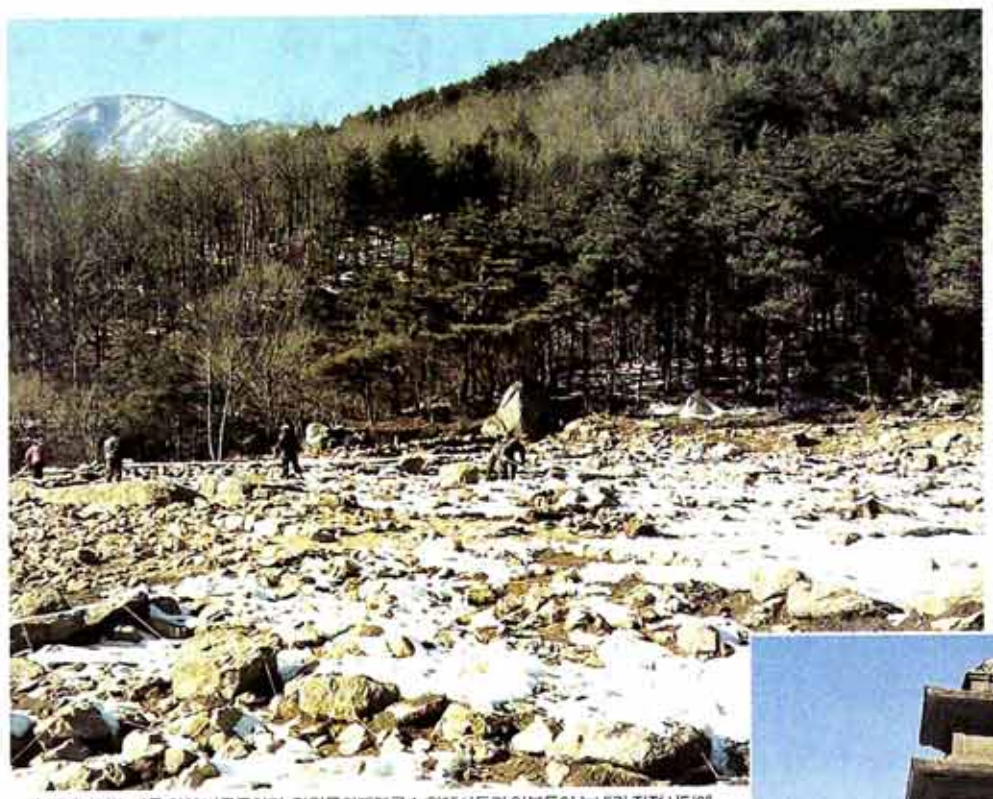
양양 진전사 터

한국불교변혁 진원지

禪宗의 텃밭

<잊혀진 가람 탐험>세 번째의 여행으로 동해의 북단, 양양(襄陽) 진전사(陳田寺) 터를 찾아간다. 아직 시절이 수상하여 북녘의 수많은 폐사지들 가운데 겨우, 석왕사, 신계사 터만을 순례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군사분계선 아래, 외설악 초입의 진전사 터로 옮긴다.

눈 덮인 산하, 매운 골바람 속에 겨울잠을 자듯 잔뜩 웅크린 폐사지를 찾는 것은 자못 운치가있다.



◇진전사터는 지금 한창 발굴중이다.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예사들과 인부들이 눈내린 진전사터에 금줄을 치고 돌맹이들을 하나하나 두드려 깨우고 있다.



◇도의선사 부도(보물 439호). 9세기 중반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도이다.

아예 속세와는 경계를 그으려는듯 솔바람소리가 파도처럼 달음쳐와 순례객을 산문 밖으로 밀어내고, 산비탈에 기대선 겨울나무들은 펑펑한 육성(肉聲)을 내뱉으며 온몸을 부르르 떠는데, 무슨 꿈이 그리 깊은지 폐사지들은 몇 채씩 두터운 눈 이불을 끌어다 덮은 채 인기척이 요란해도 거동을 않는 것이다.

사리탑 부도시대 열어

속초에서 몇 번인가 해안선을 따라 오르내리다가 가까스로 오색 약수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설산(雪山)으로 접근하자 개똥지빠귀 떼들이 요란스레 우짖는다. 붉은 열매를 쪼다 말고, 눈 묻은 가지를 털며 비상하는 것이 영락없이 심산유곡, 설악의 주인네를 닮다. 진전사는 거기 날랜 개똥지빠귀 죽지 아래, 둔전리(屯田里) 깊은 적막 속에 폐선처럼 정박해 있었다.

갯바람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석탑 하나만 깃대처럼 받쳐들고, 옛주인의 뱃노래도, 삐걱이던 노젓는 소리도 얼음장 밑에 숨죽여 흐르는채, 어느 먼 바다를 떠돌다 왔는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산사태로 파선된 지 4~5백년이나 지난 것 같은 진전사의 사정은 딱하기 이를데 없다. 어떤 역경에도 신라 왕권불교의 '반역자' 도의선사(道義禪師 · 생몰년 미상)부도만은 제대로 간수하려는 듯 산등성이 솔숲에 숨겨 놓고 미쳐 피하지 못한 금당과 그 부속 권속들은 망가진 형체대로 계곡 여기저기 함부로 널부러져 있다. 어쩌자고 통일신라의 위대한 지성, 도의선사(道義禪師)는 조국 서라벌을 등지고 예까지 무거운 이 '진리의 뱃목 한 혁 을 끌고 온 것일까.

강원도에서는 산도 물도 바다를 향하여 흐른다. 연인인양 사이좋게 팔장을 끼고 흘러가면서 지루한 듯 노송 몇 그루쯤 다문다문 세워놓고, 또 그 그늘마다 민가 몇 채씩을 지어놓아 옛이야기들을 지금대게 하는 것이다.

도의선사가 35년 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서라벌로 돌아와 왕권불교로 전도된 신라불교의 혁신을 외치다 '마귀의 말(魔語)'이라는 배척을 받고,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함을 알고'는 이곳 설악산 자락에 들어 은둔을 시작한 것은 서기821년(헌덕왕 13) 경의 일이었다. 도의선사가 서라벌을 떠나올 때 '진리의 뱃목'에 싣고 온 것은 남종선(南宗禪)의 법맥인 마조도일의 선법(禪法)이었다. 왕즉불(王卽佛), 왕은 곧 부처이며, 귀족은 보살이고, 백성은 중생이라는 불교의 세계관을 절묘하게 봉건체제의 위계질서로 일치시킨 신라불교는 더 이상 민중과 역사를 이끌고 나갈 법력을 상실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흐르는 것이 멈췄을 때, 역사의 선지식들은 몸서리를 치며 그 막힌 물길을 새롭게 틀기 위해 삼과 곡괭이를 들고 길을 나서는 것이다. 대당 유학승으로 6대조 혜능과 8대조인 마조도일의 법맥을 이은 서당지장으로부터 홍주종(洪州宗)의 불법을 전수한 도의선사가 그러했던 것이다. '왕즉불(王卽佛)'이 아닌 '자심즉불(自心卽佛)'을 외치며, 인간의 본연 평등과 존엄성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고뇌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붉은세력으로 몰리자, 달마가 양무제 군대에 쫓겨 동쪽으로 갔듯이 그도 또한 '동해의 동쪽에서 북산의 북쪽'으로 산도 물로 흐르는 동해의 인연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전사는 이렇듯 외롭고 의로운 선지식 하나가 반도 땅에 흐르는 정법의 수맥(水脈)을 바로 짚어 한국불교의 지평을 새롭게 연 변혁의 발상지이다. 삼과 곡괭이로 감로심, 오직 이 나라가 정토되기만을 기원했을 도의선사의 후신(後身)인듯 보인다. 세월의 전변함인가, 보호대로 둘러친 철책도 모자라 이제는 송전탑이 시야를 가리니 삼층석탑도 탑신의 화불들도 시력을 잃은 듯 아무리 눈을 맞추려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저수지 옆 산비탈에는 이제 막 발굴을 시작한 진전사지가 처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학예사들이 나와 인부들과 함께 거미줄같이 금줄을 치고 언 땅이며, 부석부석한 돌맹이들을 두드려 깨우고 있었다. 사지 한가운데는 당간지주인양 늙은 오리나무 고목이 팔다리를 다 잘린채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오기가 대단해 보인다. 진전사지가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인부들이 아무리 달래고 다그쳐 물어도 한번 입 다문 돌맹이들이며, 오리나무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다.

중국에는 달마가 있고, 해동에는 도의가 있었다고 할만큼 후세의 추앙을 받는 도의선사도 어쩌면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따돌림받는 외로운 존재였을 것이다. 따돌림을 받았으면 어쩌랴, 뿌리 깊고 골 깊은 설악의 골짜기에 들어서 개똥지빠귀처럼 역사의 시공을 멀리 날고 있으니 역사는 결국 진보의 편에 서는 것이다.

도의선사 '혁신' 꾀하다 이곳 은둔
폐허엔 부도·석탑만…발굴 진행중



◇진전사터에 서있는 삼층석탑(국보 제122호). 기단의 사면과 탑신에 비천상과 팔부신중, 사방불을 돋을새김으로 조각한 신라시대 대표적 석탑이다.

도의선사의 사상은 그의 제자 염거화상(廉居和尙 ?~844)에게 전해졌고, 염거화상의 가르침은 다시 손자뻘 되는 보조체증(普照體證 804~880)에게 전해져 장흥 가지산에 보림사(寶林寺)를 세우고 그 법을 전파하니 이 법이 곧 하대신라의 구산선문(九山禪門) 중에 제일문인 가지산파의 내력인 것이다.

일연스님 이곳서 수행

도의선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신라의 귀족이 아니라 지방의 호족이었다. 왕즉불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 중앙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호족에게 도의의 주장은 구원의 사상이었기에, 호족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약되어 그들은 앞다투워 지방에 선종 사찰을 세우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는 곧 호족 중의 한사람인 왕건의 승리로 귀착되어, 한국불교는 결국 선종 중심이라는 확실한 종풍을 진작시키게 되었으니 그 모든 변혁의 출발점이 여기 진전사에서 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발굴이 진행중인 진전사 터 왼쪽 능선에는 도의선사 사리탑으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부도 하나가 가부좌를 틀고 있다. 방첨대부터가 석탑의 기단부를 그대로 원용한 것이 연꽃받침대를 권 여느 부도와는 달라 범상치를 않아 보인다. 이 부도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도로 주목받는 바로 그것이다. 화엄에서는 고승의 죽음 또한 그저 죽음이기에 완효, 의상, 진표, 자장 등 신라의 어느 고승도 부도를 남기지 않았으나, 한국 선종의 제1조인 도의선사에 이르러 부도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도의선사 이후, 진전사에는 〈삼국유사〉를 쓴 일연(一然 1206~1289 스님이 14세 때 머리를 깎고 수도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어떤 스님이 계셨는지 전혀 전하는 데가 없다. 지금은 저수지로 계곡의 물을 가득 담아 죄 없고 어진 이 땅의 선민(選民)들에게 물길을 대는 여귀소(女鬼沼)에는 절이 폐사될 때 스님들이 수장(水葬)하고 떠났다는 범종과 불상들이 지금도 수중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지 슬픈 전설만이 먼 바다로 흘러든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설악산 미천골 선림원터 편

